

예레미야 1 장

1. 예레미야의 사역 시기는 언제라고 하는가?

유다 왕 요시야 13년부터(BC 627)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 11년 말까지(BC 586, 유다가 멸망하던 해) 대강 40년간으로 나라가 멸망하던 시기이다. 공식적으로는 그렇다 해도 예레미야가 유다 멸망 이후에도 사역을 좀 더 계속했다. 망해가는 나라의 불씨를 살리려고 애를 쓴 비운의 선지자이다. 나중에는 이러한 징계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권고하였다.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던지신다'이다.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시작한 것은 즉위 12년째이며(대하 34:3)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 개혁을 시작한 것은 18년째이다(왕하 22:3-8). 예레미야가 부름 받은 것은 요시야 13년이다(2) 종교 개혁이 막 시작되던 때이다.

2. 유다 말기의 왕은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이다. 이들의 관계를 왕하 23-24장을 보면서 간단하게 정리해 두자.

요시야가 느고의 진격을 막다가 죽임을 당하자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다(왕하 23:29-30, 29절의 '치고자'는 '돕고자'로 고쳐야 한다). 느고가 바벨론에 패하고 물러나면서 유대를 침략하여 여호아하스를 폐하고 여호야김을 세웠다(왕하 23:33-34). 바벨론이 득세하는 와중에(1차 침입) 여호야김은 죽고(대하 36:6-12, 왕하 24:6, 렘 22:19를 참고해서 재구성해야 한다)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지만 바벨론의 2차 침입으로 사로잡히고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워졌다(왕하 24:14-17).

요시야는 31년간 통치했고, 여호아하스(요시야의 아들)가 3달, 여호야김(요시야의 아들)이 11년, 여호야긴(여호야김의 아들)이 3달, 시드기야(요시야의 아들)가 11년을 통치했다.

3. 말씀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다바르'인데(2, 4) 이것은 말뿐만 아니라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행동과 삶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이었다(13, 18, 19, 51장).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우리 한국 성도들의 어떤 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말과 행동이 다른 것: 아마 미국 사람들은 매운(hot) 것과 뜨거운(hot)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나보다. 히브리인들은 말과 행동이 잘 구별되지 않나보다. 우리는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저렇게 하는 것이 아주 쉬운데?

4. 복중에 짓기 전이면 언제일까?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나기 전일까?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해서 예레미야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을까?

예레미야를 부른 것이 우연이나 즉흥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던 일이라는 뜻이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로 미리 작정하셨단 말이다. 어렵고도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 이런 일을 맡기셨다는 사명감이다.

5. 왜 유다의 선지자가 아니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란 뜻이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의 대상은 모든 나라라는 것을 의미한다(46-51장).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냐니까 '눈물의 선지자'가 아니라 '열방의 선지자'란다. 일반적으로 부르는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이고 이것이 그의 삶을 잘 표현하고 있으므로 굳이 부정할 필요가 없다. 본문의 열방의 선지자라는 말은 별명도 고유명사도 아니다. 열방을 위한 선지자라는 뜻일 뿐이다.

6.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운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며 해결책은 무엇인가? (모세와 이사야의 경우와 비교하면?)

말을 잘 못하는 것: 해답은 하나님의 말을 예레미야의 입에 두는 것이었다(9).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이다. 설교라는 것이 무슨 재주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주목적이어야 한다. 예레미야가 말을 잘 못하는 것은 '기술'이나 '내용'의 문제인 반면에 모세의 경우에는 하드웨어 즉 '말성기관'의 문제였던 모양이다. 그래서 대언자 아론을 보내주셨다. 이사야는 죄의 문제였고!

7.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으니(8, 19) 예레미야는 이후에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가?

여기서 '구원하겠다'는 것은 천국에 가게 한다거나 고난이나 죽음에서 구해내서 행복하게 살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함께 하시며 제대로 일을 하게 하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픈 노래를 부르며 애절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다 감당했다.

8. 예레미야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며 구원하실 것이므로(8) 그러면 아무런 고난도 없는 걸까? 사실은 엄청난 고난을 겪는데... 유다의 선지자라 해도 걱정이 많을 터인데 열방의 선지자? 어떻게 당시의 거대한 나라들에 말씀을 전한다는 말인가? 두려워할 이유는 충분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에 두었으므로(9) 선지자는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된다. 오늘날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기 위한 노력이 앞서야 하는 것 아닐까? 그냥 열심히 밀고 나가?

9. 10절 동사(뿔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는 것)의 목적어는?

열국: 앞의 네 개는 파괴, 뒤의 두 개는 건설적인 단어다. 초기에는 심판을 주로 외치고 후기에는 회복을 말씀하는 그의 메시지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말이다.

10. '당연하지'라는 말 대신 '당근이지'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질문에 대답 대신 말없이 당근을 보여주어도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다. 하나님께서는 당근 대신에 무엇을, 왜 보여주셨는가?

살구나무(dqvu) =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킨다(dqvu)는 뜻이다: 살구나무란 말이 '지킨다'는 말과 자음이 같고 모음이 비슷하다. 일종의 word play다. 마치 '당연하지' 대신에 '당근이지'가 쓰인 것처럼 '살구지' 하면

받드시 지키지'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접시꽃 당신이 아니라 살구꽃 당신이다. 살구라기보다는 아몬드, 밤, 호두와 같은 견과류이다.

11.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 환상의 의미는? 그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북방 모든 민족이 유다의 성읍들을 칠 것: 실제로는 동북쪽이나 서북쪽일지라도 쳐내려오는 통로는 항상 북쪽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16) 이민족의 침입과 점령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예언하는 것이 백성들이 듣기에는 매국노나 마찬가지다. 실제로 점령을 당하고 주권을 빼앗겨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여겼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백성들이 그냥 두었을까?

12. 아무리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방의 적들을 불러들이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참고 참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신명기(28:15-68), 레위기(26장)에서부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거듭거듭 경고한 이래 수많은 선지자들이 경고를 거듭했고 작은 징계를 수도 없이 가했음에도(특히 사사기) 끝내는 이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다윗에게 '위가 영원하리라'고 하신 약속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모른다.

13. 예레미야가 심판을 선포해야 할 때 만약 그들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두려움을 당하게 한다(17): 네가 그들을 두려워하면 진짜 두렵게 만들어 버린다.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면 오히려 용기를 줘야 할 텐데...? 겁을 내니까 무서운 법이다. 겁을 내지 않으면 무섭지 않다.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이 싸움을 시작하면 이기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다. 싸움을 시작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패하고 말았다.

14. 열방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었지만 예레미야가 주로 상대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유다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18) 주로 지도층들을 상대해야 했으니 그만큼 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15.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하리라?

나중에 예레미야가 옥에 갇히고 온갖 고생을 다 하는데? 그를 치던 자들이 먼저 당하고 조소하던 자들이 더 큰 조소를 당하게 된다. 진정한 구원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이다.

예레미야 2 장

1. 하나님께서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는, 때 묻기 전의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인가?

어릴 적 친구의 우정, 신혼부부의 사랑, 출애굽 때의 순종: 그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물이었으므로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다. 반면에 이제는 먼저 보는 눈이 임자다? 출애굽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어릴 때 출애굽 이전의 정치적 미숙기, 결혼 때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다짐하던 때로 보면 좋겠다. 하나님께도 아름다운 추억이다! 집을 나간 아내를 위해서 과거 아름다웠던 날을 기억하신다는 말이다.

2.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귀한 존재이던 때에 건드리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 맞아 죽지!: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던 많은 나라들이 사라져 갔지만 여태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건재하지 않았느냐?

3.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성물이요, 소산의 첫 열매(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어쨌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것이니 아무도 손댈 수 없다! 과거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 불행이다.

4. 야곱 집은 무엇이며 이스라엘 집은 무엇인가? 같은 사람인데?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다. 적어도 80년이 넘은 옛 일이었으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유다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5. 공부는 않고 사고만 저지르는 자식에게 아버지가 '내가 안 해준 게 뭐냐? 무슨 불만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러면 해준 게 뭐냐?'고 덤비는 아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든다. 일일이 따진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실까?

6절: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광야 곧 사막과 구멍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과케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다는 말이다. 이스라엘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 출애굽과 광야에서 들본 것과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인 것이다. 우리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하기 전에!

6.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는데 저희가 그리로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으니(7) 도대체 누구의 잘못인가? 혹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잘못된 걸까?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문제인 것은 틀림없으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을 너무 고상한 방법으로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의 잘못(?)이다. 애초에 인간을 그렇게 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사랑하신 데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런 아픈 상처를 견디어내시고 온전한 사랑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 날을 기다리며 인내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스러움을!

7. 제사장, 법관들, 관리들,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버리는 이런 일(8)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은 거의 없다.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노라면서 다른 우상을 동시에 섬겼다.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을 섬기다면서 우상을 섬겼다(출 32:4)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도 하나님을 섬기는 줄로 알고 우상을 섬긴다. 그것이 매양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같은 것으로 알고... 어느 무당이 목사님께 '업이 같은데 서로 도와야지요'라고 했다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다는 말이다.

8. 아무리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와 저희 후손들과 다투시겠다니?

싸우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심판하겠다는 말씀이시다. 다투다는 말은 법정용어라고 한다. 언약을 어긴 것을 엄격하게 따지겠다는 표현이다. 마치 국가간의 조약을 파기하는 봉신들을 군주가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처럼.

9. 이스라엘이 저지른 짓은 다른 어느 나라 백성들도 하지 않는 나쁜 짓이다(10-11). 아니, 더욱 나쁜 짓이다. 왜?

가짜 신(우상)을 섬기는 백성들도 자기들의 신을 함부로 바꾸지 않는다. 그런데 유일하고도 전능하신 신을 섬기는 너희가 어떻게 나를 신도 아닌 것과 바꿀 수 있느냐?

10. 다음 표현에 어울리는 표현을 본문에서 찾는다면? 1) 아이들 장난감에 가짜 지폐가 있는데 이것을 같은 금액의 지폐를 주고 바꾸어 왔다. 2) 값비싼 골동품을 옹으로 바꿔 먹는 일이 가끔 있었는데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스라엘은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한 짓을 저질렀다.

11절: 1) 하나님(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꾸었다. 2)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지침은 키프로스(구브로 섬 혹은 70인 역에서는 로마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함, 단 11:30) 계탈은? 아라비아 유목민족! 천하 사방에 두루 다니며 이런 일이 있는지 살펴보라는 말이다. 그런데 왜 하늘 보고 놀라라고 하는가?(12) '저 자식들은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야단을 쳐줘야 헛일이다. 아는 네(하늘)가 놀라라?'

11. 물이 귀한 곳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른다는 것은 비극이다. 생수의 근원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바로 그 샘을 메운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다음엔 어떻게 하나?

다시 샘을 파서 흐르게 하지 않고 웅덩이를 팠다. 그런데 그것이 새는 웅덩이다. 끊임없이 흐르던 샘을 버리고는 터진 웅덩이를 파서 물을 모으려는 어리석음! 아니, 그렇게 어리석은 짓인 줄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모르는 것이 화근이다. 무식한 사람과는 못 산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식이 가장 무서운 무식이다. 터진 웅덩이, 물 없는 우물은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나 마찬가지다. 돈과 명예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고액연봉에 높은 지위를 얻었지만 가정을 잃는 경우가 적지 않다.

12. 이스라엘 사람은 종으로 팔려도 영원히 종으로 둘 수 없다. 때가 되면 먹고 살만큼 헝거서 내보내야 한다. (신 15:12-18, 이방인이나 본인이 원하면 영원한 종으로 둘 수는 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해내어 자유를 주셨는데 왜 또 사람의 종이 되느냐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이스라엘은 무슨 짓을 했는가?

하나님을 버리고 가더니 씨종노릇하고 있다(14). 내가 너희를 구해내서 자유를 주었는데 나를 버리고 가더니 어디 가서 종노릇하고 있느냐?

13. 하나님께서 길로 인도하시는데 옆으로 새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어린 사자에게 당하고 늑과 다바네스(애굽의 도시)의 자손에게도 당하였다(15-16): 어린 사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앗수르로 보면 되고 애굽의 도시들에게 당한 것은 요시야가 바로 느고에게 죽임을 당한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왕하 23:29-30). 왜 이런 수모를 자취하느냐?

14.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서는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는가?

시홀의 물(애굽), 하수물(앗수르)을 찾다가 야단을 맞는다(18): 아직도 생수가 왜 끊어졌는지 모른다.

15. 아무리 웅덩이에 물을 모아도 고이지 않으니, 앗수르나 애굽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한다. 이 놈에게 끌리고 저 놈에게 당하고... 왜 이런 고통이 생기는가?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속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 때문에 이런 고통이 임하였다.

16. 멍에와 결박은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다. 당연히 끊어야 하는 것이다. 그걸 왜 야단치시나?

사실은 멍에와 결박이 아니라 복을 주고 생명을 제대로 누리게 해주는 율법이었던(신 4:40, 5:16, 6:2-3, 11:9, 12:25, 28, 22:7, 잠 3:1-10, 10:27) 그들이 그것을 멍에와 결박이라고 여긴 것이다. 그렇게 끊어버리고 한 짓이 행음이었다. 그것을 벗어던졌더라도 잘 살기나 했으면... 결과적으로 그들이 끊어버린 멍에와 결박은 행음을 막는 장치였다는 말이다.

[설교] 렘 2:20-멍에와 결박을 벗고: 멍에가 아니라 보약이고, 결박이 아니라 안전장치였는데...

17.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에 비기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으로 고약한 사람들이다. 왜?

콩 심은 데 팔이 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스라엘이 그랬다. 순전한 참 종자(국산 최고급품)를 심었는데 어떻게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외제 싸구려)가 날 수 있는가? 잿물도, 수다한 비누도 이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은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말이다.

18.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고 하시던데? 어떻게 잿물도, 수다한 비누도 이 죄를 씻을 수 없다고 하시는가?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죄가 많다는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다. 감히 부정할 수도 없을 만큼 흔적이, 증거가 너무나 많다(23-25)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보라(23c). 감히 네 행위를 부정할 수 있겠느냐(23a)' 이것은 일종의 현상 검증이다. 잘못이 한두 가지라야 발뺌이라도 해보지!

19.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에 바빴던 이스라엘을 어디에 비유하는가?

발정기의 암나귀: 발이 빠른 젊은 암약대나 광야에 익숙한 발정기의 들 암나귀는 어떻게 달릴까? 똑바로 달릴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숨을 헐떡이며 미친 놈 같이 이리저리 뛰는가?

20. 본문을 근거로 다음 속담과 뜻이 같은 말을 만들어 보자. 누워서 떡 먹기, 식은 죽 먹기, 손 안 대고 코 풀기...

(수컷이)발정기의 암컷 찾기: 그것을(암컷) 찾는 자들(수컷)이 수고치 아니하고 그것의 탈(발정기)에 만나리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야말로 저절로 되는 일 아닌가?

21. 수컷을 찾아서 길길이 날뛰는 암나귀와 같은 딸을 향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딸의 대답은?

아버지의 충고: '애 그러다가 신발 다 떨어지겠다'(=벗은 발이 되게 마라) '그러다가 탈수증 걸리겠다'(=목을 갈하게 하지 말라).

딸의 대답: 그래도 좋은 걸 어떡해요? 점잖은 아버지의 충고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태도를 책망하는 말씀이다.

22. 이스라엘의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언제 수치를 당하였는가(26)?

앞으로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경고다: 히브리어는 확실한 미래를 과거형으로 표현한다(영어의 가정법 과거가 현재 사실과 반대인 경우에 쓰는 것과 비교해 보라). 아닌 게 아니라 얼마가지 않아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3차례에 걸쳐 포로로 잡혀가고 만다. 특히, 왕과 귀족들, 기술자들을 중심으로!

23. 결혼식장에서 신부나 신부의 부모들이 가끔 우는 수가 있다. 왜 울까? 본문의 어떤 경우와 닮았을까?

여태까지 '뎀이야 옥이야' 키웠는데 다른 사람을 아버지 어머니라 부르고 다른 집에서 산다는 것이 몹시 슬플 수 있겠다. 그래도 결혼으로 인한 헤어짐이야 예상된 일이고 당연히 그래야 하는 일이지만 이스라엘이 하는 짓은 기가 막히는 일이다. 낳은 아버지를 뒤에 두고도 나무나 풀을 보고 아비라고 부르다니! 그러다가 사정이 어려워지자 돌아서서 '아버지' 하면 도와주겠냐?

24.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들 때는 분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행동을 고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런 매를 맞은 이스라엘의 태도는?

징계를 받기는커녕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오히려 죽였다(30). 매를 든 아버지에게 반발해서 동생을 두드려

편 자식이나 마찬가지로. 르밧세가 그랬고(왕하 21:16, 유대 전설에 따르면 르밧세가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었다고 함) 여호야김이 그랬다(26:20-23).

25. '내가 돈을 안 벌어서 주었나? 그렇다고 외도를 했나?' 부부싸움에 가끔 나오는 말이다. '사람이 밥만 먹고 사나?' 이러면서 싸운다. 둘 다 맞는 말일 가능성이 더 큰데 서로의 관심사가 달라서 그런 셈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야단을 치시는가? 이스라엘의 대답은?

야단: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31) 내가 밥을 주지 않았느냐? 옷을 주지 않았느냐? 무엇을 주지 않았느냐?는 말이다. 출애굽 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과 구름기둥과 불기둥,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다.

대답: 우리는 놓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않겠다. '우리가 자유인 아니냐? 우리 스스로 섬길 자를 결정할 권한이 없느냐?'는 말이다. 그 자유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셔서 주신 자유이다.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인간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선물이데 그것을 악용하는 셈이다. 마치 노예를 사랑한 주인이 자유를 주었더니 주인을 버리고 떠난 격이다.

26. 처녀가 풍물을, 신부가 그 고운 옷을 잊을 수 없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을 수는 없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수많은 기념일과 기념 의식 (할례, 옷단에 말씀을 새기는 일, 수많은 제사...)을 지키도록 했음에도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날 수를 계수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랫동안! 하나님의 탄식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랑을 원하려고 치장함(33)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간부의 사랑 말이다.

27. 하라는 짓은 하지 않고 못된 짓만 골라가며 하는 이스라엘이 더욱 가관인 것은?

자기만 그러지 않고 남에게 가르친다(336) 교도소에서 더욱 교묘한 수법을 배워서 나오는 자들처럼. 남을 가르친다는 것은 아는 정도를 훨씬 능가하는 고수이다.

28. 이스라엘이 죽인 자는 '죄 없는 가난한 자'였다. 그들이 담에 구멍을 뚫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참고 출 22:2-3)

도적이 담을 뚫고 들어움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지만 너희가 죽인 자들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34절의 '이 모든 일'이란 '이런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라는 뜻이다.

29.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무죄하다(35)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다 범과하였다(29)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다의 죄가 무엇인가? 그런데 왜 유다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는가?

선지자를 삼켰고(30), 하나님을 잊었고(32),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였고(34) 선지자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고 거저 선지자나 무당처럼 여겨서 죽였을 수도 있다 (마치 중세의 이단자 재판처럼). 다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였기에 하나님을 결코 잊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음에도, 가난한 자가 굶어 죽는 것도 자기 운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가 되면 자신들이 얼마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집사들이 교회의 장래를 걱정하고 있는데 천하태평인 목사도 적지 않다.

30. 유다가 형통치 못하여 앗수르와 애굽으로 인해 수치를 당하면 두 손으로 머리를 싸고 나갈 것이다. 이 모습을 무엇을 의미하는가(참고, 삼 13:19)?

달걀이 이복형제 암몬에게 강간을 당하고 쫓겨나는 모습처럼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 답답하기 그지없는 하나님의 꾸밈 같은 말씀들

- 어릴 때는 아름다웠는데(2-3)
- 내게 무슨 불의가 있길래 나를 찾지 않는가?(5-8) 내가 도대체 안 해준 게 뭐냐?
- 다른 나라에도 너희 같은 놈들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라(10-11). 도대체 어느 나라 백성들이 이런 짓을 하느냐?
- 나를 가짜 신과 바꾸다니...
-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웅덩이를 파다니! 그것도 터진 웅덩이를?
- 나를 버리고 가더니 겨우 종노릇하느냐?(14) 어린 사자, 농과 다바네스의 자손에게도 당하고? 이런 수모를 자취하느냐?
- 발정기에 성욕으로 혈떡거리는 짐승같이 행음하는구나
- 환난이 닥치거든 내가 섬기던 신들에게 구원을 요청해 봐라. 나는 모르겠다.
- 그런데도 무슨 할 말이 있느냐?
- 내가 못해준 게 뭐냐? (내가 너희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느냐?)
- 어떻게 나를 잊을 수가 있느냐? 처녀가 패물을? 신부가 그 고운 옷을?
- 그래 놓고도 죄 지은 게 없다?
- 앗수르? 애굽? 잘 해봐라
-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더니 기껏 시홀의 물(애굽) 하수물(앗수르)을 찾느냐?
- 멩에를 펴고 결박을 끊고서 겨우 행음이나? (자유라는 게 겨우 그거냐? 수술로 시력을 회복한 소경이 '다시 소경으로 돌아가겠다'는 심경!)
-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악한 가지가 나다니? 콩 심었는데 팥이 나다니?

- 비누를 아무리 많이 써봐라 씻어지는가!
- 네 자녀들도 마찬가지다.

예레미야 3 장

1. 특정한 단어가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다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장에서 거듭거듭 사용되는 특징적인 단어는 무엇이며 몇 번이나 사용되었는가?

돌아오다는 표현이 7번 (1, 7(2번), 10, 12, 14, 22) 본 장이 집을 나가버린 아내와 같은 유다를 향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촉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2. 부인이 남편에게 버림받고 떠나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후에도 남편이 부인을 다시 받아들이라는 말인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면 땅이 크게 더러워지니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법에도 그럴 수 없다(신 24:1-4)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뒤집어 가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다. 사람은 그럴 수 없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다. 집을 나가 행음한 아내와 같은 유다를 다시 맞아들이겠다는 것이다(호 4장).

3. 2:1-3절과 3:1-5절을 참고로 하여 유다의 변화를 한 소녀의 성장으로 설명해 보자.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나서 우정이 애정으로 변하고 마침내 결혼으로 이어졌다. 그랬는데 남편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가버렸다. 그래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남편의 마음은 어떠한가? 잘 모르겠다.

4.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리는 것도 잘못된가?

창녀라는 뜻이다

5.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이들의 생업이 무엇이었을까?

약탈: 숨어서 약탈의 대상을 기다리듯, 이스라엘이 음행할 대상을 노렸나? 아라비아의 로렌스(영화)에서 이런 장면들이 더러 보인다.

6.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유다의 모습을 집 나간 아내에 비유하고 있다(1절). 우상에 대한 열심을 또 어디에 비유하고 있는가(2-3절에서 2가지)?

약탈자(행악)와 창녀(음란) 우상을 숭배하면서 신하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상은 사람을 결코 신하게 만들지 않는다. 음란을 즐기는 사람이 악을 행하게 되는 것도 당연하다.

7. 이스라엘의 행음과 단비와 늦은 비가 그친 것이 무슨 상관인가?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시후(時候:사시와 절후(절기))에 맞게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레 26:4) 그렇다면 그런 방식으로 얼마든지 징계하실 수 있다. 기상 이변이 속출하고 예전에 보지 못하던 재해가 닥치는 것도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경고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8. 창녀의 낫이 어떠한가?

부끄러움을 모른다.

9. 유다가 특별히 악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두 가지 지적한다면(3-5절에서)?

징계를 받아도 창녀처럼 수치를 모르는 것과 하나님께서 노를 한없이 계속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껏 악한 짓을 했다는 점이다. '소시의 애호자'는 '어릴 적 친구'라는 의미이다(참고 2:2) 설마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무시하였을까? 이것도 비유라고 본다면 복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이 있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으로 착각한 탓일 것이다. 하나님의 진이 있고 거기에 서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이 있겠느냐는 착각 말이다.

10. 요시야 왕 때라면 예레미야 사역의 초기인데? 요시야의 종교개혁으로 유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인데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전혀 그렇지 않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4-5절을 근거로 생각해 보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겼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은 자신을 완전히 버렸다고 말씀하신다.

11. 이스라엘은 왜 높은 산과 푸른 나무 아래서(6) 행음하나? 유다는 어떻게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하나(9)?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섬긴 것을 행음에 비유한 것이다.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 속에 실제로 음행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그런 짓을 하기에는 푸른 나무 아래가 적격이었던 모양이다. 요즈음 말로는 '러브 호텔'인 셈이다. 이스라엘이 그런 짓을 하다가 망하는 것을 보고도 유다가 같은 짓을 하다니!

12. 유다가 본 것(7절)은 무엇이며 보고 한 짓은 무엇인가?

유다가 본 것: 이스라엘이 높은 산과 푸른 나무 아래서 행음하는 것(6) 그러다가 멸망당한 것.

유다가 보고 한 짓: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하는 것(9) 이스라엘이 그런 짓을 하다가 망하는 것을 보고도 유다가 같은 짓을 하다니!

13. 간음을 행한 이스라엘에게 이혼서를 주었다는 것(8)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이스라엘이 멸망하도록 버려두었다는 뜻이다(왕하 17장) 이혼서를 써주었다는 말은 완전히 갈라섰다는 말이다. 유다는 그것을 보면서도 같은 짓을 하다니...!

14.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망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 설마 그렇게까지 어리석을까? 유다가 반성하고 돌이켰다는 증거를 10절에서 찾아보라.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은 돌아오고 돌아왔다는 말이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 유다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짓으로 돌아왔다는 점이다. 회개하는 시늉만 낸 셈이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은 전혀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신다. 아마도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형식적인 선에서 머물렀던 모양이다. 종교 행사는 많으나 진심이 빠져

버린 열심!

15. 12절의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는 말씀은 5절의 '노를 한 없이 계속하시겠으며...?'라는 말과 어떻게 다른가?

전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뜻이고 후자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 걱정할 필요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는 악한 짓이다. 야단을 쳐봐야 얼마나 치시겠냐?

16.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만 섬기다가 130여년 전에 망해버렸음에도 배역(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할)한 이스라엘이라 하고, 망하지 않고 남겨두셨다는 자기 백성 유다를 향해서는 패역(도리에 어긋나고 불순함)한 유다라고 하신다(7-8, 10-11). 왜 이스라엘이 더 의롭다고 하시는가(11)?

그렇게 징계 받는 모습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는 유다에게 더 죄가 많다는 뜻이다. 징계를 받아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17. 망하고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고(12-13절)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유다의 죄악이 너무 심하니깐 이스라엘을 심판한 것을 후회하는 걸까?

유다 보고 들으라는 말이다. 산 자식을 옆에 두고 죽은 자식을 향해서 하는 말은 산 자식더러 들고 반성하라는 말이다. 곧 이어 유다를 향해서 하는 말(14-18)과 다르지 않다. 쫓아낼 때는 쫓아내더라도 분을 오래 품고 있지 않다. 유다를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을 이스라엘에게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이다.

18.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어떻게 배역한 자식에게 남편이 될 수 있나? 손수가 엉망인데? 자식이라 했다가 아내라 했다가?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다. 징계를 받아 마땅한 짓을 하는 모습은 배역한 자식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런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남편이 아내에게 쏟는 사랑과 같다는 뜻이다. 아니면 '자식'이 단순히 '사람'을 뜻하는 의미인가?

19.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는 책이 있었는데 제목을 예레미야서에서 따왔단다. (한글 개역성경의) 예레미야서에 아무리 찾아도 그런 말이 없다. 알고 보니 다른 번역본에 그런 말이 있다. 본 장의 어느 구절일까?

3:14,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남편의 원어는 '바알'(=본뜻은 '주')이다. 나는 너희의 '바알'이니라는 말씀은 그들이 섬기던 우상 '바알'을 옆두에 둔 언어유희이다.

20. 죄를 자복하라, 돌아오라(13)고 부르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셨다(14-18절). 다른 시대를 배경으로 말씀하신다. 달라진 그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를 보내서 제대로 양육하겠다: 그러면 백성이 다시 번성할 것이고 언약궤도 없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여호와와 보좌가 될 것이라고 하신다. 단순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이사야의 예언(사 52:1-2)을 참고하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다. 메시아 왕국을 그리고 있는 셈이다.

21. 다시 번성할 때는 왜 언약궤에 대해서 말하지도 생각지도 찾지도 않을까?

언약궤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메시아 왕국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예배도 언약궤를 통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드린다.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셈이다.

22.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더니? 언제 갈라졌다가 언제 다시 합친다는 말인가?

갈라지기는 솔로몬 사후에 갈라졌다(BC 930). 요시야 때를(즉위 BC 640) 기준하면 약 300년 전이다. 역사적으로 언제 다시 합쳐졌는가?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인이라는 혼혈족만 남기고 사라졌다. 포로로 잡혀간 일부가 포로 귀환 때 함께 돌아왔을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훗날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사라지고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23.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때는 아내가 남편을 속이듯이 떠나갔다. 그런 짓을 한 이스라엘의 결과는?

자산(민동산) 위에서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 뿐(21):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누구에게 애곡하며 간구하겠는가? 우상을 섬기는 자의 말로는 이럴 수밖에 없다.

24. '배역한 자식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래야 정상일 텐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22)?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고치리라: 스스로 고칠 능력이 없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할 때만 해도 가능성이 있는 상태일 텐데 '돌아오면 고쳐주리라'는 것은 스스로 풀이킬 능력조차 잃어버린, 해도 해도 너무한 상태이다.

[22절 하반절부터는 4장에 붙이는 것이 옳겠다]

자산(赭山): 민동산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교적인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쓰였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상징하는 산은 삼림이 울창한 산이다(사 41:18, 49:9).

아라바: 지금의 아라비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요단강을 따라서 아카바 만에 이르는 저지대를 총칭하는 이름이다(수 11:2).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해를 아라바 바다라고 부른다(신 3:17)

예레미야 4 장

[3:226-25]

1.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의 떠드는 무리는 누구와 대조를 이루는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대조를 이루고 다음 절의 ‘부끄러운 그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우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2.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우상을 따르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부끄러움을 당한다(25절, 수치 중에 높고, 수욕에 덮이울 것)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상에게 재물과 자녀까지 다 빼앗겼기 때문이다(24절).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사이비에 빠져 재산과 가족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당하는 수치가 바로 그것이다.

예레미야 4장

1. 앞 장의 끝에 있는 기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돌아온 것 같은데?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아 니고 어디로 돌아갔다는 말인가?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다른 시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도 그 중의 한 방법이었 던 모양이다. 말하자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또 다른 방법도 시도한 모양이 다. 아직도 버리지 않은 가증한 것이 있고, 마음이 요동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34절의 내용을 보아서 도 그렇다.
2.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2)?
열방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을 보고(여기서는 그런 말씀이 생략되었다. 너무나 당연해서 그런가?) 열방이 하나님께 복을 빌 것이고 그래서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자랑하 게 마련이다. 그러면 복의 근원이 되리라던 아브람에게 주신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셈이다.
3. 묵은 땅이나 가시덤불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우상숭배, 고정관념, 패배의식, 자기비 하, 물질만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데 장애가 되는 묵은 땅이나 가시덤불이다.
4. 마음 가죽을 베라는 것은 무엇을 비판하는 셈인가?
육체에 할례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형식적인 신앙: 마음(신앙의 좌소, 지, 정, 의를 다함)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은 상태에서 할례라는 의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이다(롬 2:28-29). 제대로 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5.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로 ‘유다’라는 표현이 계속 쓰였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했 다. 이 말이 에스라서에 많이 나오지만 역사적인 순서로 보면 예레미야가 먼저다. 혹시 유다와 유대인이라는 두 표현 사이에 차이점이 있을까?
북이스라엘 사람을 포함한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 나라를 가리키는 말로 쓰일 때는 이스라엘의 두 나라 중에 서 남쪽 나라를 유다라고 한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일부가 유다에 편입되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다. 이들을 통칭해서 부를 때 유대인(그러니까 이스라엘 출신도 포함해서 유다 백성들이 라고 부른 것 같다. 신약에서는 유대인이라고 부른다.
6. 원래 나팔을 부는 것은 출전이나 공격을 알리는 신호다. 여기서는(5절)?
 요즈음의 공습경보나 마찬가지로. 급히 대피하라는 경고이다. 6절의 기호를 세우는 것도 동일하게 위험을 알리 는 신호이다. 아마도 봉화와 같은 신호였을 것이다.
7.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직도 희망이 있다. 더욱 상황이 나빠지면?
29절: 성에서 나와서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른다.
8. 열방을 멸하는 자를 수풀에서 나온 사자에 비유하는 것은 어떤 점을 강조하는 의도인가?
 사냥을 완료하기 전에는 수풀로 들어가지 않는다. 배부른 사자는 사냥을 하지 않는다. 사냥을 하려고 수풀에서 나온 사자는 하다못해 토끼 한 마리라도 잡아야 풀야간다. 사자에게 찢기는 처참함도 당연히 포함되었겠지만.
9. 왕과 방백들이 실심하는데 제사장과 선지자는 왜 놀랄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던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면서 놀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렇게 행하신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한다. 성경이 그런 표현을 쓰지 않지만 그들은 가짜 제사장이요 거짓 선지자였기 때문이다. 진짜 선지자는 이런 사실을 미 리 알고 슬프고 아프다(19)!
10. 아무리 선지자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도 되나? ‘여호와께서... 속이셨나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괜찮다는 것은 하나님과 선지자(예레미야)의 교제가 얼마나 밀접한 것이었나를 보여준다. 아 무나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아픔과 하나님의 주권에 기꺼이 순종하는 선지 자이기에 할 수 있는 말이다. ‘예루살렘에 평강이 있으리라’고 한 것은 어쩌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을 것 이다. 그들이 그렇게 외쳐도 말리지 않으시더니 결국은 이렇게 징계를 하고야 맙니까?
11. 본문을 근거로 바람을 두 종류로 분류한다면?
파멸의 바람과 추수용 바람: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은 농작물을 시들게 만들어 버린다. 반면에 추수 시절에 부는 산들바람은 알곡을 추려내는데 아주 유용한 바람이다.

12. 대적이 뜨거운 바람같이, 구름같이, 회리바람같이, 독수리같이(11-13) 쳐들어오는 목적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기 위함이다(16). 표면상으로는 바벨론의 정복욕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이면적,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유다의 마음의 악한 생각(14) 하나님을 거역함(17) 유다의 길과 행사(18) 무서운 징계는 결국은 나(하나님)를 위하여(12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미리 알고 돌이키면 되는데... 선지자의 아픔이 여기에 있다. 외쳐도 들지 않는 안타까움!

13.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끔찍한 소식을 전하란다. 단에서 선포하고, 예브라임 산에서 공포하고, 예루살렘에 알게 하란다! 이 세 지명의 위치가 어떤 관계인지 확인해 보자.

단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이고, 예브라임은 예루살렘과 가장 가까운 곳이다. 마치 먼 곳에서 적군이 순식간에 쳐들어오는 과정과 비슷하다. 16절의 표현을 참고한다면 '먼 땅에서 유다로'라는 것과 비슷하지만 공포감은 더 크다.

14. 먼 땅에서 유다까지 와서 소리는 왜 지르나?

항복해라, 항복하면 목숨은 살려준다. 이런 소리지 머!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소리 소리 지른 장면을 생각하면 되겠다(사 36장)

15. 농부가 밭에서 자신이 수확한 농작물을 지키는 눈빛이 어떨까? 대적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모습이 그와 같단다. 공통점이 무엇이길래 이런 표현을 썼을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16. '슬프고 아프다'의 난외주는 '내 창자여 내 창자여'이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아이들 식으로 표현하면 '아이고, 배야'이다. 선지자가 극심한 고통에 떠는 이유가 무엇인가?

온 땅이 탈취를 당하는 장면을 세세하게 보았기 때문이다. 아니, 어쩌면 이 재앙을 멈출 방도가 없기 때문일지도 모른다(22) 선지자는 끔찍한 징계를 미리 내다보면서 이렇게 아파야 하는가? 백성들이 당할 아픔을 미리 느끼면서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는 아픔 말이다. 선지자, 지도자의 모습이 이런 것 아닐까?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도 전혀 아파하지 않는 선지자도 있는 모양이다.

17. 슬프고 아프고 답답한 선지자가 '언제까지 이런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답변을 간단히 말하면?

내가 더 답답하다(22):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 지각이 없는 자, 악에는 지혜롭고 선에는 무지하다(22절)

18. 하나님께서 심판받은 후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바라보니 무엇과 비슷한가?

창조 이전의 모습(23-25):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모조리 헛일이 되어버린 것과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것이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몇 시간 동안 작업한 것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을 때의 허탈함, 어떤 학자가 평생 동안 연구한 자료를 하녀가 불쏘시개로 태워버렸다면가?

19.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을 짓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가 아는 한 이 땅은 그렇지 않다.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해매던 자들의 눈에만 그렇게 보인 걸까? 그러면 두 정탐꾼이 포도송이 하나를 메고 온 것은? 23-28절에서 혹시 무슨 단서가 있을까?

우리가 보는 땅은 황폐해진 이후의 것일 수도 있다(26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버림을 당하고 난 이후의 땅이다. 고대에 그 땅이 지금과 어떻게 달랐는지는 모른다(고대 기상학을 연구하는 분들 중에는 분명히 달랐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 성경은 그 땅이 정말로 좋은 땅(겔 20:6) 짓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며 동시에 황폐될 것이라고도 말한다.

20.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을 가리킬 때 흔히 쓰는 말이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이다. 성경의 표현으로는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구스인의 피부 색깔을 바꾸는 것', '포범의 반점이 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렘 13:23). 본문에도 비슷한 것이 하나 있는데?

산이 진동하거나 요동하는 것(24) 히브리인들에게 산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이 무너져도 변함없이 서 있을 존재로 여겨졌다. 예수님께서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뿔 것이요'(마 21:21)라는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 발언이었을까? 큰 산이 진동하고 작은 산이 요동한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

21. 선지자들의 메시지에서 심판이나 하나님의 진노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인 메시지는 아니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땅이 황폐할 것이나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며: 노아의 때, 소돔 고모라의 때, 엘리야의 시대, 이사야의 때, 징계 때마다 그랬다. 하나님의 목표는 멸하여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자기 백성을 결국은 구원하는 것이다. 어떤 선지자의 메시지에든 이것은 빠지지 않는다.

22.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는 어느 정도로 확고한가?

말하였고,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않을 것이며, 돌이키지 않으리라(28) 삼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전 4:12) 고 했는데 이것은 사급 줄이다.

23. 한때는 연인이었지만 지금은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연인을 생각하면서 붉은 옷을 입고 단장하고 눈을 그리는 것은 헛된 일이다. 이것은 무엇을 비유하는 걸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국의 도움을 바라는 것: 이렇게 단장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창녀의 행위를 뜻한다. 그렇다면 연인은 창녀를 찾는 손님일 뿐이다. 그 손님이 '너를 멸시하고 내 생명을 찾는 일'은 전혀 이상할

것도 없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바벨론의 침입을 당한 유다가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임을 뜻한다.

24. 해산의 고통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축복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여기서 그런 복의 의미는 빼고 고통소리와 고통스런 모습만 빌려왔다. 새 생명의 탄생은 없고 고통만 엄습하는 이 모습은 무엇의 상징인가?

남편(하나님)을 거부하고 음란한 자들(우상, 이웃 나라)과 놀아났던 이스라엘의 허무한 결말: 초산은 고통이나 두려움이 더 크다. 이스라엘이 당할 고통이 그만큼 크기도 하겠지만 처음 겪는 아픔이기도 하다.

25. 위에서 언급한 유다가 겪게 될 엄청난 비극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마음 가죽을 베라, 목을 땅을 갈아엎으라(1-3): 사자의 밥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마치 창조 이전처럼 황무해지는 것, 창녀가 손님에게 맞아 죽는 것, 낱을 아이도 없는데 해산의 고통만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 유다가 당할 비극이다.

예레미야 5 장

1. 예루살렘이 징계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버린 탓이다. 허물이 많고 패역한 것도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이 징계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인가?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데(1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피할 수 있는 것인데 이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다니!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하기에 앞서 나 자신이 이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2. 예루살렘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무엇이길래 그럴까? 단순히 의인을 뜻하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란 뜻이다. 공의(히, 미쉬파트)와 진리(히, 에무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뿌리이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백성이다. 이것이 심판의 원인이다.

3. 소돔 고모라 때에는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예루살렘은 왜 이렇게 봐주시는가? 봐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왜 빨리 왕래하면서 찾으라고 하시나? 천천히 자세히 살펴야 제대로 찾지? 빨리'를 '부지런히', '열심히'라고 번역할 수 있다.

4.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

여호와와 사심으로 맹세하는 사람(2, 5절), 즉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야 많았지만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우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은 전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다.

5.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사람을 돌아보시는데도 도무지 그런 사람이 없다(3절) 하나님께서 치셨음에도 아픈 줄을 모르고 거의 다 망해가도 돌이키지 않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께서 치셨어도 엉뚱한 곳으로 돌려버린다. 자연 현상이겠거니, 팔자가 더러워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알지 못하는 탓이다.

6.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3-6절) 속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다른 점과 같은 점은 무엇인가?

무리들과 귀인들: 무리들은 일반 백성들이고 귀인들은 지도자일 것이다. 지도자들은 배워서 아는 사람들이니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물어 보았더니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하기는 똑같더라는 것이다.

7. 멩예를 찢고 결박을 끊어버리는 것은 황소가 하는 짓이다.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황소처럼 반란을 일으킨 셈이다. 멩예를 찢어버린 황소는 자유의 몸이 되었을까?

사자, 이리, 표범의 밥이나 되지 제마짓 게 별 수 있어? 바벨론에게 침략 당할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셈이다.

8. 범죄행위도 원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배가 고파서 저지르는 죄는 주로 도둑질이다. 향락이나 오락에 눈이 멀면 주로 강도질을 한다. 그러면 배부르면 저지르는 범죄는?

음행: 성적인 범죄는 단순한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신 범죄행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홍수 심판이 임한 것이나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9. 7절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을 두 가지 찾으라.

자녀를 주었더니 애비를 몰라보고(신이 아닌 것들에 맹세함) 배불리 먹었더니 하라는 공부는 않고 엉뚱한 짓(행음함)이나 했다.

10. 이스라엘은 살지고 두루 다니는 수말과 같다. '살지고 두루 다니는'이 무슨 뜻인가?

성욕에 이끌려 압정을 찾아다니는

11. 여호와와 것이 아니므로 마음대로 휘파하라고 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왜 가지만 찢으라고 하실까?

여호와와 것이 아니란 것은 역설적인 표현이기 때문이다.

12.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 심판이 아니고 징계라는 증거가 있다면?

10, 18절: 완전히 멸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19절: 이유를 물으면 대답해 주라(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13. 12-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거부인가(2 가지)?

선지자들의 자격과 메시지: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는 식으로 대했고, 재앙(외적의 침입)이 있을 것이라는 선포에 대해서도 '있지도 않은 하나님이 재앙은 무슨 재앙? 당하려면 자기들이나 당하지!' 하는 식이다. 여기서 바람이란 '아무 것도 없음'을 뜻한다.

14. 선지자의 말을 바람처럼 여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변은?

바람이 아니라 불이다: 그게 바람인가, 불인가 보라!

15.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역사적으로 신바벨론이다. 오랜 나라라고? 신바벨론은 나라를 세우고 100년도 되지 않아서 망해버리는데?

그러나 그 뿌리는 바벨탑 사건에까지 이어지는 오랜 나라이다.

16.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가(레 24:19, 마 16:27, 롬 2:6)? 자기 백성을 용서하실 때는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심판하실 때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심판의 방법마저 행한 것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은?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니 이 땅도 비워줘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

닌 곳에서 이방인들을 섬기게 되리라(19절).

하나님의 말씀을 바람이라고 하는 자들은 뜨거운 바람(불)로 태워버린다(13-14절). 포도주에 취해서 하나님을 버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방법은 독한 포도주는 먹이는 것이다(계 14장).

17. '눈이 있으면 무얼 하고 귀가 있으면 무얼 하나?' 도대체 뭘 보라는 말인가?

모래와 비(자연 현상) 파도가 아무리 흥흥해도 모래로 쌓아놓은 경계를 넘지 못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겠느냐? 때를 따라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있는 줄 모르겠느냐?

18. 곡식을 심고 기르고 추수하는 것도 아무 때나 하는 일이 아니라 정해진 때에 맞추어 하는 일이다. 만약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추수기에 비가 온다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어 제대로 추수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은 자연 현상인가, 하나님의 징계인가?

기온 이상이나 자연 재해일 수 있다. 혹시 우리 자신이 회개할 것이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는 있다(25). 모든 자연의 변동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이런 자연 재해도 인간의 욕심이나 무분별한 개발의 부작용인 경우가 적지 않다.

19. 새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치듯이 사람을 잡으려고 덫을 놓는다(26). 그러면 조롱에 가득한 새는 결국 무엇을 가리키는가?

속여서 빼앗은 재물: 그래서 창대하고 거부가 되었고, 살지고 윤택하다는 것이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벌하시지 않겠느냐?

20.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는 것과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왜 기괴하고 놀라운 일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거짓을 말할 수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백성을 가르치고 다스려야 한다. 그 외에 다른 것으로(자기 권력으로) 백성을 다스리다니? 백성들이 그것을 좋아하다니?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그 무엇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있지 않은지 주목해야 한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랑 이외의 다른 힘(교권, 금력, 인맥)을 가지면 위험한 것이다. 아니 기괴한 일이다!

예레미야 6 장

1.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면서 드고아(남쪽)나 벧학게렘(북동쪽)을 언급하는 것은 이들이 예루살렘과 가까운 성읍들이기 때문이다. 나팔소리는 위험을 알리는 경고였고 '기호'는 '봉화불'로 번역되기도 했다. 베냐민 자손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삿 1:21)?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 속하였기 때문에(삿 1:21) 그렇게 불렀지만 결국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다. 예레미야가 베냐민 지파라는 점도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다.

추가 설명: 수 18:16의 여부스는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 안쪽이고, 수 15:8의 예루살렘은 유다의 경계 바깥이다. 위치는 베냐민의 영토 내에 있는데 성읍과 싸우기는 유다가 싸워 이긴다(삿 1:8, 삼하 5:6-7) 그래서 그런지 일반적으로는 유다 지파의 성읍으로 분류됨. 명목상으로는 베냐민 지파의 땅, 실질적으로는 유다 지파의 땅이다.

2. 딸이 늦게 들어오면 잡도 자지 못하는 아버지가 있는데 아름답고 모한 딸을 멸하다니? 도대체 어떤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는가?

여기서는 도대체 딸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으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평소에 그런 분이 아닌데 오죽하면 그랬겠느냐? 자기 자식을 제 손으로 경찰에 고발하는 부모 마음이 어떨지 생각해 보자.

3. 예루살렘의 멸망과 목자들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목자는 적군에 대한 비유다: 짐승들이 풀을 뜯듯이 적군이 예루살렘을 뜯어 먹을 것이다.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장막을 치고 풀을 다 뜯어 먹을 때까지 오랫동안 머무를 것이다.

4. 예루살렘을 치는 적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4-5절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밤낮없이: 정오나 밤중에는 쉬어야 할 때이기도 하다. 그런 때에도 쉬지 않고 공격을 계속할 것이다.

5.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고 아예 도피하라(1절)고 하는 것은 외적의 침입이 기정사실이 되었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뜻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뜻을 풀이킬 가능성이 전혀 없을까?

있다. 8절의 훈계를 받으라는 말씀은 아직도 희망은 있다는 말이다.

6. 이스라엘의 멸망을 포도 따는 것에 비유하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갱게 주우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할 것을 의미한다. 왜 그런지 신 24:21절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자.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추수할 때 말갱게 따는 법은 없다. 얼마를 의도적으로 남겨두기도 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법을 뒤집어 가면서까지 심판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7. 9절의 '자주자주'는 '한 번 더'로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적의 침입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하시면서 '한 번 더 손을 놀리라'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인가?

그런 비극이 닥치기 전에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노력하라

8. 귀에도 할례를 행하나?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모양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실을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는 할례 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과 마찬가지로 비유다.

9. 이스라엘의 죄를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10, 16, 17, 19)과 외식적인 종교 행위(20).

10. 부모나 선생님의 진정 어린 충고를 잔소리로 여기는 자는 굴러들어온 복을 걷어차는 자나 다름없다. 여호와와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는 자는?

여호와와의 분노로 이스라엘이 대적에게 사로잡히듯이 사로잡히겠지(11-12)

11. 여호와와의 분노가 선지자에게 가득하다니? 자기가 분노를 대신 받았다는 말인가, 하나님처럼 분노했다는 말인가? 아무래도 후자 같은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데 선지자는 왜 분노하는가?

선지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온전하게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12. 선지자나 제사장이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가?

가중한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 선생님들이 조금 잘못하면 '선생님이 저를 수 있느냐?'고 한다. 하나님의 선지자나 제사장이 거짓말을 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라면 정말 종말이라고 봐야지.

13.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무슨 거짓말을 했을까?

평강하지 않는데 평강하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평강하다'고 외쳤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주원인일 것이다. 심각한 상처를 심상히(예사롭게) 보아 넘겼다. 의사가 '괜찮습니다'라고 했는데 얼마 뒤에 암이 있거나 대수롭잖다고 한 것이 어린 아이에게 심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와 비슷하다.

14.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면서 이제는 열방에게 들으라고 하신다? 이스라엘을 버리고 열방을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는 말인가?

열방으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겠다는 의미다.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징계가 확실하다는 의미일 뿐이다.

15.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시바에서 유향을 가져오고 원방에서 향품을 가져왔는데 받지 않으신 하나님이 잘못 아닌가?

그런 것 가져오지 말고 말이나 잘 들어라: 우상을 섬기듯이 제물이나 드리고 제사만 드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아니다. 마음으로 섬기지 않으면 아무리 귀한 제물도 소용없다.

16.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외적의 침입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에게 순종치 않던 자들이 이제는 어떤 자들에게 순종하게 되는가?

자비가 없는 자: 적군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이 표현이 가장 대표적인 것 같다. 그로 인한 고통은 해산의 고통과 같다.

17. 심판으로 인한 고통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는가(두 가지)?

해산의 고통과 독자를 잃음: 아들이 없이 죽은 경우에는 동생을 빌려서라도 형의 대를 잇게 하던 이스라엘에서 독자를 잃었다는 것은 최고의 끔찍함이다.

18. 본문에서 제련과 관계된 금속은 무엇인가?

납과 은: 납은 제련 과정에 필요한 것이고 은은 결과인데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놋, 철은 제련과 관계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완고함을 표현하는 말이다.

19. 본문 중의 다음 표현들은 무엇을 비유하는가?

목자들(열심이 특심한 침입자들), 아름답고 묘한 딸(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물을 솟구쳐 내는 샘(꿈임없이 악한 짓을 하는 이스라엘), 포도 따는 자(절저하게 파괴하는 침입자), 할례 받지 못한 귀(완고하게 버티는 이스라엘), 해산하는 여인(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놋과 철(완고한 이스라엘), 내어버린 은(버림받을 이스라엘)

예레미야 7 장

< 8:3까지 성전에서 꾸짖는 설교 >

1.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겠는가? 무슨 뜻으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며 행하는 모든 행위는 소용이 없다는 뜻: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형식과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분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따르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하는 일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이런 인격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이 형식적으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또 다른 우상 숭배일 뿐이다. 이런 말을 근거로 예레미야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무시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꼬투리를 잡는 짓일 뿐이다. 이 말이 성전예배를 무시하려는 의도는 결코 아니다. 예레미야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는 선지자이다(31:6, 33:11).

2.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는 것이 종교적인 의미인가 아니면 일상적인 삶을 가리키는가?

일상적인 삶의 방식을 말한다(이웃에게 공의를, 약한 자를 압제하지 않으며,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으며, 우상을 좇지 않는 것, 9절 참고): 좁게 본다면 일상적인 삶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 경외와 별개의 것이 아니므로 넓게 보면 종교적인 의미이기도 하다.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는데 일상적인 삶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는 것이 아니란 뜻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일상적인 삶은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다.

3. 우상을 섬기는 것도 무슨 좋은 것이 있기 때문일 텐데 어떻게 '다른 신들을 좇아 스스로 해하지 않으면'이라고 하는가?

실제로 다른 신들을 좇는 것은 스스로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이나 자식을 해하는 것이고 이차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결국 자해 행위일 뿐이다.

4. 영원 무궁히 주신 땅에 거하게 하리라(7)?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일단 '영원히 무궁히 주신 땅'이면 얘기가 끝난 것 아닌가? 한번 하신 말씀을 뒤집을 분이 아닌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하신 말씀을 결코 뒤집을 수 없는 분이 자신의 말을 뒤집어야 할 상황이 되어 가는 것을 보시면서 마음이 아파서 하시는 말씀이다.

5.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유대인들에게 충격을 주었음에 틀림없다. 아니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무시했거나. 선지자의 말이 자기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이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6. 유대인들이 바알이나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왜 여호와의 전에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하나님 홀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도 다른 신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신 중의 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온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 신이나 섬기는 법이다. 쉽게 굴복하고 쉽게 신을 바꾼다.

7. 도적이 굴에서 무엇을 하길래 성전을 도적의 굴혈이라고 하시는가?

물건도 숨기고 자신도 숨어있는 곳: 굴이 도적에게는 가장 안전한 곳이다. 유대인들이 온갖 도적질을 다 하면서도 성전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단다. 도적의 굴이 들켜지 않으면 안전한 곳이지만 누군가에게 들켰다면 끝장났다고 봐야지! 아무리 하나님의 전이지만 도적의 굴혈이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선언이다.

8. 계속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가하시겠다고 하신다. 마치 무엇처럼(두 가지)?

실로 파괴와 북이스라엘의 멸망.

9.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법궤를 안치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곳이 실로이다. 그 실로를 어떻게 하셨는데(삼상 1-7장)?

파괴시켜 버렸다, 법궤는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패역 때문에 빼앗긴 법궤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돌아오지만 실로로 돌아오지 않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적어도 80년 이상, 다윗이 등장할 때까지) 방치되다시피 버려졌다. 이것을 기억하는 한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10.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온 자손을 언제, 어떻게 쫓아내셨는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틀림없음에도 이렇게 망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11.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아버지: '일나라(일어나거라)'부터 시작해서 '밥 무라', '학교 가야지', '그러다가 학교 늦는다', '거 봐라 늦는다고 안 카다'... 아무리 그래도 꿈쩍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는 아들처럼 유다가 그랬다는 것이다. 너무 말이 많으니 싫어서? 요즘은 아이들 같으면 잔소리가 많다고 대들지도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일을 이렇게 비유하신 셈이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울지 않는 장터의 아이들처럼(숙 7:32)!

12.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끝났다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고 했으니 이제 선지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

그래도 구해야 한다: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하나님께 기도한 모세처럼(출 32:9-14) 그러니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생을 했겠는가!

13. 다음 중에서 직원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어느 경우일까?
<무능하고 게으른 사장, 무능하지만 부지런한 사장, 유능하지만 게으른 사장, 유능하면서도 부지런한 사장>

무능하지만 부지런한 사장: 이런 사장 밑에서 직장생활 하려면 정말 골치 아프다. 차라리 게으르기나 하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꼭 이런 식 아니었을까? 얼마나 열심인가 보라. 자식이나 아비나 부녀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데 열심이다(18-19). 차라리 게으르기라도 하면 낫지!

14.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격노케 하는 일이다. 동시에?

자기 얼굴에 치욕을 자취함이다(19). 하나님을 노엽게 하거나 섭섭하게 해서 득이 될 리가 없다.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장 쉽고 복된 방법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 6:33).

15. 사람들이 잘못하여 분노를 쏟으실 때 애꿎은 짐승과 들나무는 왜?

짐승과 들나무는 사람을 위해서 지은 것이다. 사람이 징계를 받아서 쫓겨나는 판에 짐승과 나무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다.

16. '희생(제물)'과 마찬가지로 번제물도 너희가 먹으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너희끼리 다 먹고 치위라: 원래 번제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을 몫은 없다. 그런데 그것도 다 먹으라는 것이다. '안 막을란다. 니나 무라' 이러는데 '아버지 속이 안 좋은 모양이다. 우리끼리 먹자' 이라고 자식들끼리 잘 먹어 치우면? 맞아 죽기 일보 직전이다.

17. 출애굽 때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레위기의 제사법이 출애굽 때 주신 것인데?

번제나 희생이 우선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선이었다(23, 출 19장, 삼상 15:22).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요 4:24) 드려야 하는데 처음부터 그랬다는 것이다.

18. 출애굽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으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다고 하신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뭐라고 하십니까?

'진히 아들을 보냈는데도 듣지 않았다. 아예 적어서 썼는데 제대로 읽지도 않았다(성경)'고 하시지 않을까? 루터가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했고, 우리에게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성경책을 이렇게 소홀하게 취급하지는 않을 텐데...

19.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별 일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당장에 무슨 일이 생기는 것만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다. 왜?

진실이 입에서 끊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입에서 진실이 떠나면?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될 것이며 그런 세상이 얼마나 지탱될 수 있는가? 머리털을 베고 호곡해야 한다. 끝 날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학교 공부만 죽어라고 시키면 성공하겠지? 참으로 위험한 생각인데 도무지 위험하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20.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도 외쳐야지! 다만 교훈이나 회개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외쳐야 한다.

21. 나실인은 머리털을 밀지 않았다. 긴 머리는 아름다움의 상징이었다(삼하 14:26). 머리털을 의미하는 원어(나제르)에는 '구별, 헌신, 화관, 왕관' 등의 의미가 있다. 이것을 밀어버리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영광이 떠나갔고, 구별된(선택된) 백성도 아니다.

22.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가증한 것을 둔 사건은 무엇인가?

아합스가 성전에 이방신을 섬기는 단을 만든 것(왕하 16:10-16)과 르밧세가 일월성신을 섬기는 단을 여호와의 전에 세운 것(왕하 21:4-5).

23. 도벳(아마도 사당 이름) 혹은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왜 살육의 골짜기라고 불리게 될까?

제대로 장사조차 지내지 못하고 시체를 버릴 것이기 때문에: 시체를 매장하지 못하는 것은 대단한 저주로 여겨졌다(시 79:3). 매장은 커녕 짐승들에게 뜯길 것이다. 여기서 자녀를 불살라 우상을 섬겼으니 이런 끔찍한 징계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사람의 소리가 끊어질 것이다.

< 렘 8:1-3 > (내용상 전장에 연결됨)

24. 죽은 자들의 뼈를 묘실에서 끌어내어 해와 달과 별빛에 말리면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에게 시체가 매장되지 않은 채 버려지는 것은 큰 저주와 수치였다. 죽은 자들도 이런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말이다. 죽은 자가 이렇게 수난을 당하면 살아있는 자는 얼마나 더 할까(왕하 25:5-7)?

25. 죽어서 뼈라도 그들이 섬기던 해와 달과 별에 쬐이는 것은 행복 아닌가? 일종의 비꼬는 말인데 이것이 어떻게 비꼬는 말이 되는가?

자신들의 뼈가 매장되지 못하고 버려져도 그들이 섬기던 신, 즉 해, 달, 별이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내려다보기만 할 것이기에.

예레미야 8~9 장

< 8:4-9:26: 하나님의 심판 >

1. 4절의 '사람'과 '예루살렘 백성'의 같은 점은 무엇이며 다른 점은 무엇인가?

같은 점: 잃어지거나 물러가는 것

다른 점: '사람들'은 잃어지면 일어나고, 떠나가면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날 줄도 돌아올 줄도 모른다.

2. 이스라엘은 전장을 향하여 제멋대로(각각 그 길로) 달리는 말과 같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지휘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달리면 개죽음 당하기 십상이다.

3. 공중의 학, 반구, 제비, 두루미가 '때'를 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무슨 의미인가? 만약 철새가 때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철새들에게 '때'는 생명과 직결된 것이다. 돌아가야 할 때를 놓친 철새는 얼어서 죽거나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여호와와의 규례도 이와 같은 것이다. 짐승들은 자신의 때를 본능적으로 알도록 하셨지만 인간들에게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도록 만드셨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셨지만 결국은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4.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지혜가 있고 여호와와의 율법이 있다'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 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 나를 버렸느니라(9) 엘리 시대에 블레셋과 싸우면서 전쟁터에 법궤를 메고 나간 사건과 비슷해 보인다. 하나님 없는 법궤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에게 지혜가 있고 율법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가방 크다고 공부를 잘 하나? 성경책은 신동한 효력이 있어서 배고 자면 머리가 아프지 않더냐?

5. '경향 중에 잡히리라(9)는 말씀과 '아내와 전지를 타인에게 준다'는 것(10)은 어떤 상황을 전제로 한 말씀인가?

왜적의 침략: 아내와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는 것'이다. 12절의 엷드러짐과 동일하다.

6.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생기는 것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했기 때문이다. 선지자나 제사장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여호와와의 말을 버렸기 때문이다(9) 선지자나 제사장이 의도적으로 거짓을 행한 것일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선지자나 제사장의 임무를 잘 한다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12) 이유가 그래서 그럴 것이다. 하나님 없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헛될 뿐 아니라 거짓을 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말씀에 입각하지 않은 열심은 대단히 위험하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사울처럼! 그러면 아예 성경을 배우지도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떨까? 걱정이다!

7. 백성의 상처를 여상히 고쳐주는 것은 잘 하는 것 아닌가? 문제가 좀 있어도 '괜찮다'고 격려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영터리 치료란 말이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괜찮다'고? 민족 전체가 파국을 맞기 직전인데도 '평강하다'고 말하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길을 막는 행위이다.

8.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는 판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이 무슨 상관인가(13)?

앞사귀까지 마르는 것은 이스라엘이 진멸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말이다. 열매가 없을 뿐 아니라 잎사귀마저 마르듯이 이스라엘이 진멸 당할 것이다. 많은 번역본들은 13절초의 '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수확물'로 해석했다. 전체 문맥으로 보면 개역이, 13절 끝 부분을 보면 다른 역본들이 옳아 보인다. 하박국은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어도 기뻐하리라고 했는데?

9.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서 멸망하자?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서 싸우자'가 아니고?

그냥 죽을 수 있나? 짹 소리라도 해보고 죽자는 뜻이다. 죽을 때 죽더라도 마지막 발악이라도 해보자는 말이다. 14-16절은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부르짖음이다.

10. 견고한 성읍으로 도망가면서 하는 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거민을 삼켰도다'는 옳은 말인가?

맞는 말이다. 제대로 깨달았다. 그런데 왜 이제야 깨닫는가?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에야 깨닫는가 말이다. 뒤늦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돌아서라는 경고이다. 이럴 때 들어가야 하는데...

11. 앞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외적의 침입이나 열매 없는 나무로 설명하더니 여기서는 뱀과 독사에 비유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특히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이란 표현에 주목하자.

이스라엘에게 술법으로 제어할 수 있는 뱀과 독사(뱀, 정치적 술수)가 있었다는 풍자적인 표현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런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애용하던 바로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12.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가시권 안으로 들어오자 선지자는 괴롭다(18, 21).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면 되지 그렇게 아파야 하나?

바로 이 아픔이 선지자로 하여금 온갖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외치게 하는 원동력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음을 볼 때 아프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다.

13. 딸 내 백성이 왜 먼 땅에서 부르짖는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의미이다.

14. 먼 곳에 포로로 잡혀가서도 이스라엘은 이해할 수 없다. 시온에 하나님이 계시는데(19b)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시는데(19c) 어떻게 시온이 망하고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갈 수가 있느냐는 것이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을 섬겼다고 말한다(19d).

15. 이스라엘은 추수할 때(밀)가 지나고 여름(과일 추수철)이 다 지났지만 추수를 하지 못한 백성이 되고 말았다. 추수 때에 아무 것도 수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굶어 죽지! 지금처럼 양식이 다양하고 풍성한 시대가 아니다.

16. 유향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왜 치료받지 못하였는가?

약도 없고 의사도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면 덜 억울하겠지만 고칠 수 있는데도 약을 거부하거나 의사의 지시를 무시하다가 병으로 죽게 되었다면 얼마나 가슴 찢 일인가! 이스라엘이 약이요 의사이신 하나님을 거부하였다는 안타까움이 절절하다.

예레미야 10 장

< 10:1-18: 어리석은 우상 숭배 >

- 배우지 말아야 할 열방의 길(풍속)은 무엇인가? (=무엇을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가?)
하늘의 징조와 우상을 두려워하는 것(=열방의 규제): 고대인들이 비정상적인 천체현상을 두려워한 것은 어쩌 보면 당연하다. 현대인들에게 운명, 사주팔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유성의 충돌도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는가!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팔자나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다.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끝이 임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 우상의 특징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다 정리해 보자. 결론은 무엇인가?
벤 나무(3), 공장(기술자)의 손으로 꾸미고 든든히 한 것(3-4) 메고 다니는 것(5, 스스로 견지 못한다는 뜻) 한 마디로 신이 아니라 나무다(8)
갈린 기둥: 망치질로 다듬은 종려나무 기둥(용도는 일종의 허수아비)
-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권능과 무능력(6-8): 열방의 지혜로운 자와 왕족보다 뛰어난 신 반면에 우상은 나무! 창조자(11)와 피조된 재료로 만들어진 것(9)
- 이 세상은 온갖 우상과 미신이 난무하는 세상이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점점이 사라지지 않고 미신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미신과 우상을 타파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를 깨닫지 못하면 무엇을 섬기든 우상이고 미신일 수밖에 없다.
- 다시스의 은박, 우바스의 금, 청색 자색 옷감, 지금 식으로 말하면 최고의 명품들이다. 이런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기술자가 만들었으니 얼마나 위대한 작품이겠는가?
사람이 만든 것일 뿐: 그런 재료를 가지고 다른 것을 만든다면 명품이 될 수 있으나 신을 만든다면 무능한 우상일 뿐이다. 자신들이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복을 받고, 두려워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인간 속에 들어 있는 절대자에 대한 의식(종교심)이 그릇되게 나타나는 탓이리라.
-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상의 무능에 대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2-5, 6-11, 12-18)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주체가 틀리고(하나님과 선지자) 선지자의 말에 대한 대상이 틀리기 때문이다(하나님과 백성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2-5) 그에 대한 선지자의 찬송(6-11)이 뒤따르고, 또 백성들을 향한 권고(12-18)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하던데 여기서는 좀 다르네?
 같은 말이지만 우상과 대비시키느라고 좀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다. 권능과 지혜와 명철로 지으셨고, 말씀으로 운행하신다. 반면에 우상은 거짓 것이요, 생기조차 없다.
- 야곱이 하나님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야곱의 것인가?
 야곱이 하나님의 것이어야 하지만(=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야곱의 것'이라고도 하신다(16절의 야곱의 분깃. 참고, 창 15:1 나는 너의 상급이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주인이기도 하고, 소유물이기도 한 관계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이다.
- 17절의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와 18절의 '이 땅에 거하는 자'는 같은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꾸러미(보따리, 짐)를 챙겨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먼 곳으로 포로가 되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란 포위되어 갇힌 자라는 말이다. 대항하지 말고 잡혀갈 준비나 하라는 것이다.
-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내어던지는 것도 단순히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깨달게 하려고(18): 아무러면 자기 자식을 죽으라고 패는 부모가 있겠는가!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즈음 세상은 하도 험악해져서 이런 말을 할 수도 없더라!

< 10:19-25: 슬픔과 중보기도 >

- 이제 선지자는 장차 당할 이스라엘의 처절함을 슬퍼한다. 징계 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는가?
 장막이 휘파되었지만 세울 자가 없다. 자식도, 목자도, 양떼도 다 흩어졌다.
- 장차 당할 처절한 모습을 바라보며 무엇이라고 기도하는가?
징계하시되 완전히 멸하지는 마음소서(분노하지 마음소서): 더 이상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하지는 않는다. 당할 수밖에 없는 징계요, 참을 수밖에 없는 상처이다.
- 어디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걷는 자가 하는 것 아닌가? 인생길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과연 그러한지 성경 밖에서도 찾아보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운명에 마주 서서 부딪쳐 나간 사람들을 영웅시하는 것도 범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에 용감하게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인생길을 걸으려면 절대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지도를 받아 걷는 것이다.

예레미야 11 장

1. 좋은 말도 많을 텐데 특하면 저주 얘기일까(3)?

이스라엘의 상황이 '좋은 말로 얘기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다다른 상태에서 어떻게 좋은 말을 기대하겠는가? 다만 그 분노를 극도로 자제하시면서 그래도 실낱같은 희망의 빛을 주시는 것만도 감지되지 해야 할 판이다. 저주나 심판이 있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아직은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란 뜻이다.

2. 쇠 풀무 애굽이란 무슨 뜻인가?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보자. 참고) 왕상 8:51, 신 4:20.

비참했던 노예 생활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꾀더어 내면 질 좋은 무쇠를 만들어 내는 도구이기도 하다. 왕상 8:51(철 풀무), 신 4:20

3.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명령을 좇아 행하는 것: 출애굽기의 십계명 서문과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을 불러내셨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할 일이 별로 없다. 갓난 애기와 같으니까! 그저 예, 예 하는 수밖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우선이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니라'에 강조점이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그 약속을 한 지 수백 년이 흐른 지금은 이스라엘이 답을 할 차례이다. 어른이 된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기에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4.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또 조상들에게 맹세한 내용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선언이었다.

조상들에게: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5. 위의 두 가지 맹세(언약)를 하나님께서는 잘 지키셨는가?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은 약속을 다 지켰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아직도 지키지 않고 있다. 5절의 '오늘날이 그것을 증거하느니라'는 말씀은 '오늘 너희들의 모습이 바로 그 증거니라'는 말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셨다는 말이다. 이스라엘은 지키지 않아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3)

6. 약속을 했는데 한 사람은 약속을 지켰다. 그러면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우선 어떻게 해야 하나?

지키라고 졸라봐야지(7): 언약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간절히, 부지런히 경계를 했지만 끝까지 들지 않았다. 맞아도 싸지!

7. 이 본문에서 유독 언약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2, 3, 4, 5, 6, 8, 10) 이유가 무엇일까? 7개의 표현 중에서 느낌이 다른 것을 하나 지적한다면?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음을 지적하느라고, 그래서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저주 조항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강조하느라고. 언약의 의미가 다 동일하지는 않다. 특히 8절의 '언약의 모든 말'이라는 표현에는 저주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었음을 말한다.

8. 우상숭배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반역(9), 언약 파기(10):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여기서는 절규)을 들지 않는 것은 그들의 극심한 우상 숭배 때문이다. 거리마다 우상이 넘쳐 났다. 어떻게 하나님의 온갖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범죄한 인생의 본성이다 (롬 1:28).

9.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어도 그 신이 구원하지 못하는(12) 이유가 무엇인지 11절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자.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들지 않으신다는 뜻이다: 우상이 구원을 베풀지 못한다는 이런 질책의 대부분은 우상의 무능을 탓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들지 않으시니 차선책으로 우상에게 부르짖게 될 것이지만 소용없을 것이라는 뜻이 강하다.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니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겠는가? 애당초 그 신은 무능하니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없다. 무능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니 어차피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을 어디 가서 하소연할 것이냐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 내가 들지 않겠는데 누가 듣는다는 말이나?

결국 부르짖는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부르짖느냐는 것이다. 대상을 잘못 알고, 회개하지도 않고, 부르짖기만 하는 열심은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이다.

10. '기도하라'는 말씀이 성경의 곳곳에 있고 심지어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까지 했는데(삼상 12:23)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재앙을 내리기로 최종적으로 결심했다는 뜻이다.

11. 거룩한 제육이 그들에게서 떠났거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15절은 뜻이 분명하지 않다고 난외 주에 설명이 있다. 70인 역에는 '내 사랑하는 자가 가증한 일을 행하였거늘 내 집에 있음은 어찌이나? 서원이 나 거룩한 고기(물고기)가 아니라 제육(가) 죄악을 없게 하겠으며 혹 이것으로 피하겠느냐?'라고 번역했다. 이스라엘은 차갑게 마음이 식어버린 애인에게 줄 선물 고르느라고 바쁜 사람인 셈이다.

12. 한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좋은 행실 맺은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고 불렀다. 즉 '싱싱하고 푸른 감람나무'였다. 극상품 포도나무이기도 했다. 이제는?

벼락을 맞아 일부는 불에 타고 일부는 썩인 나무: 큰 소동이 나고 불이 났다면 벼락을 맞은 것으로 보는 것이

무난해 보인다.

13. 16-17절에서 하나님의 대조적인 두 모습을 찾아보자.

이스라엘을 심으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버락으로 때려버린 하나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실 때에도 겨우 도끼를 찍어버린다는 정도였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것은 얼마나 혹독한 선언인가!

14. 여호와께서 선지자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은 무엇이며(19) 그것을 미리 알게 하신 의도는 무엇인가?

대적들의 음모: 열매가 한창인 나무를 그대로 찍어버리듯이 선지자를 죽여 버리자는 음모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하셨다.

죽음을 두려워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아나돗 사람들이 하는 말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고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는 위협에 굴하지 말라는 의도이다.

15. 아나돗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예레미야를 위협하고 죽이려 하는가(21-23)?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렘 1:1), 솔로몬이 추방해버린 제사장 아비아달의 후손들이 살던 곳(왕상 2:26) 고향 사람들이 이러한 것은 가령, 고향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 있다. 즉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자기들은 위대한 제사장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하다’는 말은 자기들이나 자기 고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16. 예수를 가리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양이라고 할 때는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도, 변명하지도 않는 것을 뜻하지만 선지자에게 이 표현이 적용된 것은 무슨 뜻인가(19)?

죽을 줄도 모르고 끌려가면 존재’라는 뜻이다. 대속의 개념과 상관없는 말이다. 소나 개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알지만 양은 모른다.

예레미야 12 장

1. 전문가나 어른들의 말이 틀린 듯싶더라도 함부로 '그게 아니고...'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나님과 쟁변해 봐야 결과는 뻔하다. 그러니 쟁변하지 않고 질문한다.

2. 예레미야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일(1절)과 잘 알고 있는 점(2절)은 무엇인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악한 자의 행동과 패역한 자의 안락함(1)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잘 알고 있는 것: 악한 자나 패역한 자도 하나님께서 심으신 자라는 것(2) 그들이 잘되는 것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점

3. 예레미야의 질문은 누구의 질문과 비슷한가? 다른 점은?

하박국: 하박국이 말하는 악인은 선민을 공격하는 이방민족이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악인은 동족이다. 시 73 읍 21:7 마 5:45

4. 이스라엘을 악하고 패역한 자라고 하는 것은(1)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기 때문인가?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겼다(2) 예레미야를 보고 '너만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께서 내게만 말씀하셨느냐?'고 대들 것이 틀림없다.

5. 아무리 동족이 악하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빨리 죽이라고 하는가(3)? 그들을 죽이라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과 무슨 상관인가?

일단 여기 악한 동족은 11장 끝 부분에서 자신을 암살하려는 아나돗 사람을 가리킨다. 물론 더 나아가면 이스라엘 전체와 관련이 있겠지만, 이스라엘을 그대로 뒀다간 식물과 짐승까지 다 없어질 판이다.

6. 예레미야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악한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런 악한 짓을 계속할 수 있는가(4c)?

그가 우리의 결국(final end, NKJV)을 보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요는 하나님께서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행위를 보지 못한다고 생각했을까? 도둑질해서 현금하는 것은 이원론적 사고 때문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7. 이해가 되질 않아서 질문했더니(1-4) 하나님의 답변은(5-6)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다면 말과 경주하겠느냐?' 무슨 답변이 이런가?

앞으로 더 이해하기 어려운 일(말과 경주, 요단의 창일함)이 있을 것이란 뜻이다: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일도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형제와 아비가 너를 속이면 어떻게 할 것이며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짓밟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겠느냐?'라는 의미이다. 하박국이 그렇게 질문했다. 참고로 평안한 땅을 아나돗으로, 요단의 창일은 전국적인 박해(혹은 외적의 침입으로)로 생각해 보자. '박해를 받을망정 고향 땅인데 앞으로 전국적인 박해를 어떻게 견디겠느냐?'는 뜻이 될 수 있다.

*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이 몇 가지나 있는가?

8. 내 집, 내 산업, 내 마음의 사랑하는 것은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다. 원래 이런 단어와 관계된 동사는 어떤 것들인지 생각해 보고 본문과 비교해 보자.

(집을) 세운다, (산업을) 일으킨다, (마음의 사랑하는 것은) 소중하게 간직한다: 본문에는 '버린다, 내어던진다, 대적의 손에 붙인다'는 동사들이 따라 붙었다. 소중한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징계를 가하겠다는 뜻이다.

9. 삼림 중의 사자는 어떤 의미인가?

잡아먹으려고 덤빈다는 뜻: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잡아먹자고 덤빈다? 간이 부어도 보통 부은 게 아니다.

10. 이스라엘을 가리켜 무늬 있는 매가 아니냐고 하신다. 무늬 있는 매가 어떤 것인지 다소 애매하고 하지만, 이 매는 결국 어떻게 되는가?

다른 매와 들짐승들의 밥이 된다: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 매, 예쁜 무늬가 있는 매라고 하신다. 적어도 '내게 대하여는' 그러하다. 그러니 결국에는 다른 짐승들의 밥이 되고 말 것이다.

11. 이제는 이스라엘을 포도원(내 분깃, 나의 낙토)으로 비유한다. 이 포도원은 결국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가?

많은 목자들이 황무지로 만들어버림(10):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버렸더니 다른 목자들이 와서 포도원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렸다. 아무도 개의치 않는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과 비슷하다.

12. 휘파하는 자들이 누구길래 여호와의 칼이 등장하는가?

휘파하는 자들은 당연히 외적이다(바벨론 군대).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을 치지만 그들을 이용하여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외면적으로는 외적이면서 내면적으로는 여호와의 칼이다.

13. 혈육 있는 자가 평안치 못하고 땅은 모조리 황무지가 되었는데 심고 수고하는 자가 있다니? 이것이 7-12절의 내용과 관계된 비유라고 생각한다면 '밭을 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주변의 다른 나라의 힘을 빌어서(특히 애굽) 외적을 막아보려는 노력: 밭은커녕 도리어 가시를 거두듯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14. 이스라엘을 징계할 것이라고 수없이 경고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유다 집을 그들 중에서 뽑아내리라(14) 선지자들의 모든 경고는 반드시 회복으로 끝을 맺었다. 회복에 대한 약속이 없는 징계는 징계가 아니라 저주일 뿐이다.
15.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민족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도 결국은 징계를 당할 것이지만 여호와와 도를 부지런히 배우는 자는 유다와 함께 회복될 것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바알을 섬기게 한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말이다.

예레미야 13 장

1. 본문에는 징계 받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표현이 많다. 전부 찾아보자(8가지).
 썩은 허리띠, 술에 취한 자, 흑암에 갇힌 자, 양떼를 도둑맞은 목자, 배신당한 친구, 구로(劬勞:아기 낳는 수고) 하는 여인, 수치를 당한 여인, 바람에 불리는 초개
2.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을까? 허리띠를 물에 두지 말라고 하셨다가(1) 물가에 두라고(4)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튼튼한 허리띠와 썩어서 쓸모없게 된 것을 비교하려는 의도이다: 가령,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 처음부터 고센 지방을 제외시키지 않은 것도 일관성의 문제라기보다는 교육의 문제이다. 처음부터 재앙에서 제외시킨 경우와 도중에서 제외시킨 것은 체험의 강도가 다르다.
3. 유브라데는 이스라엘에서 꽤 먼 곳인데 겨우 허리띠를 숨겨두려고 그 멀리까지 가야 하나?
 왕복하려면 적어도 800Km가 넘는 거리인데 굳이 두 번이나 다녀와야 하는 것은 소문을 널리 퍼뜨리기 위한 아닐까? 시끄럽던 선지자가 몇 달 동안 조용하다 싶더니 유브라데에 다녀왔단다. 왜? 허리띠 파문으려고. 웃기는 사람 아냐? 이러는데 어느 날 썩은 허리띠를 매고 나타나면 메시지를 전하는 효과가 탁월할 것이다.
4. 여러 날이란 여러 해를 말한다.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9)이 있으면 빨리 하시지 겨우 메시지 하나 주시려고 이렇게 여러 해를 보내야 하나?
 위의 질문의 답과 동일함, 다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우리처럼 그렇게 급하시지는 않더라.
5. 쓸데가 없어진 썩은 허리띠와 썩기 전의 튼튼한 허리띠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유다와 예루살렘(10절의 '그들'): 두 종류의 허리띠가 필요한 것은 유다의 모습이 두 가지이기 때문이다. 징계 받을 유다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를 상징한다.
6. 모든 병에 포도주가 가득 차는 것은 복인가, 저주인가?
 일반적으로는 복이겠지만 이 경우에는 징계의 방편이다. 실컷 먹도록 해서 서로 치고 받도록 하겠다(13) 하고 싶은대로 실컷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가장 빠르게 망치는 방법이기도 하다. 유대인들도 그것이 복인 줄 알았다(12). 돈이든, 음식이든 능력 이상의 것을 주는 것은 오히려 징계이다. 소화력 이상의 음식을 먹는 것은 안 먹는 것보다 못하다.
7. 항상 저주만 퍼붓던 선지자가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고 하자 모처럼 백성들이 화답한다, '그걸 우리가 어찌 모르겠는가?' 이런 걸 우리말 속담에서 뭐라고 하지?
동상이몽: 꿈 깨라 이놈들아! 그게 축복인 줄 아느냐? 아전인수 격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동상이몽(같은 침대에서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꾸다)이 좋아 보인다.
8. 술에 제대로 취하게 되면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
정신없는 것: 피자 충돌, 즉 피아구분이 안 된다. 부자지간의 분별도 안 된다.
9. 흑암이 닥치면 어떻게 되길래 흑암이 닥치기 전에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가?
내가 눈물을 흘려 통곡할 것: 흑암은 사망의 그늘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도 선지자의 마음도 곡할 것이며 통곡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징계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면 잡혀가는 백성이야 오죽하겠는가!
10. 왕과 왕후에게 낮추어 앉으란다. 왜?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품 잡고 앉아 있으면 뭣 하나?
11. 남방의 성읍들은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남쪽, 사막지대를 가리킨다. 이 성읍들이 붕쇄되고 열 자가 없다는 것과 유다가 다 잡혀가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보자.
 그리로 도망갈 수도 없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그 성읍들마저 사로잡힐 것이라는 가능성도 있다.
12. 네가 받았던(말았던) 때, 네 아름다운 양떼와 북방에서 오는 자들이 무슨 상관인가?
 그들에게 다 빼앗길 것이란 말이다.
13. 외적을 침입을 받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해산하는 여인의 산통에 비유했는데 그렇게 아픈 이유 중에 특별한 이유가 하나 있다면?
친구의 배신으로 인한 아픔: 바벨론과 동맹을 맺었지만 배신하고 침략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외세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충고이다. 믿지 못할 놈을 믿고 의지하면 결국은 눈물만 흘리게 될 것이다.
14. 치마가 들리는 것과 발꿈치가 상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성폭행에 대한 완곡 표현이다(레 20:17).
15. 선지자의 다음 말에 생략된 것을 보충한다면?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
이스라엘이 죄악을: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하겠지만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16.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초개같은 인생은 불쌍하지만 치마를 얼굴까지 들추는 거야 뭐 그렇게 큰 수치일까?
 문화적 차이를 염두에 두고 이해해야 한다. 온 몸을 칭칭 감고 다니는 사람들인데다 여자를 함부로 쳐다보아도 안 되는 문화 속에서 여자가 치마를 들추는 것은 목숨을 버려야 할 만한 치욕일 수도 있다. 노출이 상습화 되어있는 현대의 시각으로 볼 일이 아니다.

예레미야 14 장

1. 이스라엘의 가뭄과 우리나라의 가뭄을 비교하면 어떨까?
 이스라엘에는 저수지나 강물처럼 저장되는 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시의 적절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징계가 임할 때는 끔찍하기 이를 데 없는 가뭄이 닥친다.
2. '성문의 무리'에서 '의'는 소유격이 아니라 동격이다. 그러면 무슨 뜻인가?
 '성문들' 즉, 유다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가뭄이 전국적으로 닥쳤다는 뜻이다. 수도인 예루살렘조차 부르짖는다면 다른 곳이야 말할 것도 없다.
3. 머리를 가리우며(3, 4) 이런 경우에 정상적이라면 머리를 가리기보다는?
떨고, 혹은 두 손으로 싸매고: 원문상으로는 머리를 가리운다는 표현이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머리를 떨군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게 되나? 물을 구하지 못해서 낙담한 모습이다.
4. 가뭄이 임하면 사환들, 농부들, 암사슴들, 나귀들이 고통을 당한다(2-6). 이 표현들이 어떻게 고통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가?
사환은 심부름이 불가능, 농부는 농사를 포기, 사슴은 새끼를 포기하고, 들 나귀는 자신을 포기해야 할 판이다: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죽음에 직면하겠지만 일단은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들 나귀는 갈증이나 굶주림을 가장 잘 견딜 수 있는 짐승이지만 이런 짐승조차 호흡이 가빠지고 눈이 흐려질 정도면 얼마나 극심한 가뭄이겠는가!
5. 7절을 참고하면 가뭄이 드는 것이 선지자에게 책임이 있을까?
선지자의 탓이 아니라 백성들의 탓이다. 그럼에도 선지자는 자신이 책임을 느낀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책임은 아니야'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특별하게 사고를 치거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내 책임이라'고 나서기는 쉽지 않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이 누구 탓일까? 내 책임은 아니지?
6. 조신시대의 명언에는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는 말이 있다. 죄 많은 백성을 위해서 선지자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멋진 말이 있다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7, 21절): 구원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면 너무나 가변적이고 변화무쌍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도 변화무쌍하기 마련이다(취소되기 쉽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이 많을지라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7절).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이오니 버리지 마옵소서'라는(9)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7.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망, 곤란한 때의 구원자이시다.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나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과 어떻게 다른가(8)?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나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은 번덕이 심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놀라 병병하는 자나 구원치 못하는 용사는 능력이 없다는 뜻이다.
8.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설 때는 언제나 마음을 바꾸시던 하나님께서(창 18장, 출 32장) 예레미야가 부르짖어도 들지 않으신다. 예레미야의 기도가 좀 약했나?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어느 누구도 돌이키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회개한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9. 금식하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인데? 언제나 소제를 드린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인데 왜 이런 것들이 소용이 없을까?
 형식만 남은 행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행하는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10. 칼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확실한데 기근과 열병은 어떻게 발생하는 걸까?
 기근과 열병도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쟁 때문에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기근이 닥치고 갈에 많은 사람이 죽고 폐허가 되면서 열병이 돈다(18절 참고). 결국은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하리라는 말씀이다.
11.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않았고 이르지도 않은 말을 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선지자라고 말할까?
 정확하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거나 '자칭 선지자'다. 그런데도 이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그만큼 엄중할 것을 알함이 아닐까? 구약에서 단 한 군데(속 13:2)만 제외하고는 이런 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 가짜 목사라고는 하지 않을 것 같다! 다행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을 끝까지 왕으로 대우하듯이...
12.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순종한 백성들은 어떻게 되나?
마찬가지로 징계를 받는다(16): 심판의 때에는 누구 때문에, 혹은 누가 잘못 가르쳐서라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 거짓 선지자의 그릇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13. 범죄한 이스라엘을 칼과 기근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후련하실까?
받았으로 눈물을 흘리신다(17): 이것은 예레미야가 흘리는 눈물이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다. 징계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른다. 아무리 애를 써도 도무지 알아들지 못하니 최후의 수단으로 징계를 하시지만 징계가 최종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다.

14.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정해졌음에도 선지자는 하나님께 뜻을 돌이키기를 간구한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해야 하는가?

선지자는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 한국 교회가 이래서 되겠느냐고 한탄하기 전에 깨달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

예레미야 15 장

1. 모세와 사무엘은 어떤 일을 했길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해도'라고 하시는 걸까?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풀이킨 적이 있기 때문이다(출 32:11-14, 삼상 7:9)
2. 이스라엘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물으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라고 하신 방법은 몇 가지인가?
없다: 2절은 그냥 죽으라는 얘기다. 완전히 포기하셨다는 말이다.
3.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는 2절과 3절에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
2절은 '다 죽는다'는 뜻이고, 3절은 죽을 자가 '절저하게 죽임을 당한다'는 뜻이다. 칼에 죽은 자를 개가 찢고, 개가 찢은 것을 공중의 새가 먹고 나머지는 땅의 짐승이 먹어치운다.
4. 므낫세는 도대체 어떤 왕이었길래 하나님의 분노가 이렇게 극심한가? 열왕기 21장에서 답을 찾아보자.
므낫세의 악행 중에서 다른 유다 왕보다 유독 악한 점은 아합 왕의 소위를 본받은 것이다(왕하 21:3) 유다 왕 중에 아합 가문의 아달라나 아하스(대하 28:2, 열왕기에는 기록이 없음) 외에 바알을 숭배한 왕은 없었다. 므낫세는 여호와와 성전에 바알의 단을 세웠다. 우상을 섬기던 다른 왕들도 다른 곳에 단을 쌓고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의 전에서 그러지는 않았다(왕하 16:11-14, 아하스가 한 번 그런 짓을 하기는 했지만 므낫세는 더 심했다)
5. 므낫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은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이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에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했다. 므낫세의 악행을 징벌하려면 므낫세에게 해야지 왜 다른 왕들의 때에 하시나?
심판을 최대한 늦추시는 이유는 용서할 기회를 주는 것 아닐까? 므낫세의 악행에서 돌아서길 기다렸지만 이후의 왕들도 회개할 기회를 놓쳐 버렸다. 이제는 중보기도조차 하지 말라고 하신다.
6.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며 예루살렘을 위해서 곡할 자가 누구냐(5)는 것은 무슨 뜻인가?
살아남을 자가 전혀 없다: 그래서 안부를 물어볼 수도 없다. 결국 2, 3, 7, 8-9절과 같은 뜻이다.
7.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망하는 것은 대적의 힘이 더 세었기 때문 아닐까?
겉보기에는 그렇지만 실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6, 7 사 52:5의 '값없어') 병을 치료하는 것도 겉으로 드러난 현상과 드러나지 않는 원인을 분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병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대증요법으로 땀질하는 수밖에 없다.
8.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용서하셨을까? 언제부터 용서하기 시작했는가?
염증이 나도록(6) 질리도록 용서했다는 말이다. 출애굽 때부터 유다가 망하기까지, 그러면 약 1000년이다. 사사기, 열왕기를 거치면서 배신한 회수를 헤아려 보면 엄청나다. 질릴 만도 하다.
9. 키질을 하면 쭈정이는 바람에 날아가 버린다. 그러면 알곡은 남겠네? 바다 모래보다 많은 과부가 알곡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전체가 쭈정이라는 말이다. 과부가 바다 모래보다 많을 것이란 말은 남았다는 뜻이 아니고 남자들이 전쟁에서 다 죽었다는 말이다. 남자 없는 과부는 희망이 없음을 뜻한다.
10. 대낮에, 졸지에, 놀람과 두려움이 닥친단다(8). 일곱 자녀를 둔 여인에게는 백주에 그의 해가 떨어진단다. 그리고 남은 자는 대적의 칼에 죽는단다(9). 그러면 그 여인의 백주에 떨어진 해는 무엇일까?
태양같이 믿었던 아들들: 자식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기절할 만큼 쇠약해졌음에도 남은 아들마저 다 죽는 비극이 닥친다. 일곱 자녀를 낳은 여인이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행복한 여인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11. 11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레미야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면 10절은 누구의 말이며 무슨 의미인가?
예레미야의 하소연이다: 민족의 멸망을 내다보고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에게 사람마다 다름(시비)을 곁어오고, 때렸다. 빛진 것도 없고 빌려준 것도 없는데 보는 사람마다 저주를 퍼붓는다. 음이 스스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과(음 3:3-10) 거의 흡사하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서는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시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프시기 때문이다. 예레미야가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을 하나님께서 겪으시기 때문이다.
12. '값없어'라는 말은 대체로 좋은 의미로 쓰인다. 13절의 '값없어'는 아주 나쁜 뜻이다. 어떤 표현으로 고치면 좋을까?
'무조건', 혹은 '허무하게': 11절은 선지자 개인에게 향한 위로의 말씀이지만 12-14절은 다시 이스라엘에게 임할 외적의 침입을 말한다.
13.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명을 받은 선지자는 드디어 개인적인 기도를 드린다(15-18).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19-21)은 무엇인가?
기도의 내용: 나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기도의 응답: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14. 선지자는 하나님께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으므로 기쁘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기뻐하지 않았다. 왜?
말씀으로 인한 기쁨은 넘치지(16) 다른 사람만 생각하면 분노가 넘친다(17) 하나님께서 특별한 위로를 주셔도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는, 하나님께 대적하기만 하는 동족들을 보면 분노를 삭일 수가 없다.

15.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과 동족들이 징계 받을 것을 내다보는 아픔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는가?

교전(18):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란 우기에는 물이 흐르다가도 건기에는 전혀 물이 없는 시내(마른 시내)를 말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쁨이, 동족을 바라보면 분노가! 복음송 *Day By Day*의 마지막 부분의 가사와 비교해 보라,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16.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도 그저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스스로 용기를 내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답변(19절) 중에서 예레미야의 헌신을 촉구하는 말을 찾아보자.

플아오면, 취할 것 같으면,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플아오면'은 예레미야에게 플아오라는 말씀인가? 언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떠났던가? 바로 다음 문장이 동일한 의미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해석에 도움이 된다. 아마도 좌절하고 낙담한 상태에서(20:7-9) 다시 힘을 내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천한 것'은 낙담하여 하는 선지자의 말, 혹은 백성들의 말이고,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람과 동역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도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없다.

17.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하여금 늦 성벽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앞으로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어떤 핍박을 받아도 끄떡없겠지? 그러나 실제로는 엄청난 핍박을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 결국은 백성들에게 잡혀가 다시피 이집트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인가?

예레미야의 기도나 하나님의 응답은 예레미야 개인의 안녕과 행복이 아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것이다. 사명을 다 하도록 인도해 달라는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완수하도록 지키시겠다고 대답하셨다. 물론 이 속에는 예레미야가 갈대아 군대에서 구원받는 것(렘 39, 40장)이나 악한 백성의 손에서 고집을 받는 경우(렘 37, 38장)도 포함하고 있기는 하다.

예레미야 16 장

1. 다산은 축복의 상징이었고, 자식이 없는 것은 저주로 간주된 이스라엘에서 선지자에게 결혼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무나 끔찍한 결말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다. 처절한 종말이 다가오고 있으니 차라리 혼자 고생하는 게 낫지 애꿎게 가족들을 고생시키지 말라는 의미이다. 왜 결혼하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메시지가 생생하게 전달된다. 그런 점에서 예레미야의 독신생활은 시정각(실물) 교재이다(참고, 사 8장, 겔 24:15-17, 호 1-3장). 그래도 꼭 결혼해야 한다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다. '이 땅에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 다른 땅에서는 괜찮지?

2. '슬퍼함을 입지 못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슬퍼해 줄 사람이 없다. 애곡은 장례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피리를 불며 7일간 애곡하기도 했고, 모세와 아론은 30일, 야곱의 경우는 애곡의 풍습대로 70일간 애곡하였다. 그러다보니 직업적으로 애곡하는 사람도 있었다.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야 시체를 매장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지!

3. 병이나 칼이나 기근에 죽는 것과 그렇게 죽어서 매장되지 못하는 것(4, 6) 중에 어느 것이 더 끔찍할까?

매장되지 못하는 것: 죽는 거야 언제 죽어도 죽지만(필연적인 것), 매장되지 못하고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은 저주받은 죽음으로 여겼다. 범죄하여 처형된 사람에게도 매장이 허용되었다(신 21:22-23).

4. 상가에서 슬퍼하지 말라? 그런 법이 어디 있나? 어디에 이와 비슷한 장면이 있더라?

내가 그렇게 했으니(5절의 '내가') 혹은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살육이 벌어질 테니까(6-7)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생고 일이나 선지자가 슬퍼해서 될 일이 아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장막에서 죽음을 당했을 때 이와 흡사한 장면이 있다(레 10:6-7).

5.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하는 세 단어는 무엇인가?

평강(shalom), 인자(heseed), 긍휼(rachamim): 반대로 이것들을 제거하여 버리면 가장 불쌍한 꼴을 당하고 만다.

6. 6-7절도 '상가에 들어가거나 가서 애곡하지 말라'는 이유라고 한다면 상가에 가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도 많은 사람이 죽어서 애곡할 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 그럴 만큼 철저하게 죽음을 당할 것이다.

7. 죽은 자를 위하여 애곡하는 것은 알겠는데 자기 몸을 बे거나 대머리 되게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방인들의 장례 관습이다: 이스라엘이 이런 관습을 행하고 있었다는 말인데 앞으로 장례를 치를 수도 없을 터이니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질 것이다.

8. 잔칫집에는 왜 들어가지 말라는 건가?

상가에 가지 말라는 이유와 동일하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니까.

9. 상가에도 가지 마라, 잔칫집에도 가지 마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냥 슬퍼하며 사는 거지,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 왜 그러느냐고 물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10. 이렇게 끔찍한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은 그 이유도 모르는가(10)?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린 줄도 몰랐다: 그런데 백성들은 정말 이유를 모를까? 우상을 섬기며 가끔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행위인 줄은 몰랐을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

11.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는 그들의 소원을 풀어주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는가?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도 주야로(=실컷) 우상을 섬길 것이다. 우상을 섬기는 데에 아무런 장애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을 때 생기는 복이다. 말이 복이지 알지 못하던 땅으로 끌려가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복이다.

12. 죽으리라고 하더니(6-7) 이제는 잡혀가리라고 하시는가? 왜 하필이면 잡혀가는 징계를 주시나?

땅을 주신 것(14-15)을 취소함: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었는데 잠정적인 유보 혹은 취소인 셈이다.

13.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징계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본심이 언뜻 드러난 구절은 어디인가?

14-15: 회복시키는 것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이다. 그렇더라도 징계를 할 때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하는데? 완전히 포기하고 옆으로 갈까 봐서 그것이 진심이 아님을 은연중에 내비치는 것 아닐까?

14. 과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약방의 감초처럼 말한 것이 '애굽에서 자신을 구해낸 것'이었는데 앞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와 사심으로 맹세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출애굽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새로운 출애굽):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일이 출애굽을 대신할 것이다. 출애굽보다 더 놀라운 일을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약속이다. 징계를 말씀하시면서 중간에 이렇게 회복을 말하면 겁을 안 내잖아?

15. 어부, 포수의 어떤 점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가?

고기나 짐승이 어디에 숨는지, 어떻게 하면 잡는지 잘 아는 점: 낚시를 언제 해야 하는지 어디에 던져야 하는지, 짐승이 어느 길로 다니는지, 어떻게 잡을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죄인을 찾아내실 것이다.

16. 선지자는 이렇게 가슴 아픈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어떤 다른 세상을 내다보고 있는가?

열방이 여호와를 아는 세상(19-21): 땅 끝에서 온 열방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것을 친히 알게 하시겠다고(21) 선지자도 궁극적으로 이런 세상이 올 것을 알기에 힘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예레미야 17 장

1. 끝 부분에 금강석을 붙인 것은(요즈음은 대체로 인조 금강석이겠지만) 유리칼, 레코드판의 바늘 등인데 그 옛날에 이런 게 있었네! '끝에 금강석을 붙인 철필'은 용도가 무엇일까?

아마도 단단한 바위에 글을 새기기 위한 것일 게다: 바위에 금강석 철필로 새겨놓은 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유다의 죄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금강석 끝 철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위에 새긴 것처럼 도무지 지워질 수 없는 유다의 죄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인가? 일단은 그렇다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 한(31:31-34).

2. 유다의 죄를 하필이면 마음 판과 단 뿔에 새겼을까?

용서 받아야 할 곳이 마음이고 용서하기 위한 과정에 필요한 곳이 단 뿔이다. 마음은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곳이고 단 뿔은 죄를 용서하는 곳이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죄를 용서하려고 해도 죄가 감추어지지 않는다.

3. 어른들이 아이들 몰래 나쁜 짓을 하면 들키지 않을까? 2절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자.

어쩌다 몰래 몰래 하는 일은 숨길 수 있지만 유다가 한 짓거리는 자녀들도 훤히 기억할 정도였다(2). 심했다는 말이다.

4. 요즈음 식으로 말하면 온 땅에 깔린 게 죄다! 그로 인한 벌도 요즈음 식으로 말하면?

재산 몰수(3), 상속불가(=기업에서 손을 댄, 4a: 대주주가 손을 떼고 나면 껍데기만 남는 회사가 되듯이), 종살이(4b), 16장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16:1-9는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고 16:10-17:4절은 그 이유이다.

5. 사람을 믿고 혈육을 의지하는 게 죄인가?

사람은 믿어야 한다. 문제는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다. 여호와를 떠나면 다른 그 무엇도 죄가 된다. 여호와와의 계명을 따라서 사람을 믿고 혈육을 의지하는 것은 복이다.

6. 하나님을 떠난 저주받은 인생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는데 사막의 떨기나무가 언제서? 때로는 지친 나그네의 휴식처가 되기도 하고(창 21:15)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도 한 곳인데(출 3:2)?

물가에 심기운 나무(8)와 대조적이다. 더위가 올지라도, 가물어도 걱정이 없는 물가의 나무와 달리 메마르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 있을 뿐이다.

7. 사막의 떨기나무가 보지 못하는 좋은 일이 무엇일까?

나무가 많은 가지가 뻗고 잎이 푸르러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8절).

8. 돈 때문에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돈이 나쁜 것은 아니다. 돈을 잘못 다루는 사람이 나쁘다. 원인은 사람에게 있다. 사람의 여러 가지 잘못도 근원을 찾아보면 어디가 잘못되었기 때문일까?

진짜 부패한 것은 보이지 않는 마음이다(9): 다른 것도 부패하지만 마음이 더욱 부패하였다기보다는 마음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부패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마음은 신앙의 좌소라고 한다. 이곳에 부패한 본성이 자리 잡으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짓이 악할 수밖에 없다. 이곳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 마음이 부패한 것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9.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고 폐부(폐, 혹은 마음의 깊은 속)를 시험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신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는 없다는 뜻이다. 사람은 동기보다는 결과를 보고 판결을 하지만 하나님은 동기까지 다 보신다는 말이다. 지금은 심장이나 폐를 들여다보거나 상태를 쉽게 알 수 있지만 옛날에는 도무지 들여다 볼 수 없는 것이었다. 그 시절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10. 여호와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단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심판하실 때는 철저히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다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대로 따르는 자에게는 그 보응을 대신 갚아줄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다른 방법을 제시하셨음에도 끝내 거부하는 자에게 심판하실 때가 되면 철저히 심판하신다.

11.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으면 어떻게 되나?

중년에 떠난다: 아무리 사랑하고 정성을 쏟아도 결국은 허무한 짓이다. 불의로 치부한 것은 결국 허무하게 사라지고 만다. 한때 국민적 영웅이었던 황 모 교수의 처참한 결과를 보라. 전직 대통령들, 고위직 관리들, 셀러 리먼의 우상이었던 재벌 회장... 최근에만도 너무 많은 별들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12. 심판이 있다고, 불의한 방법으로 애쓰고 노력해도 허무할 것이라고 아무리 경고하고 외쳐도 듣지 않으면 선지자가 할 일은 무엇인가?

기도하는 수밖에! 선지자의 관구이다. (12)

13. 기도는 무엇으로 시작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부르므로: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13)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14. 선지자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가?

영화로우신 보좌, 원시부터 높이 계시는 분, 우리의 성소(12), 이스라엘의 소망, 생수의 근원(13): 이런 분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을 떠나다니!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가장 큰 특징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다. 자고새가 품은 알처럼, 흙에 기록된 말처럼!

15. 흠에 기록된다는 말은 무슨 표현과 대조적인가?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한 것: 얼마 못 간다. 바람이 불면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생수의 근원이란 마르지 않는 샘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것을 떠났다는 것은 이내 목이 마를 것이란 의미이다.

16.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고해바치더니(?) 느닷없이 고치라니(14)?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버림이요, 선지자를 버린다는 것은 선지자로 하여금 온 몸에 멍이 들도록 두들겼다는 말이다(15).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16)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말이다. 영육간에 흔들리지 않을 재간이 없다. 갈멜산에서 싸우고 이내 낙심해서 도망가던 엘리야를 생각해 보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구원해주시기를 소망한다.

17.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도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고(15)?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믿지 않고 오히려 조롱했다는 말이다. 선지자가 외친 말씀은 이 성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조롱하는 자들이 '무슨 증거가 있느냐?'고 핏박을 했지만 얼마 후에 그들은 그 증거를 체험하게 된다. 체험할 게 따로 있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자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들리라'고 한 말이 생각난다.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모르는 게 죄지!

18.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라는 말을 쉽게 고친다면?

내가 그릇되게 전하지 않았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19. 선지자가 재앙의 날을 부르고, 멸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온당한가(18)? 더구나 자신의 구원을 바라면서(14)?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말리던 모세와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는 말이지 내 원수를 갚아달라는 말이 아니다. 재앙의 날도 선지자는 결코 원하지 않았다(16). 선지자가 되는 것조차 자신이 원한 것이 아니었다(1:6-9). 도무지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니 이렇게 해서라도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었음을 입증하시라는 말이다.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알고 말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렇지? 예레미야가 얼마나 아팠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옳다.

20. 선지자가 이렇게 간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인가?

또 다시 외치라: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조상들이 당한 고난을 자초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기본이다.

21. 왜 하필이면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이르라고 하시는가?

모든 계층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의미이다.

평화의 왕이 이 문으로 들어오실 것에 대한 상징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이기에: 안식일에 짐을 싣고 문을 통과하는 그들에게(24)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짐 대신 평화의 왕이 들어오실 것이라(25)고 외치기에 좋은 장소이다.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말씀을 전하는 장소와 결합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

22.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의 결과와 청종치 아니할 때 일어나는 일을 비교하면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

여호와의 집의 존재 유무: 예루살렘 성의 존재 유무는 어떨까?

예레미야 18 장

녹로(轆轤): 오지그릇을 만들 때 모양과 균형을 잡기 위해서 쓰는 물레(고패, 도르레)

1.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면 성전에서 기다리라고 하시지 하필이면 토기장이의 집에서?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토기장이의 일과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될 수 있다. 토기장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마찬가지로 자연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에서 예수의 회생을,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에서 새로운 부활의 세상이 있음을. 팽배가 싸우기 전에 사과를 한 손아귀에 쥐고 힘을 주어 으깨어 버린다. 공갈이다. 무슨 뜻인가? 꼭 말해야 알아듣나?

영화 장면에 적합한 음악이나 음향효과를 빼버린 채 메시지만 전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이런 효과를 감안해야 한다.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사물에 결부시켜 가르치면 이해하기도, 기억하기도 쉽다. 온갖 기념물을 세우고, 기념일을 제정하신 것과 같은 효과이다.

2. 토기장이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토기장이는 원하는 대로 그릇을 깨고 만든다. 여기서는 완성된 토기를 깨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만들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새로 만드는 경우이다.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는 진흙의 질이다.

3. 토기장이와 하나님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주권을 가진 점에서는 동일하나 행사 방법이 다르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빚는다. 그러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뭉개버리고 다시 빚는다. 하나님도 동일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함부로 뭉개지 않는다. 빨리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만들 것은 만들지 않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8)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계심에도 인간들의 반응에 맞추어 역사하시니(8, 10) 인간들은 자신의 행위대로 되는 줄 안다. 능력이 있음에도 인간의 행동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에 대한 감사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능력 탓으로 여기니... 하나님께서 부를 얻는 능력을 주셨음을 잊지 마라(신 8:18).

4. 토기장이의 손에 잡힌 진흙이 이스라엘과 다른 점은?

진흙이야 자기 의사가 없지만 이스라엘은 스스로 선택의 여지가 있다. 깨어질 것인지 예쁜 그릇이 될 것인지.

5. 하나님은 토기장이처럼 할 수 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토기장이의 마음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상태인가?

떨까 말까: 이런 마음을 안다면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6. 하나님께서 공갈(?)을 쳐도 이스라엘이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12). 그러면서도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이런 공갈을 치시는가? 안 들을 줄 알면서...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낡은 죄지 머! 이게 얼마만한 사랑인지 알자. '셋 하면 쏜다, 하나, 둘, 둘 반, 둘 반하고 반의 반...' 재발 손 쯤 들어달라고 사정하는 것이다, 공갈이 아니고.

7. 설마 자신들의 행위가 악한 줄 알면서(12) 악하게 굴까?

알고 그런다면 정말 악한 짓이지만 그것이 그렇게 악한 것인 줄 모르는 게 죄다. 큰 죄를 지었다고 잡혀도 '그게 관행인 줄 알았다'고 한다. 정말 몰랐을까? 옳지 않다는 것은 알았겠지만 '관행이니까, 모두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떨지를 아는 것이 복이다.

8. 열방 중에 물어보라?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다. 도대체 무슨 일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나를 잊고 우상에게 분향하는 것(15): 그거야 흔히 있는 일 아닐까?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에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철딱서니 없는 애들하고 싸우려니 어른 속이 다 타는 격일까!

9. 처녀가(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했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 것으로 점을 찍었다. 하나님 앞에서 점도 티도 없이 순결해야 할 처녀가 어느 놈쟁이와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가 버렸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굵게 굵게 키운 딸이 이런다고 생각해 보라.

10. 레바논의 눈과 '원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눈 녹은 물)'은 어떤 점에서 이스라엘과 대조적인가?

눈이 녹은 찬물은 마땅히 갈 곳으로 쉬지 않고 흘러간다(=자연의 불변성).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야 할 곳으로 가지 않는다(변덕성). 하나님을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였다.

11.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될까?

복은커녕 놀랍고 영원한 치소(진정거리며 웃음)거리가 된다: 조소와 멸시를 당하게 된다. 하나님도 잊어버린 채 출세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전력투구하는 것은 결국은 웃음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 화려했던 예루살렘이 황폐화 되었다가 간신히 회복되기를 반복한 것이 이것을 잘 보여준다. 오늘날의 예루살렘도 온갖 세력이 한 부분씩 차지하고 있는 꼴이니 누더기나 매한가지다.

12. 대체로 새로운 것이 좋다. 집이나 차도 새것이 좋은데 길은 왜 옛길이 좋다고 할까? 친구나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다면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가?

옛길이란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던 길이다. 사 63:11에서 추억하라는 '모세의 날'이나 마찬가지다. 렘 6:16에서는 '선한 길'이라고 한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눅 16:29)에 순종하는 것이 곧 옛길이다. 하나님께서 닦지 않은 길은 길이 아니다. 그것을 새 길이라고?

13. 우리나라에서는 태풍의 피해가 적지 않다. 이스라엘의 동풍은 어떨까?

이스라엘의 동풍은 아라비아, 즉 남동, 또는 남방의 사막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열풍을 가리킨다. 심할 때에는 공중을 사진(沙塵)으로 채워,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외에도, 농작물을 고사케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여호와께서는 동풍으로 밥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여, 바다를 마른땅으로 만드셨다(출 14:21). 요나를 몹시 화나게 한 것도 뜨거운 동풍이었다(욘 4:8).

이스라엘을 동풍으로 징계하신다는 말은 우리 식으로 한다면 태풍을 불러 징계하겠다는 말과 닮은 점이 많다. 그럴 때는 등을 보이고(=등을 돌리는 게 아니고) 모른 척 하겠다고 하신다.

14. 백성들이 말하기를 예레미야를 쳐도 율법이나, 모략도, 말씀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란다(18). 예레미야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게 아닐까? 잘못 가르친 것 아닐까? 대부분의 목사들도 자신은 바르게 가르치고 선포하는데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둘 중의 하나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거나 아니면 온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부패하여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없었거나. 안타깝게도 그의 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후자이다. 대다수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하는 말은 틀렸고, 예레미야 혼자 하는 말이 옳았다. 백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때에는 어떻게 했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15. 예레미야가 무슨 의도로, 무슨 말을 했기에 이렇게 곤욕을 당하는지 자신의 말(19-23)에서 답을 찾아보자.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고, 그들을 위하여 선한 말씀한 것(20).

16.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라는 (20a)에서 선과 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선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20c), 악은 그들이 예레미야를 해하려고 구멍이는 파는 것(20b) 백성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말이다.

17. 아무리 고약한 백성들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일러바치면서 징벌하라고 기도해도 되나(21-22)?

하나님의 공의로운 간섭 외에는 도무지 방법이 없음을 절감했기 때문이기도(20) 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것임을 알았을 때(15:1-2)는 저주라도 요청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간구라기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적 선포(1:15-16)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레미야 19 장

1.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임할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는데 오지병이 왜 필요한가?
시청각 교재로 사용하려고(=예언의 행동화, 행동화된 예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릴 심판은 마치 오지병을 깨는 것과 같은 것(11)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시청각 교재이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도구를 많이 사용하셨다. 때로는 선지자의 삶 자체를 그렇게 쓰시기도 하셨다(이사야, 호세아, 예레미야). 각종 제사나 성막이나 절기들이 다 그렇다.
2. 예레미야가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들의 어른들을 호출해서 데리고 갈 정도라면 제법 권위가 있었던 모양인데? 예레미야가 뭐 하던 사람이었지?
예레미야도 제사장이었다(1) 제사장 중에서 특별한 계시를 받았는데 다른 제사장이나 백성들이 이 계시의 내용을 싫어했다. 따라서 예레미야와 동행하던 어른들도 좋은 의미로 따라간 게 아니라 책잡기 위해서 따라갔을 것이다.
3. 하시드 문이 어떤 문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단다. 다만 뜻으로 풀이한다면 '질그릇 조각의 문'이다(개역의 난하주). 그러면 왜 하필 '하시드 문 어귀 곁에... 가서' 선포하라고 할까?
 주변에 깨어진 질그릇 조각이 많이 있어서 오지병을 깨기 위한 배경으로 알맞은 곳이었다는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시청각 교재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배경까지 고려하셨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셨다. 우리는?
4. 귀가 진동하거나(3) 귀가 울린다(삼상 3:11, 왕하 21:12)는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 맨 정신으로는 그 말을 들을 수 없어서 귀를 틀어막아야 할 정도의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말 아닐까? 도대체 어떤 재앙이기에 그럴까(6-9)?
외적의 침입으로 인한 엄청난 살육과 예루살렘의 멸망: 후일에 유다가 멸망할 때 이런 모습으로 처참하게 파괴되고 만다(바벨론과 로마).
5. 하나님의 이름은 다양하다. 여호와(스스로 있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어떤 이름을 쓰시느냐는 것은 상황과 관련이 있다. 본문에는 어떤 이름이 어떤 상황에서 쓰이고 있는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주 공식적인 직함이다. 개인적인 친근함이 배제된 표현이다. 개인적인 정이나 관계를 접어두고 행한 대로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모습이다.
6. 이스라엘이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된 이유는 '이 곳을 불결케 했다'는 것이다. 이곳이 어딘데?
성전이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혹은 가나안: 요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우상에게 바쳤다는 말이다. 친구가 준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는 것도 곤란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특별히 골라서 준 땅을 그것도 우상에게 바쳐?
7. 이스라엘의 죄를 간단하게 말하면(4,5)?
하나님을 버린 것: 그 결과로 '이곳을 불결케 하며 이곳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고, 바알을 위해서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다' 이는 하나님께서 명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필연적으로 이런 현상이 따른다. 사람은 속에 뭔가를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8. 도벳이나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는 날이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어떻게 끔찍한 선언일까? 지명이 바뀌는 일이야 흔히 있던 일 아닐까? 참고로 도벳은 인신 제사를 드리던 곳이며 어원이 '불사르는 곳, 혹은 불이 타오르는 곳'이란 의미로 추정된다.
단순하게 지명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럴만한 사연이 있을 것이란 말이다: 인신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이름이 나름대로 거룩한 이름으로 여겨졌겠지만 장래에는 한두 사람을 죽이는 장소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처참하게 죽게 될 것이라는 경고이다.
9. 하나님의 심판으로 외적이 쳐들어오더라도 잘 막아내면 될 것 아냐?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도 국방을 튼튼히 하면 될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모계(謀計 모략과 계획)를 무효케 하시면 아무리 용을 써도 소용이 없다: 열심히 장사해서 큰 돈을 벌 수는 있을지 몰라도 생명은 연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람의 지략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렘 9:24, 잠 9:10).
10. 죽으면 그만이지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면 더 고통스러운가?
끔찍하게 살육을 당한 것이라는 말: 죽을 때 죽더라도 정상적인 장례가 치러지지 않는 것을 더 수치스럽게 여겼다. 그러나 여기서는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없을 만큼 끔찍한 살육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1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그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고기를 먹게 하겠다(9).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미 과거에 있었다(왕하 6:24,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 때): 후일에는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에 2:20, 4:10)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미 레위기 26:29나 신명기 28:53에 예고되었던 일이다. 아무리 예고해도 말 안 듣는 백성에게는 어쩔 수 없나보다.
 북한에 기근이 심할 때 자식을 잡아먹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설마 했는데 나중에 보니가 성경에 이미 그런 얘

기가 있더라. 그 전에 그런 말씀을 여러 번 읽었음이 틀림없는 데도 간성으로 읽었거나 괜히 하시는 말씀이겠지 하는 식으로 읽었으니 입력이 되지 않았던 모양이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일이 있을라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들었기에 이렇게 경고를 발해도 그런 길로 갔겠지.

12.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필이면 오지병을 깨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은 심판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가?

뜯어질 방법이 없다(=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과일은 흙이 나도 일부만 버리고 먹을 수 있다. 어떤 것은 썩혀서 먹기도 한다. 고물로 처리할 수도 있다. 오지병은 깨어지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을 뿐 아니라 회복이 불가능하다. 말하자면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과연 그렇게 되었는가? 좁게 보면 정말 그렇게 되었다. 그러나 넓게 보면 하나님은 깨어진 오지병마저 다시 복원하시는 분이시다.

13. 오지병을 깨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 성은 도벳같이 될 것이라(12). 도벳이 어떤 장소길래 그렇게 말씀하실까(11c)?

공동묘지: 원래는 우상을 섬기던 사당이 있던 명승지였겠지만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하면 도벳은 공동묘지나 마찬가지다. 이 성을 공동묘지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은 이 성이 시체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 말과 같다(7-9, 7:32-33).

14. 14절의 '도벳 땅처럼 되리라'는 말씀의 주어는 누구(무엇)인가?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예루살렘 집들과 이스라엘 왕들의 집, 산산히 부서짐: 도벳 땅은 하시드 문 가까이에 있는 곳이다. 질그릇 조각의 문 말이다. 질그릇이 부서져 아무 짝에도 쓸모없이 버려진 것처럼 유다의 집들도 그렇게 무너져 내릴 것이다. 12, 13절은 도벳의 변하는 모습을 염두에 두면서 동일한 내용을 묘하게 반복하고 있다. 신을 섬기던 성스러운 땅, 깨어진 질그릇을 버린 땅, 공동묘지의 변화가 바로 범죄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15. 이스라엘이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치고 이스라엘 집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부서져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이라고 하신다: 죄지는 놈들이야 사람이지만 집이 무슨 죄가 있다고? 주인을 잘못 만나서 그렇지! 진짜 싫어지면 귀중도 직접 대놓고 말하기 싫을 때가 있다.

[19:14~20:6절까지 한 단락이다]

16.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단다. 그러면 도벳에서는 누구에게 말하였는가?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1)

17. 도벳에서 행한 말씀과 성전 뜰에서 주신 말씀을 비교해 보라.

성전 뜰에서 행한 말씀은 도벳에서 예언한 내용의 요약이다: 내용이 달라질 리가 없다.

18. 목을 끈계 하는 것과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소가 멩에를 메지 않으려고 뿔대는 것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다: 우리말의 목에 힘준다든 표현은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점에서 내용상으로는 비슷한 말이다.

예레미야 20 장

1. 예레미야는 재야인사이고 바스홀은 현직에 있는 성전 감독이다. 왜 하나님은 힘 있는 제사장을 불러서 일을 맡기지 않고 힘도 없는 예레미야를 불러서 이런 일을 맡기시는가?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안 들지!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자나 지혜자를 동원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미련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신다(고전 1:27-29)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드온의 군사들이 너무 많다고 돌려보내라는 것(삿 7:2)이나 이스라엘의 왕은 말을 너무 많이 가지지 말라(신 17:16)는 말씀이나 동일하다.

2. 이전과 다를 것 없는 메시지를 외쳤는데 갑자기 때리고 착고에 채웠을까?

아마도 장소의 문제일 것: 이전에는 거리나 성문, 혹은 힌논 골짜기에서 외쳤는데 이제는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 성전을 맡아 있는 바스홀이 그냥 있을 수 없었던 게지. 1:10에 따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열방만국 위에 세웠다. 겨우 성전을 맡은 바스홀이 까볼고 있는 셈이다.

3. 이름을 바꾸어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대로 될 것이라는 예언이다. 마골밋사빱이 무슨 뜻인가(4, 6절을 참고)? 왜 그렇게 불리게 되는가?

사방으로 두려움(참고 6:25): 바스홀 때문에 사방의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떨게 된다는 말이다. 그가 행한 거짓 말 때문에 모두가 이런 비극을 당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6c)? 유다 멸망의 책임을 다 뒤집어 쓴 꼴이다.

4. 예레미야를 징계한 바스홀이 받을 징계를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눈으로 목도하는 것, 직접 체험하는 것. 29:24-29에 보면 바스홀이 하던 일을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가 맡은 것 같다(또로지에서 스마야가 보낸 글이 스바냐에 이른 것). 그러면 바벨론이 처음 침공하던 때에 바스홀이 사로잡혀 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5. 바스홀의 죄가 무엇인가?

거짓 예언을 한 죄(6):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단 말이나?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제대로 섬기지도 않으면서 이 따위 확신이나 가지다니! 예레미야가 말한 것은 전혀 거짓말이라고 한 죄다.

6. 원수들이 예루살렘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물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는 말을 유대인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왜 그랬을까?

이 탈취물 속에는 성전의 보물도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7. 7절의 '권유'는 '속이다, 유혹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나님께 속았다는 말 아냐? '주께서 나보다 강하시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일종의 반항 아닌가?

못한다고 했는데도(1:4-10) 하라고 하시더니 결국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해보는 말 아닐까? 모세도 그러다가 쫓겨 가서 결국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 갈렘산의 엘리야는 위대했지만 이내 이세벨에게 쫓기면서 차라리 죽여 달라고 했다. 하나님의 종은 때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한다. 역지로 십자가를 지기도 하고...

8. 선지자가 왜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을까?

'이스라엘이 강포하다, 그러다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종일토록 외치고 다녀도 치욕과 모욕거리가 될 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깐.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말이다. 아무리 외쳐도 듣는 사람이 없는데 외쳐야 하다니!

9. 무식하면 용감하다거나 모르는 게 상책이란 말이 있다. 선지자가 견딜 수 없도록 답답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외치자니 치욕과 모욕거리만 되고, 잠잠하자니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가슴 아플 수밖에 없다. 아는 사람이 나서야 하고 아는 사람이 참을 수밖에 없다.

10. 10절의 '사방의 두려움'이란 바스홀의 개명된 이름 마골밋사빱이다. 여기서는 누가 누구를 보고 이 말을 쓰는가?

우리가 예레미야를 향하여: 바스홀에게 붙여주었던 그 이름을 거꾸로 예레미야를 조롱하는데 사용하였다.

11. 그래도 다른 제사장들이 비난하는 것이나 다른 무리들이 비난하는 것은 참을 수 있는데 이제는 누구까지 나서서 예레미야를 대적하는가(10)? 이런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는가?

친한 벗들: 이쯤 되면 예레미야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주위의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것은 재고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확신이였다.

이런 단절감과 소외감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뿐이었다(11). 세상의 모든 사람과 맞서서 싸울 수 있었던 종교개혁자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

12. 선지자는 몹시 아프다. 동쪽의 냉대, 제사장들의 따돌림만 해도 견디기 어려운데 친한 벗들조차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함정을 판다.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그런데 불타는 사명감은 웬 말인가? 이러면 누구를 어떻게 원망하지?

태어난 게 죄지! 이것은 하나님께 반항 아닌가? 이런 처절한 낙망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이 신앙인이다(12) 자포자기나 하나님이나의 갈림길이다.

13. 13절은 아무래도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다. 느닷없이 가난한 자의 생명을 구원한 내용이 왜 나올까?

기존의 찬양 가사라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설교 도중에 적절한 찬양을 한 곡 불렀는데 실제로는 의미가 통하는데 그것을 글로 적어버리면 문맥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

14. 생일을 저주하는 것은 부모를 저주하는 것과 어떻게 다를까?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죽을 죄다(출 21:17, 레 20:9) 그래서 애꿎은 생일을 저주하는 것이다. 옴이 생각난다(옴 3 장)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럴까!

15. 여호와께서 휘파하시고 후회치 아니하신 성음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

소돔과 고모라: 자기의 출생 소식을 전한 자가 이렇게 저주를 받았더라면? 진짜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걸까? 극한 고통에 대한 우회적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이므로 특정인을 가리켜 하는 말이 아니라고 본다.

16. 선지자가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슬퍼해도 될까? 어느 효부상을 탄 며느리가 시상식 뒤에서 한 이야기가 생각난다. '누구는 효부가 되고 싶어서 효부가 된 줄 아느냐? 몹서리가 나는 일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상 안 받고 효부 안 할란다.' 예레미야도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실까?

아무런 대답도 없으셨다. 힘들어서 그런 비명을 지르기는 하지만 곧 다시 일어나리란 것을 알고 계셨으리라.

예레미야 21 장

[시대적 배경] 예레미야는 유다 왕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의 재 집일 년 말까지 사역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세운 허수아비 왕이며 유다의 마지막 왕이다(역사적으로는 그렇지만 예수님의 족보에는 빠진다. 그러니까 족보상으로는 여호야긴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다). 그런데도 바벨론에 반기를 들었다가 망하고 말았다. BC 588(586)에 멸망에 바벨론의 침공이 있었으니 본문은 그 때의 일이다. 이 때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예언하다가 시드기야에 의해 투옥되어 있었다(32:2).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세 번이나 유다를 침공했다. 1차 침입은 주전 605년인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애굽의 느고가 하란에서 대전하여 느고가 패하자 유다는 바벨론의 세력권에 들어갔다(그 전에 요시야는 느고에 적대적이었으나 전투에서 패한 느고가 남하하면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폐위하고 여호야김(원래는 엘리야김)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웠으나 곧 바벨론에 패하고 만다). 여호야김이 생포되고(왕하 24:1)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다. 2차 침입은 주전 597년에 있었는데, 여호야긴이 항복하여(왕하 24:2-18), 바벨론의 속국으로 전락함, 3차 침입은 시드기야 11년(왕하 25)에 있었는데 이전의 침공과 달리 예루살렘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렸다.

1.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은 임멜의 아들 바스홀(20장)과 동명이인이다. 이 바스홀이 더 악랄하다(38:1-13). 어쨌거나 이런 날도 있네! 아쉬우면 찾아와서 부탁도 하고! 그런 날이 올 거라고 했잖아! 예레미야가 어떤 기분이었을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대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끔찍한 결말을 예고하는 선지자는 마음이 어떨까?

기어코 그 날이 오는구나!: 그렇게 말을 안 들더니... 속이 시원했을까? 기쁘진 않았을 것이다. 심판날이니까! 자신의 예언이 이루어져도 아프다니!

2.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던 시드기야가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고 말하는 것(2)은 왜 그럴까?

시드기야가 보기에는 전해 오는 말에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1세기 전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했다가 몰살을 당하고 돌아간 얘기를 들은 적은 있었기 때문이다(왕하 19장). 진작 그런 사실을 믿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3.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좋은 답변을 주시지 왜 하나님께서 도로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하시는가?

때가 있다. 회개하라고 할 때 해야지, 이제는 징계가 시작되었다. 바벨론의 침공은 유다를 징계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더구나 시드기야의 요청은 진정한 회개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4.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돌이키겠다(4)는 것은 '병기를 회수하겠다'는 말이다. 무기가만 빼앗아 버리면 끝나나?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를 치신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시는 무기가 '든 손과 강한 팔'이다(5).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하여 유다를 치시는 모습이다. 원래 '강한 손과 편 팔'은 애굽이나 다른 가난한 족속을 칠 때 사용하시던 것이다(신 4:34, 5:15, 7:19). 그 무서운 손과 팔이 이제는 유다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 열병까지 동원하셨다(6). 고대에 이것은 적국의 침입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다. 바벨론 군대는 그저 뒤흔다꺼리만 할 뿐이다(7). 시드기야의 눈에는 바벨론이 문제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더 큰 문제다.

5. 신 32:15-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길이 여러 가지인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한 가지 길 뿐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가지 길 뿐이다. 저주는 다른 길로 벗어나지 말라고 막아둔 보조수단이지 길이 아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는(8-10) 하나님께서 몇 가지 길을 두셨는가?

여전히 한 가지 길, 죽는 길 뿐이다: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으니 살아남 길이 없다. 살아도 포로로 잡혀서, 죽는 것보다 나을 것이 없다.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앞에는 생명의 길이라도 해도 진정한 생명의 길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때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통하여 또 다른 회복의 길을 숨겨두셨다. 그들 중에서 일부가 돌아오게 되어 회복의 길을 잇는다.

6. 생명을 '노략한 것 같이 얻으리라'는 말은 '그저 주우리라'는 말이다.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것이다. 승산 없는 싸움이라도 항복을 권하기가 쉽지 않다. 끝까지 싸우자고 하는 것이 애국자요 용감해 보인다. 병자호란 때 주전파(김상헌: 전후 청에 끌려가 피살됨)와 주화파(최명길) 중에 누가 진정으로 백성을 위한 것일까? 항복하자는 주화파는 자칫 잘못하면 역적으로 몰린다. 예레미야는 이런 주장을 한 탓에 계속해서 옥에 갇히거나 배신자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그렇지만 훗날에 덕을 본 것도 있지 않을까?

후일, 바벨론에 끌려가다가 도중에 풀려난 것(39:11-14, 40:4): 아마도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에게 호의를 베푼 이유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말했기 때문일 것이다. BC 586년 예루살렘의 함락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레미야의 처우에 호의를 베풀었다. 느부갓네살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은 사로잡혀 가던 예레미야를 도중 라마에서 석방하고 바벨론으로 가면 선대할 것과, 귀국해도 무관하다는 자유 선택권을 허락했다. 그는 바벨론에서 우대받는 것보다 자기 동족과 같이 고난당하는 것을 택하여 총독 그다랴에게 돌아가 백성들 속에서 살았다. 시위대장은 예레미야에게 양식과 선물까지 주어 돌려보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예상하거나 노리던 것이 아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다. 주전파도 주화파도 아니다. 하나님파였을 뿐이다.

7.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는 것은 복인가 화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복이지만 죄인에게는 화다: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은 심판이고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복이다. 출 20:5의 '죄를 갚는다'는 말과 출 4:31의 '갸고하신다'는 말은 같은 단어(파카드) 방문하다'는 뜻이다.

8.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왕이 해야 할 최고의 의무이자 사명은 무엇인가?

공평한 판결: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공의를 실현시키려는 하나님의 노력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가장 빛을 발했다. 솔로몬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 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것을 구했기 때문이다. 바로 그 다윗과 솔로몬의 후예들의 공의를 곱게 했으니...

9. '누가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 거처에 들어 오리요?'라고 기고만장한 골짜기와 평원 반석의 거민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 왜?

예루살렘 거민들: 문맥을 보면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멸망(4-7)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다. '골짜기와 평원 반석의 거민'이란 '깊은 골짜기로 둘러싸인 평평한 반석 위에 세워진 성읍의 거민'이라는 뜻이다.

10. 예루살렘은 깊은 골짜기로 둘러싸인 산꼭대기에 세워진 성이다. 누가 감히 이런 성읍을 침공하겠는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

나는 네 대적이라! 이런 기가 막히는 말이다. 하나님이 대적이라면 아무리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이라도?

예레미야 22 장

1. '다윗의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는 것(5)이 무슨 뜻인지 대조적인 표현을 찾아보자.

이 집이 황무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성에 왕도, 신하도, 백성도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다.

2. 전장에서 선지자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게 메시지를 전했다는데 여기서 유다 왕은 누구일까?

여전히 시드기야: 집이 황무하리라(5)는 말은 왕위가 끊어지리라는 말이다. 광야와 거민이 없는 성으로 만드는 것(6)이나 여호와께서 이같이 행함(8)도 유다의 파멸을 염두에 둔 말이다. 왕이 끊어지리라는 경고는 형식적이고 해도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향한 예언으로 적합하다(실제로 마지막 왕은 여호야킨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3.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위가 영원하리라'고 약속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집(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소원에 대한 응답이었다(삼하 7장, 대상 17장). 그런데 여기서는 다윗의 위가 영원하려면 지켜야 할 것(3)이 왜 다른가?

여호와 경외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는 것,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는 것,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 단순히 왕의 의무이거나 도리를 넘어서 하나님 경외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외면상으로는 다소 다른 모습일지라도 내면상의 이유는 동일하게 하나님 경외다.

4. 길르앗과 레바논 꼭대기는 무엇과 대조적인가?

광야와 거민이 없는 성: 레바논은 울창한 숲으로 유명했다고 한다. 왕의 궁전은 레바논의 나무로 지었다(왕상 7:2). 7절의 '아름다운 백향목'과 같은 의미이다. 길르앗은 기름지고 생산량이 많은 지역이었다.

5.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는 도구가 무엇인가? 왜 그런가?

병기(7): 백향목으로 지은 성전과 궁궐을 찍어버린다는 뜻이다. 적군의 손으로 파멸될 것이란 말이다(시 74:5-11 참고).

6. 유다의 처절한 파멸의 원인에 대해서 훗날 이방인들도 알게 될 터인데(9) 정작 그 일이 닥치기 전에 유대인들은 왜 알지 못하는가?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야 말이지! 동일한 말씀을 신 29:24-26에 이미 말씀하셨어도 도대체 들어야 말이지. 듣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을 해도 들리지도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이방인들이 먼저 안다.

7. 10-12절에는 '잡혀간 자'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복수형태가 아닌 점에 주목해서 누구를 가리켜 하는 말씀인지 난외주에 언급된 왕하 23:30과 대상 3:15를 찾아보자.

여호아하스(=살룸) 요시야의 넷째 아들이다. 므깃도에서 전사한 요시야(10절의 죽은 자)를 대신하여 왜 국민들이 넷째 아들을 왕으로 삼았을까? 석 달 만에 애굽왕 느고가 침입하여 여호아하스를 잡아가고 그의 형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운다(왕하 23:31-35). 10여년 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입하여 셋째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다. 아마도 신하들이 친애굽파와 친바벨론파로 나뉘어 세력을 다투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여호아하스는 친바벨론파, 여호야김은 친애굽파?

왕하 23:30) 신복들이 그 시체를 병거에 싣고 므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묘실에 장사하니 국민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저에게 기름을 붓고 그 부친을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대상 3:15) 요시야의 아들들은 말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8. 요시야가 전사한 후의 유다의 왕들은 여호아하스(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킨(여호야김의 아들), 시드기야(요시야의 아들)의 순이다. 시드기야 왕의 시대에 여호아하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과거 회상인 셈이다. 슬픈 지난날을 왜 언급하는가?

시드기야더러 정신차리라는 말이다: 여호아하스가 어떤 짓을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시드기야는 알고 있었다. 그가 애굽으로 사로잡혀 가서 유배지에서 죽은 최초의 유다 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짓을 계속 하겠느냐는 힐난이다.

9.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이며 어떤 대가를 받았는가?

왕(여호야김), 그의 죽음을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다(18-19): 바보 같은 왕! 그러니 둘째를 제쳐두고 백성들이 넷째를 왕으로 삼았지! 그런 일이 있어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나보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을 패망하리라(호 4:14).

10. 나라를 튼튼히 세우는 방법 중에는 거대한 궁궐을 짓고 왕의 위엄을 내세우는 것도 있는 모양이다. 대원군이 그럴 목적으로 당백전을 발행하여 위세를 부리다가 오히려 나라를 말아먹었다든가? 이스라엘에도 그런 왕이 있었던 모양이다. 백향목으로 집짓기를 경쟁하던 왕 말이다(14-15). 이스라엘 왕의 지위는 어떻게 튼튼해지는가?

공평과 의리를 행함으로(15):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이며(16)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왕의 위를 세우시기 때문이다. 네 아비가 먹고 마시며 형통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요시야는 그런 왕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요시야의 아들들이 한결 같이 이 모양인가! 아버지란 정말 어려운 직업이다.

11. 정상적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와 나귀같이 매장하는 경우의 차이점을 본문에서 찾아보자.

통곡의 유무: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이것은 장례식에서 하는 통곡의 실재이다. 죽은 나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갖다 묻어버린다.

<참고> 여호야김의 마지막에 대한 기록이 대하 36:6-12, 왕하 24:6, 렘 22:19 세 곳에서 제 각각이다. 다음과 같

이 추정해 볼 수 있다.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이집트 군대를 쫓아내고 예루살렘까지 함락하였다. 여호야김과 귀족들을 사로잡아 쇠사슬로 결박하였는데(대하 36:6-12) 갑자기 부친의 사망소식이 들려 급히 귀환하면서 여호야김에게 충성할 것을 다짐받고 풀어주었을 것이다. 주전 601년에 이집트가 득세하자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배반한다(왕하 24:1). 느부갓네살이 주전 597년에 출전하자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 여호야김을 죽이고(렘 22:19) 아들 여호야קים을 왕위에 올린다. 경건한 사람들이 여호야김을 조상들의 무덤에 묻어주었을 것이다(왕하 24:6).

12.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쪽, 바산은 북동쪽, 아바림은 남동쪽(요단 건너 모압쪽) 고산지대로 유다를 둘러싼 형태이다. 유다를 내려다보면서 무엇이라고 외칠까?

외치기는 그냥 통곡하는 거지(영어로 보면 이해하기 쉽다. cry는 외침의 의미도 있지만 소리 높여 우는 의미이기도 하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외칠 내용이 아니라 외칠 이유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수치와 욕을 당할 것(=패망)이다. 그러니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통곡밖에!

13. 20절의 ‘너’는 예루살렘, 혹은 예루살렘 거민이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란 누구일까? 참고로 여호야김이 친애급파로 바로노고에 의해 왕이 되었지만 뒤이어 팔레스틴의 세력을 잡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된다. 악정을 행한 탓도 있지만 바벨론에 반기를 들었다가 백성들의 손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데 반기를 든 이유가 여기의 ‘사랑하는 자’와 관련이 있다.

바벨론에 함께 반기를 든 동맹국들: 느부갓네살이 ‘애굽 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 하수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빼앗았다(왕하 24:1-7).

14.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나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그랬고 그게 습관이란단다(21) 우리는 어떨까?

아무래도 비슷한 것 같다: 말을 잘 들으면 어딘가 약해 보이고 반항하면 뭔가 있어 보인다.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말하면 쑥스러워서 열심히 공부하고도 안 했다고 말한다. 성약설? 성선설? 범죄하고 쫓겨난 인생은 아무래도 성약설이 더 맞는 것 같다. 순종의 사람 이삭이 별 우여곡절 없이 평안한 삶을 누린 것을 보라. 순종하는 자식이 예쁘다.

15. 목자도 사라지고 사랑하던 자도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

수치와 욕을 당하지: 비유권대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짐승이라면 잡아먹히는 수밖에 없고 사랑하던 자가 도망가 버린 여인이라면 더욱 암담한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 예루살렘이 그런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다. 목자는 지도자요, 사랑하던 자는 동맹국들이다. 결국은 바벨론에 철저히 짓밟힐 것이란 뜻이다. 후일 쓸 만한 인곤들은 모조리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16. 해산의 고통이 임하면 여자의 체면이나 우아함은 깨끗이 사라진다. 그런 날이 올 것을 모르고 지금은 어떻게 큰 소리 치고 있는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에서 온갖 호사를 다 누리고 있는 셈이다(23); 새에 비한다면 높고 높은 레바논 백향목 꼭대기에 동지를 틀고 안전하다고 호언장담하는 셈이다.

17.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누구인가? 어떤 왕인가?

실제로는 여호야김 왕이다(고니야 52:31, 혹은 여고냐 24:1, 마 1:12, 대상 3:16). 다른 왕들은 애굽 왕이나 바벨론 왕이 세운 꼭두각시였지만 요시야 사후에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은 유일한 왕이다. 3달간 왕 노릇하다가 BC 597년 이차포로 때 바벨론으로 잡혀갔지만 옥에서 놓여나서 대접받으며 살다가 죽었다(왕하 25:27-30). 이것이 실질적으로 유다의 종말이다. 예수님의 족보상으로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다.

18. 오른손의 인장반지는 대단히 귀한 것이다. 지금도 본인이 아니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귀한 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는가?

천한 파기 취급을 당할 것: 이빨 빠진 사기그릇은 깨서 버리는 것 외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 고니야의 모친도 함께 사로잡힐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에 고니야가 18세의 소년이었으므로 실권은 그 모친이 잡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란 추정도 가능하다.

19. 고니야는 무자할 것이라고 했지만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아들이 있는데(마 1:12)?

여기서 무자할 것이란 왕위를 잇지 못할 것이라는 뜻이다(30). 실제로 그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고(대상 3:17-18) 손자 스룹바벨은 총독으로 귀환하기도 했다(대상 3:19).

<참고>

여호야김: 유다 왕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다(대상 3:15). 애굽 왕 바로노고는 여호야하스(살롬) 왕을 사로잡아 가고 대신 그의 형인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개명시켜 유다 왕으로 삼았다(왕하 23:34). 부왕 요시야가 바로노고와의 싸움에서 전사했을 때, 원래는 그가 왕위를 이어야 했는데, 그는 바로에 복종하는 것을 찬성함에 반하여 동생 여호야하스는 유대에서 반애굽당에 동정하는 한편 그들을 지도했기 때문에 백성은 그를 왕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바로노고는 여호야하스를 제거하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다. 때에 그의 나이 25세였다. 여호야김은 정복자로부터 부과된 금은 등 공물을 백성들에게 부과하여 조직적으로 징수하였다. 이렇게 돈을 주고 산 평화도 오래 계속되지 못했다.

바로노고가 승리한 지 만 3년 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갈그미스에서 바로노고를 격파하고 ‘애굽 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 하수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빼앗았다(왕하 24:1-7). 그렇기 때문에 여호야김은 바로노고 대신에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호야김은 내정에 있어서 압제를 행했으며, 불의와 불공평을

로 노동을 강요하였다. 또 이기적이고 사치 생활을 했으며, 탐람과 무죄자의 피 흘림과 강포를 자행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신랄한 비난을 받았다(렘 22:13-19). 그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또한 우상을 숭배하였다. 예레미야는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내린다는 뜻을 두루마리에 썼으나, 그는 오히려 이를 비웃고 여후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소도(小刀)로 그것을 베어 화롯불에 던져 불살라 버렸다. 여호야김은 이렇게 불경하게도 하나님의 예언을 소각했다. 부왕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에게 이를 낭독한 후에 죄를 자복하고 우상을 숙청하므로 크게 부흥했지만, 여호야김은 이와 정반대로 방백들의 만류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기록하고 여호야김에 대해 예언했다(렘 36장). 그의 치세 제6년인가 제7년(바벨론에 예속된 지 만 3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침공해 왔으므로 그는 굴복하고 성전 기구의 일부도 빼앗겼다. 그는 3년 후 반역했다. 주위의 외적들은 늘 그를 몹시 괴롭혔다(왕하 23:34,36, 24:1,2, 렘 46:2). 끝내는 바벨론에게 패망되어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대하 36:6).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치리했으며, 그의 최후는 참으로 비참하여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갈이 매장함을 당하리라'라고 예언되었다(렘 22:19, 36:30). 그의 최후가 어떠한지는 분명치 않다(왕하 24:6, 대하 36:6).

예레미야 23 장

1. 선지자는 하나님을 목장 주인에 비유하고 있다. 목장 주인이 멀리 떠났다 돌아왔더니 자신의 목장이 엉망진창이 되고 양떼는 다 흩어져 버렸다. 분노해서 외치는 다음 말들을 현대식으로 바꾸어 보자.

1) 내 목장의 양 무리를 멸하며 홀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어느 놈들이 회사를 맡아 먹었어? 내 돈 다 어디 갔어?

2) 너희가 내 양 무리를 홀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내가 맡긴 돈을 다 떼어먹겠다고? 죽을 줄 알아라!

3) 내가 내 양 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죽이 나지 아니하리라. 그런다고 내가 망할 줄 아느냐? 쓸 만한 인재들을 다시 모아서 완벽하게 회사를 살리겠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나아가 메시아 시대의 회복을 말한다.

2. 이 목자들(원어는 복수형임)이 얼마나 고약한 목자들이었는가?

목자의 임무는 양떼를 지키는 것인데 이들은 양 무리를 홀으며 몰아내고 돌보지 않았다. 완전히 미친 것 아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말이다. 앞장에서 언급한 유다의 마지막 네 왕을 가리킨다고 보아도 좋겠다. 차라리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기지!

3. 흩어진 양 무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고 번성케 하고 목자들을 세워서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죽이 나지 않게 하실 능력이 있다면 진작에 올바른 목자들을 세우시지.

그런 결말이 오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사람을 사랑해서 스스로 고생길로 들어선 하나님이시다. 물론 그들이 처음부터 고약한 목자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변하기도 했다. 우상숭배, 욕심, 악의 유혹에 약한 인간을 사랑한 탓이다.

4.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겠다고 하면 현재 다윗의 모습은 어떠한가?

가지도 하나 남은 것 없이 베여진 그루터기. 뿌리는 곧 뽕뿔 모양이다. 가지는 잘려서 전부 팔려갔고 줄기나 뿌리도 제대로 박혀있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태에 다시 가지가 난다고?

5. 하나님께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시겠다고 말씀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왜 망했다는 얘인가?

지도자가 어리석어서 공평치도 정의도 행치도 않았기 때문이다. 공평과 정의를 행치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다는 말이다. 새로운 왕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실 것이다. 그것이 지혜다.

6. 유다와 이스라엘은 서로 다른 나라다. 한때는 우리나라의 남북처럼 양속이기도 했다. 어떻게 해서 이제는 하나가 되었나(6)?

망함으로: 둘 다 망해서 바벨론의 일부가 되었다. 멋진 통일이네!

7. 왕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의'라? 하나님의 이름이 같은데? 후일에 이렇게 불려질만한 왕은 누구인가?

예수 밖에 없다: 그 분이 곧 하나님이시란 얘기다.

8.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와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한단다. 왜?

출애굽보다 더 위대한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복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와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다(8)는 말씀은 이 일이 출애굽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실제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무리는 출애굽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다. 선지자가 과장한 것인가? 이 회복의 진짜 의미는 메시아 시대에 만 백성이 교회로 나아올 것을 가리킨다. 출애굽보다 더 위대한 회복이다.

[23:9-40]

9. 23:9-40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대한 비난이다. 예레미야의 중심이 상하며 모든 뼈가 떨리며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잠긴 사람 같은 이유가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란단다(9).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잘못일 리는 없을 텐데 왜 그렇지?

세상이 여호와와 뜻과 전혀 다르게 돌아가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모르면 마음이 편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 세상은 영 판판이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관심도 없으면 편한데 관심과 애정은 있는데 교회가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괴롭다.

10. 행음하는 자가 가득한데 왜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를까?

행음하는 이유가 풍요로운 결실을 기대하는 행위, 즉 풍요의 신인 바알을 숭배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신들의 성적 행위가 곧 이 땅에 풍요로운 결실로 나타난다는 그릇된 믿음에 따른 행위이다. 따라서 징계는 그들이 기대한 것과 반대 양상을 지니는 것이 타당하다. 풍성한 수확을 바라고 바알을 섬겼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땅이 슬퍼하고 초장이 말랐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11.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다(10)는 것은 바알을 숭배하는 자가 가득하다는 말이다. 바알을 숭배하는 행위가 어느 정도로 과해졌는가?

하나님의 집에서 바알을 숭배하였다(11, 골 8장)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는 처음에는 아합스가 그랬지만(왕하 16:11-14) 본격적인 것은 므낫세가 저지른 일이다(왕하 21:4-5). 그들의 악한 행위란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고, 힘쓰는 것은 바알을 섬기려는 노력이다(10).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바알을 위한 노력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아무리 조심해도 흑암 중에 미끄러운 길에서 밀어버린다면 방법이 없다(12).

12. 사마리아 선지자들(13) 사마리아는 망해버린지 오래 되었는데 무슨 사마리아 선지자들이 있는가?

예루살렘 선지자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기 위한 배경인 셈이다: 사마리아 선지자들이야 이미 멸망당해 버린 도시의 선지자들이니 악해도 영향력이 별로 크지 않겠지만 예루살렘(서울의) 선지자들의 죄의 영향력은 아주 강하다. 그래서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진다(15)고 한다. 더구나 사마리아가 망하는 것을 보았으면 정신을 차려야지!

13. 사마리아 선지자와 예루살렘 선지자가 어떻게 악했는지 예를 찾아보자.

사마리아 선지자들: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함(13), 이게 무슨 선지자냐?

예루살렘 선지자들: 관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함(14), 악을 행하는 자를 징계하기는커녕 오히려 편을 들어주었다. 그러니 악을 행하는 자가 잘하는 줄로 알고 더 열심히 했겠지. 그래서 소돔 고모라 백성처럼 되어 버렸다.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진다(15)는 말은 그들이 악의 근원이 되었다는 뜻 아닌가!

14.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자들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

그래도 끝까지 선지자라고 한다. 거짓 선지자라고도 하지 않는다: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날이 있음을 말하는 것 아닐까? 거짓 선지자라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선지자로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처럼 보인다.

15.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강퍽하게 행하는 데도 선지자들은 '평안하리라, 재앙이 임하지 않으리라'고 했단다(17). 이와 비슷한 현상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 볼 수 있을까?

철없는 아이들 중에 있을 수 있다: '우리 아빠는 내 소원이란면 뭐든지 다 들어준다' 이러면서 얼토당토않은 고집을 부리는 아이와 비슷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러면서 잘못을 행하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이들의 행위는 '결코 죽지 아니 하리라'면서 하와를 유혹하던 뱀이랑 다를 바 없다.

16.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했어야 했다(18, 22). 하나님의 회의가 어디서 열리는가? 예레미야는 이 회의에 참석했는가?

회의란 표현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받는 것에 대한 비유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침 조회 시간에 말을 잘 듣지 않은 학생이나 직원은 그 날 무슨 실수를 해도 실수하게 마련이다. 뒤늦게 뒷북치거나!

17. 하나님께서 노를 발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왜 이들은 겁을 내지 않는 걸까?

하나님의 징계가 직접적이거나 즉각적이지 않았기 때문: 폭풍과 회리바람이 하나님께서 노하신 탓인 줄을 모르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 와서 압제를 해도 그것이 자기들의 힘이 약한 탓으로만 여겼지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특히 사사시대에는 그렇게 오래 압제를 당해야 겨우 하나님을 찾았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자신들이 잘못을 해도 징계가 즉각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말일에), 혹은 자꾸 미루시니까 겁을 안 내지! 징계를 피하려고 인내하시는 줄은 상상도 하지 않았다.

18.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않았는데 선지자들이 왜 달리지(21)?

달리는 원동력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기 때문: 자동차는 주인의 뜻에 따라 굴러야 한다. 이게 제멋대로 구르면 사고밖에 더 나겠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거나 자기 욕심을 부리는 것은 자기 민족을 하나님의 징계 속으로 몰아넣는 짓이다.

19.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피해서 숨으려고 하는 자는 누구인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 요나도 하나님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치려 했으니 다른 선지자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일정한 지역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던 모양이다. 그에 비하면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특히 23-25)은 탁월한 데가 있었던 셈이다.

20.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들도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러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몽사(꿈을 통한 계시)를 얻어서 그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몽사를 준 적이 없다는 것이다. 도대체 어디서 잘못된 걸까?

자신들이 얻었다고 하는 몽사가 자신들의 간교함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26): 생각하는 대로 보고, 생각하는 대로 꿈꾸는 법이다. 몽사를 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 꿈을 꾸게 된다. 열심히 성경을 읽기 전에는 꿈도 꾸지 말고 계시도 받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몽사를 백성들에게 열심히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행위이다(27).

21. 겨와 밀을 비교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어떻게 밀보다 겨를 더 좋아하는 무리가 있을 수 있는가?

어느 것이 밀이고, 어느 것이 겨인지 분간을 못하는 게 원인이다: 다른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이 듣기에는 좋아도 영양가가 전혀 없는 거짓 메시지라는 점에서 겨다. 결국은 누구의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판별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당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열심을 내는 것(봉사는 그래도 다행이지만, 계시나 은사를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는 것)은 그런 점에서 위험하다.

22. 23-32절 짧은 글 속에 '나 여호와와가 말하노라'는 말씀이 몇 번 반복되는가?

7(8, 마지막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를 포함하면)번 반복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하고 계시는가? 여러 말 마시고 그냥 한 방에 끝내시지 않고?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그래도 용서하시려고 위협(?) 공갈(?)만 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난 글이다.

23. 드디어 하나님께서 불과 방망이로 선지자들을 치시리라고 선언하신다. 이렇게 맞아야 하는 선지자들의 죄가 도대체 무엇인가(30-32)?

말씀을 도적질한 죄(30), 합부로 혀를 놀린 죄(31,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긴 죄),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한 죄(32): 본질적으로 동일한 죄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말을 전함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긴 것이고, 결과적으로 백성을 미혹케 하고 말았다.

24. ‘엄중한 말씀’이란 ‘짐’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여호와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고 물은 것은 백성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짐스럽게 여겼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는 것이다(33).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인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짐이 되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짐으로 여겼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짐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짐을 버리겠다고(33) 벌하겠다고(34) 하신다. 혹은 때려다가 혹은 불인 격이다.

25. 이웃이나 형제에게 ‘여호와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물어야 하나?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는가? 혹은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여호와와의 말씀을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뜻인데 이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기거나 혹은 조롱하는 투의 말이기 때문이다.

26.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버려야 할 짐으로 여기지 말라(36)고 하는데도 끝내 그렇게 여긴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완전히 버림을 당한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릴 뿐 아니라 완전히 내어버린다. 그러면 잊지 못할 치욕을 당할 것이다. 조만간에 닥칠 바벨론에 의한 멸망과 포로로 끌려가는 것(바벨론 유수)을 말한다.

예레미야 24 장

1. 유다가 멸망을 당할 즈음에 바벨론은 3차에 걸쳐 유다를 침공했다. 그 때마다 유다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다. 여고냐가 포로로 잡혀간 것은 몇 차 침공 때의 일인지 짐작해 보자(왕하 24:1-2, 10-12, 25:1-2).

2차(BC 597): 잡혀간 백성이 있고 남은 백성이 있다는 것은 3차(마지막)는 아니란 뜻이다. 1차는 여호야김(BC 605), 2차는 여호야긴, 3차는 시드기야(BC 586) 때이다. 2차 침공으로 사실상 이스라엘은 망한 것이나 다름없다. 느부갓네살이 세운 왕 시드기야는 허수아비일 뿐이다. 예수님의 족보상으로도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가 아니라 여호야긴이다.

2. 유다 왕들의 목록에 '여고냐'는 없던데?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이다(대상 3:16, 마 1:11). 고니야라고도 불렸다(렘 37:1).

3.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제외하면 무엇이 남은가(왕하 24:14-15)?

빈전한 자: 우리 식으로 말하면 눈이 똑바로 박힌 자들은 다 잡아갔다는 말이다. 잡아가도 별 소용이 없는 사람과 내버려두어도 반항할 힘도, 능력도 없는 자들만 남겨 두었다.

4. 무화과 두 광주리가 하필이면 여호와와의 전 앞에 놓였을까?

아마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것에 대한 상징일 것: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것이더라는 말이다.

5. 예레미야가 본 두 무화과 광주리는 각각 무엇을 상징하는가?

생명과 사망: 좋은 무화과는 갈대아인의 땅으로 포로되어 간 자들(5)로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요, 악한(=썩은) 무화과는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8)로서 끝내 하나님을 저버리고 망할 것이다.

6. 잘 익은 무화과는 누가 그렇게 했고(5-7), 악한 무화과는 누가 그렇게 했는가(8-10)?

하나님께서: 다윗의 뿌리에서 의로운 싹이 나게 하려면, 여인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려면 이스라엘의 대가 끊어질 수 없다.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통해서 이 일을 계속 하시겠다는 선언이다. 이들이 이 땅에 남아 있던 자나 애굽에 거하는 자보다 더 나은 이유가 무엇인지는 그 다음의 일이다.

부차적인 이유를 살펴본다면,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끝까지 저항한 사람들은 애국자나 민족주의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다.

7.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보시고 아름다운 무화과와 같다고 하십니까?

여호와를 여호와인줄 아는 자(7) 혹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 이들이 이런 마음을 품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8.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으니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과 애굽으로 탈출한 사람들(8)은 자신들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반면에 예레미야는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하는가?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다(겔 11:15).

예레미야의 말: 너희는 진짜 버림받은 것이다.

자신들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것이 결코 복이 아니다.

9.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과 애굽으로 탈출한 사람들(8)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끔찍한 말 씀을 하시는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죄: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 메시지(27:12, 38:17)를 거부한 탓이다. 이 땅에 남은 자들도 결국에는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시드기야와 함께 망하고 만다. 항복하라면 항복할 일이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고 고집을 피우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여서 복을 받은 다윗과 비교해 보자.

10. 예레미야가 이 환상을 본 때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이다. 이 환상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을까?

포로로 간 자들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회복의 말씀이 되었을 것이다. 이 땅에 남아서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레미야를 핍박하던 무리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되었다.

예레미야 25 장

1. 24장은 고니야(여호야김)가 잡혀간 때의 일이었다. 그러면 여호야김 4년(느부갓네살 원년)은 언제인가?
7년 전: 여호야김 11년에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았을 때 백성들이 여호야김을 폐하고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삼았다. 석 달 만에 여호야김이 포로로 잡혀 갔다(바벨론의 2차 침공). 본문이 역사적으로 먼저 일어난 일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바벨론의 1차 침공 때이다(9). 이 해(BC 605)에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에서(유브라테스강의 상류지점) 느부갓네살은 애굽에 승리하여 팔레스틴까지 세력을 뻗치게 되었다. 이 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다.
2. 요시야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이다. 오늘이 여호야김 4년이다. 그러면 요시야는 몇 년 간 통치했다는 말인가? 중간에 여호아하스가 있었지만 통치기간은 3달 뿐이다.
31년간: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부터(BC 627) 시드기야의 제 11년 말까지(BC 586, 유다가 멸망하던 해) 사역했다. 대강 40년간이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은 즉위 12년째이므로(대하 34:3) 종교 개혁이 막 시작되던 때이다.
3. 예레미야가 23년간, 다른 많은 선지자들이 부지런히(=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결과는 어떠한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4). 그러나 끔찍한 징계 소식을 들을 수밖에!
4. 선지자들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했기에 백성들이 들을 생각도 않았을까? 백성들이 악한 길과 악행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는가?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땅에 거하신다(5):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것이 가장 크고도 근원적인 복이다. 순종하지 않으면 떠나시겠다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모든 것을 다 잃는 셈이다. 철없는 아이들이 아버지가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고 그저 사다 주는 과자나 선물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가 빈손으로 돌아오시는 아버지를 싫어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아니 선물을 사다줘도 싫어하는 꼴 아닐까?
5.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이다. 우상을 가리켜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하시면서(6, 7), 분노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내 손으로 만든 것이니: 이스라엘은 비유권대 하나님께서 친히 진흙으로 만드신 것이다. 아담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조상들을 부르시고, 약속을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친히 만드신 것과 같은 애정을 쏟으신 일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백성인데 이 백성이 엉뚱하게 제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다니...
6.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인데 도무지 말을 듣지 않으니 누가 종 노릇을 하는가?
느부갓네살(9) 아들이 말을 안 들으면 종이 아들 노릇을 하는 법이다. 옛날에 그렇게 해서 주인의 가업을 물려받아 성공적인 경영자가 된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언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순한 징계의 도구로만 사용되었을 뿐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인간(단 1:1-3)에게 하나님의 종이란 위대한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다. 그러나 끝내 못난 아들을 다시 불러들이신다.
7.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은 이스라엘인데 징계는 누가 받는가?
이스라엘과 사방 모든 나라들(9): 사방의 다른 나라들은 억울하다. 이스라엘을 징계하려고 바벨론을 불러들이는 과정에서 애매하게 고생한 것 아닌가? 요나가 탄 배의 승객들처럼 그럴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그렇게 범죄하도록 도운 나쁜 친구이기 때문일 것이다. 왕자의 친구들은 주의해야 한다. 자신이 잘못하지 않아도 큰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8. 영영한 황무지가 되리라(9)고 하는 이 땅이 본래는 어떤 땅이었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가장 좋은 땅을 플라 주셨는데(겔 20:6) 이스라엘의 범죄로 황무지가 되어버렸다.
9. 선지자가 전한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을 버린 값으로 이스라엘은 70년간 바벨론을 섬길 것이다'라는 것이다. 왜 하필이면 70년일까? 레 26:34-35, 43(25:3-5)을 참고하여 생각해 보자. 사사시대에 이런 비슷한 징계를 많이 받았는데 최장 예속의 경우라도 40년을 넘지는 않았다.
그들이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연수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말하자면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세월이 490년이었던 말이다(이스라엘의 전체 왕정시대와 비슷함).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다.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칠십 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대하 36:21).
10. 70년간 바벨론을 섬기리라는 것은 끔찍한 선고이면서 동시에 위로가 담긴 표현이다. 어떤 점에서 위로의 말이 되는가?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회복을 전제로 한 말이기 때문이다: 70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다니엘이 깨달은 70년은(단 9:2) 자신이 포로로 잡혀가던 느부갓네살의 1차 침공 때(BC 605)부터 고레스의 칙령으로 귀환하던 때(BC 537)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외에도 성전이 파괴되고(BC 586) 다시 재건되는 해(BC 516)로 보거나, 느부갓네살의 통치가 시작된 해(BC 605)부터 바벨론이 점령당하는 때(BC 539)로 보기도 한다(12).
11. 바벨론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갔는데 이들이 나중에 그 값을 치른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가뭇 유다가 징벌을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 바벨론의 융성함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행한 무수한 죄를 물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강성하던 바벨론도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에게 허무하게 무너진 이후 다시는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지 못한다. 자신들이 지배하던 나라에 오히려 지배를 받고 만다(14). 오랜 세월 후에 석유가 각광을 받게 되자, 후세인이 바벨론의 영광을 꿈꾸었으나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12. 예레미야는 바쁘다. 말 안 듣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판에 또 무슨 임무를 받았는가?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해야 하나! 이걸 마시면 비틀거리고 미친단다. 비유는 술을 마시는 것이지만 실재는 전쟁이다(16). 민족들 간에 벌어지는 전쟁도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13. 잘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지만 몇 개의 그룹으로 정리하면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1) 이스라엘(18), 2) 애굽 지역(19-20a), 3) 팔레스틴 지역(20b-21, 우스와 블레셋), 4) 두로와 시돈의 세력권(22), 5) 아라비아와 광야지역(23-24), 6) 페르시아 지역(25-26)이다. 이 모든 지역을 비틀거리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인가? 징계의 대상에서 빠진 나라를 찾아보자.

바벨론이다: 이 메시지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1차 침공을 받게 될 당시에 온 세상을 점령하던 바벨론을 가리킨다. 최후에 심판받을 세상은 바로 바벨론을 가리킨다. 세상은 바벨론을 일종의 압초처럼 나타낸 말이다. 바벨론의 히브리 표기법을 히브리 알파벳의 역순으로 대치시킨 이름(예컨대 666 ssk)이다.

14. 대만은 부정부패가 거의 없단다.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부정에 연루된 며느리의 목을 치는 통치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기 아들의 목을 베는 임금이라면 누구 목을 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기 이름으로 일컫는 성에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시다(29). 그러면 어디엔들 재앙을 내리지 못하겠는가!

15. 이 심판의 특징은 소리에 있다. 큰 소리로 부르시는 것, 외침, 요란한 소리가 어떻게 심판이 되나(30-31)?

심판은 칼(전쟁)로 한다(31b, 29, 33).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마치 지휘관처럼 실 새 없이 명령을 내리신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 사자가 부르짖는 모습, 천둥 속에서,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는 모습, 법정에서 다루는 모습, 포도를 밟는 모습 등이다.

예레미야가 이 메시지를 전하던 바로 그 시대에 바벨론은 온 세상을 잔인하게 점령했다. 그런 다음 오래 가지 못하고 바벨론도 무너진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16. 포도를 밟는 자들이 무엇이라고 외칠까? 그게 어떻게 심판의 의미가 되는가?

“밟을 포도를) 빨리 가져오라” 더 빨리 더 많은 양을 포도주 틀에 붓고 열심히 밟듯이 악인을 심판하신다.

17. 하나님의 심판으로 ‘재앙, 대풍, 살육, 흠여짐, 황폐함’ 등의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표현이 무엇일까?

살육이 너무 심해서 장사지내줄 사람이 없다는 점(33). 염습이란 ‘염’이란 말이다. 시체를 수습하는 것을 말한다.

18. 양떼의 인도자에게 가장 고통스런 것은?

양떼의 흠여짐(적막함) 아닐까(34, 37)? 흠여져 없어지면 목자가 뭘 하지? 장사하는 사람에게 하루 종일 손님이 들이닥치는 것보다 손님이 전혀 없는 것이 더 피곤하단다. 양떼가 다 사라진 적막한 목장에서 목동이 얼마나 피곤할까!

19.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어쩌면 더 큰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은 지도자들 아니겠는가? 32-33은 일반적인 모습이라면 34-38은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다. 지도자들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는가?

양떼의 인도자, 목자, 귀한 그릇: 한때 좋은 시절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애곡하라’, ‘재에 굴라’고 하신다. 깨어질 것이며, 도망할 수 없을 것이다.

20. ‘그가 사자 같이 그 소혈에서 나오셨도다’라는 말의 ‘나오셨도다’는 말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창 2:24)’의 ‘떠나다’와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창 39:12)’의 ‘버리고’와도 같은 말이다. 그렇다면 세상에 이런 재앙이 내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셈인가?

하나님께서 떠나셨기(버리셨기) 때문이다. 마치 사자가 굴을 버리고 떠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말이다.

염습(殮襲): 죽은 사람의 몸을 씻고 뒤에 옷을 입히고 염포로 묶는 것(=염)

소혈(巢穴) = 소굴(巢窟): 좋지 못한 짓을 하는 사람들의 활동 근거지

예레미야 26 장

1.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 초라면 다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셈이다. 25장은 언제 이야기였지?

여호야김 4년(느부갓네살 원년): 24장은 고니야(여호야김)가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여호야김 11년), 25장은 여호야김 4년, 26장은 여호야김 즉위 초(여호아하스가 애굽으로 잡혀간 때) 그러니까 역순이다. 이때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지 18년 되던 해이다(요시야 13년에 소명을 받았고, 요시야는 31년간 통치했다) 그 이전까지는 요시야 왕과 더불어 사역에 어려움이 별로 없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이때부터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며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다(참조 1:1-3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기간을 돌로 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던 때라고 할 수 있다.

2. 여전히 예배하는 자가 있었네(2)? 예루살렘에 의인(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이 한 사람도 없어서 망했는데(5:1)?

여호와와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는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도 없다는 게 문제다.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은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셨다. 믿는 흥내만 낼 것이 아니라 진짜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

3.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거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오늘날 일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란 형태로 주어져 있으므로 가감할 일이 없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까?

가감하는 자를 용납하지 말라. 의미를 왜곡하지 말라. 말씀대로 실천하라: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 수 없는 신실한 선지자였을 텐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마도 그런 유혹을 받을 만큼 강력한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예고 아닐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아무리 강한 유혹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4.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하시는 말씀 중에서(2-3) 아무래도 하나님답지 않아 보이는 단어를 하나만 찾아 보자.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못하실 일이 없을 텐데 '혹시가 뭐야? 절대적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실 때만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이다. 인간을 소중하게 만드셔서 기계적으로 다루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회개할 기회를 한번이라도 더 주시려고 하신다.

5. 재앙이 내리고 안 내리는 것은 누구에게 달린 것인가? 절대적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인가?

백성들의 태도(3):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시지 않는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재앙을 피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풀이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힘이 있음에도 절대로 완력을 쓰지 않는 것과 같다.

6.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신들은 인간이 만든 인조신이다. 그들의 사상이나 가르침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다. 반면에 성경은 결코 사람이 지어낸 글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알게 하셨다(5-6) 완악해서 듣지 않는데도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다. 그래서 성경을 계시라고 말한다. 성경에는 사람의 뜻과 전혀 다른 내용들이 많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의 생각과 달라서 놀란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7. 예루살렘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라는 말에 백성들이 크게 반발한다. 내용상으로 뒤이은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 실로가 어쨌길래?

9절에 '이 성이 황무하여 거민이 없으리라'와 같은 뜻이다. 사사시대 말, 엘리 제사장 시절에 법궤를 앞세우고 블레셋과 싸우다가 법궤를 빼앗기고(삼상 4장) 실로는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허물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성전모독죄가 되어 죽음을 당해야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8.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고했는데 왜 죽어야 하나(8)?

예레미야의 말을 여호와와 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9): 그러면 예레미야의 죄는 성전모독죄가 된다. '감히 여호와와 성전이 실로 같이 되고 이 성이 황무하여 거민이 없을 것이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말이다.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큰 소리만 치다니.

9. 죽이자고 난리를 치면서도 바로 죽이지 않고 또 말할 기회를 준 것(12-15)은 웬 선심인가?

일종의 재판 과정이다.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백성들을 부추겼고 소요가 일어나자(9) 왕궁에 있던 방백들이 조사하러 왔다가 재판을 연 셈이다. 방백들 앞에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고발을 하고(11) 예레미야가 진술하자(12-15), 장로 중 몇 사람이 변호하는 셈이다(17-23).

10. 백성들이 웃는다.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고 했다가(8) 죽음이 부당하다고 한다(16). 백성들은 왜 이랬다 저랬다 할까?

대중심리라는 게 원래 중심 없이 흔들리게 마련이다. 이유도 같적이다. 똑같은 말을 듣고도 이번에는 '여호와와 의 이름을 의탁하고 말하였으니' 죽음이 부당하단다.

11.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듣고 격분한 것은 예레미야가 전한 말 중에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이 열방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는 부분이다(11, 6, 12) 그러나 정작 새겨들어야 할 말은 그게 아니라 무엇인가?

여호와와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13, 5절의 '듣지 아니하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데도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것만 열심히 외운다.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하는 하

나님의 뜻도 제발 돌이켜서 이런 재앙을 받지 말라는 것인데...

12. 인간적으로 보면 선지자는 불쌍하다. 자신의 죽음(14)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15) 나를 죽이든 살리든 그건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내가 전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잊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외치는 이런 태도가 방백들과 백성들에게 먹혀든 것일까(16)?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훨씬 더 잘 알아야 하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하는데 정치인인 방백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아네? 별 일이다. 부패한 전문가는 문외한보다 더 어리석고 위험하다.

13. 몇 명의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한 말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18-19: 개역 성경은 23절 끝에 '하니라'고 해서 23절까지 장로들의 말처럼 번역해 두었으나 대부분의 역본들은 18-19절만 장로들의 발언으로 본다. 아무래도 우리야 선지자의 일이 예레미야보다 앞 선 것은 아닌 모양이다 (장로들의 인용이라기보다는 기록자의 삽입이란 뜻). 어쨌거나 예레미야의 편이 된 사람도 있네!

14. 장로들의 이 발언을 요즈음 말로 하면 무엇인가?

판례(전례): 전례대로 해야 한다는 말은 그런대로 설득력이 있는 말이다. 법에서 판례는 일종의 법이다.

15. 여기 모레셋 사람 미가는 우리가 아는 미가 선지자일까?

맞다: 미 1:1에 미가의 신분에 대한 말씀이 있고, 미 3:12의 메시지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18).

16. 본문이 우리야의 죽음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레미야의 생명도 그만큼 위태로웠다: 당시 예레미야가 처해 있던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우리야의 행동과 비교해 보면 예레미야가 얼마나 의연하게 말씀을 전하는지 알 수 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혼자만 아니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17. 국가 간에 범죄자의 신병을 넘겨주고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애굽으로 도망간 우리야를 사자들이 잡아왔다는 것은 당시에 애굽과 사이가 좋았다는 말인가?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 요시야는 바로와 싸우다가 전사했는데.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운 이가 바로다. 말하자면 애굽의 속국이나 다름없었으니 겉으로는 좋은 사이다. 애굽을 믿고 버티다가 바벨론에 침략을 당한 것이 여호야김 4년이다. 그러므로 우리야 사건도 여호야김 초에 일어난 일, 즉 본문의 예레미야 사건과 거의 동시대 사건이다.

예레미야 27 장

1. 1절의 여호야김은 시드기야로 바꾸어 읽어야 한다. 왜 그래야 하는지 본문에서 근거를 찾아보자.
3, 12, 20, (28:1)과 비교하면 그렇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여호야김)가 사로잡혀간 이후의 일이다(20). 아마 필사자의 오키인 것 같다.
2. 선지자가 소처럼 멩예를 목에 메고 나타났다면 희한한 구경거리 아닐까?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시청각 교재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멩예를 메게 될 것이라는 상징적 행위이다. 하나님은 시청각 교재를 잘 활용하신 분이시다. 선지자들은 기꺼이 교재가 되어야 했다.
3. 유다 왕 시드기야는 유다 최후의 왕이다. 거의 다 망해가는 허약한 나라인데 웬 사신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 왔을까?
아마도 합세하여 바벨론에 대항하는 방안을 연구하러 모였을 것이다. 5-7절의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면 그렇다. 아마 시드기야가 이 모임의 주동자였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정복된 후에 목전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두 눈이 뿜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왕하 25:7)
4. 시드기야를 만나러 온 사신들에게 예레미야가 선물을 하나씩 주었다. 어떤 선물인가?
줄과 멩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줄과 멩예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잡혀가리라는 것이다. 바벨론의 억압에서 벗어나려고 방법을 연구하는 마당에 이랬으니...
5.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창조 이후에는 무엇을 하실까?
땅을 나누어주심(5, 6)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뜻이다. 창조만하시고 자연의 법칙에 따라 저절로 흘러가도록 버려두신 것이 아니다.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도 크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법칙이다. 이것이 왕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기초(전제조건)이다.
6. 느부갓네살은 들짐승까지 부리는가?(6)
느부갓네살이 땅과 들짐승도 주관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나라가 패망한 후에 황폐화되면 들짐승이 번성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다.
7.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예뻐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다. 세상을 징계하는 도구로 삼으셨을 뿐이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면서 바벨론은 앞으로 어떻게 되리라고 하시는가?
때가 되면 바벨론도 망하고 다른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7).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가 아니다. 임무가 끝나면 폐기처분될 도구일 뿐이다.
8.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는 나라들을 칼과 기근과 염병으로 진멸시키는 자는 누구인가?
겉으로는 느부갓네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8절의 '내가 그의 손으로'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 그의 손은 단순한 도구일 뿐이다. 부리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9. 온 땅의 주는 여호와, 그가 온 세상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었다. 그러니 열방의 왕들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판에 다른 이방 나라가 들을까?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가 애처롭다. 각설하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이렇게 처리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상숭배(9): 각자가 섬기는 신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이다. 선지자, 복술, 꿈꾸는 자, 술사, 요술객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이다. 바로 이런 자들 때문에 땅에서 멀리 떠나게 된다(고향에서 사로잡혀 낯선 곳으로 끌려가는 것을 의미함).
10. 바벨론 왕의 멩예를 메고 그를 섬겨라? 어쩌면 매국노처럼 들릴 수 있는 말인데?
그렇더라도 선지자는 말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듣기에 거북스런 메시지를 전한다. 얼마나 힘든 일일까? 다른 선지자들은 백성들, 특히 기독교자들이 좋아할 말을 전한다. 진실(하나님의 뜻)보다는 듣고 싶어하는 자들의 비위를 맞추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가!
11. 시드기야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문제다. 예레미야의 말을 들을 것이냐 다른 선지자의 말을 들을 것이냐?(12-15) 아무래도 듣기 좋은 것은 다른 선지자들의 말인데... 어떡하지?
어차피 우리 인생은 이런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나도 잘 모르는 선택이다. 단지 그런 선택 속에 들어와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감사하고, 놀랄 뿐이다.
12. '왕과 왕의 백성?(13)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나님께서 화가 났는지 모시 나신 모양이다: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으면서 화를 내시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방나라의 항복을 권고하던 예레미야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이스라엘도 이방나라와 똑같이 취급하시겠다는 의미이다.
13. 여호와의 집 기구가 언제 바벨론으로 갔지?(16)
여고니야를 사로잡아 갈 때(20, 왕하 24:13): 바벨론의 1차 침공을 말한다. 성전의 중요한 기구들은 이미 다 바벨론으로 옮겨져 버렸다. 남은 것은 소품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다. 거짓 선지자들은 곧 이 기구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했지만(16) 결국은 남은 것마저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말았다.
14.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랴?(17) 하나님을 섬겨야 살지, 성경에 무슨 이런 구절이 다 있지?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어 이스라엘의 왕을 두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다. 백성들이 하도 원하기에 왕을 세워주셨다. 그런 자기 백성을 이방 왕에게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자녀를 경찰에 고

발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 이렇게 해서라도 인간이 되기만 한다면...

15.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기구란 주로 기둥들과 못 바다와 받침들이다. 어떤 느낌을 주는가?

알맹이는 다 가져가고 껍데기만 남겨둔 모습이다. 그나마 이것들도 다 옮겨질 것이다.

16. 바벨론에 항복하라,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남아 있는 기구들마저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이 곳에 다시 두리라: 성전 기구들이 돌아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는 뜻이다. 항복하라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신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심판을 말하면서도 반드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빠뜨리지 않았다.

예레미야 28 장

1. '이 해, 유다 왕 시드기야의 즉위한지 오래지 않은 해'라는 표현은 27장의 사건과 동일한 해라는 뜻이다. 이 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27장에서) 하나님께서 등장하는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전했다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면 전혀 다르다(27:6, 16-17).
2. 바벨론 왕의 멍에가 꺾어지리라는 선지자 하나님께서의 메시지는 비유다. 누구에게 배운 걸까?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위시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지울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항하는 메시지를 전하느라고 동일한 비유를 역으로 사용하였다.
3. 두 해 안으로 돌아오리라 하고 하는 포로는 언제 잡혀간 포로인가?
1, 2차 포로: 느부갓네살이 3차에 걸쳐 유다를 침공했다. 1차 때에는 귀족들을 잡아갔고, 2차 때에는 농사지를 사람만 남겨두고 거의 모든 백성들을 잡아갔다(29:2).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3차 침공이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4. 하나님의 메시지가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을까! 하나님의 말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레미야의 말은 진심일까(6)?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일 것이다. 진정으로 원하는 바인 것은 틀림없다.
5. 전혀 다른 말씀을 동시에 전한다면 한 사람은 분명히 가짜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를 가지켜 가짜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실상은 분명히 가짜다. 하나님께서 지어낸 얘기를 말하는 걸까? 사탄이 준 꿈을 꾸는 걸까?
인간적인 욕심(출세욕, 명예욕)에 이끌린 그릇된 계시를 받았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대표적인 경우가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과 재림의 때를 계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서양 사람이 다녀온 천국은 공상과학 만화에 나오는 미래도시 같은 느낌이고, 한국 사람이 갔다온 천국은 목가적 풍경을 지녔다는 것은 스스로 생각하는 대로 보고 왔다는 느낌이 든다. 마치 천국에도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나 이 땅에서처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듯한 장면들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아마 이런 사람들도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말씀과 상관없는 계시를 받은 것 아닐까!
6. 누가 여호와께서 보내신 진짜 선지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아서(9) 평화를 예언한 선지자는 평화가 임한 후에야 그가 진짜 선지자인 것을 알 수 있다.
 예언이 성취되기 전까지 어느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백성들에게는 선택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어느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판별할 능력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생긴다.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선지자를 보내도 소용이 없다. 현대식으로 말한다면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소용이 없다. 독인지 약인지 분간도 않고 마구 먹어댄다면? 성경을 바르게 안다는 것이 이례서 중요하다.
7.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대결에서 누가 이겼는가?
일단은 하나님: 예레미야는 멍에를 뺏기고 자기 길을 가버렸다. 아무리 열심히 외쳐보아도 들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소용이 없어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부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주변에 지지 세력이 많았다는 뜻이다. 대항하면 목숨마저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예레미야가 말없이 물러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멍에를 뺏기고 자기 길을 가는 예레미야!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제대로 승부가 난다. 결국은 예레미야 승! 그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8. 하나님께서 꺾지 않은 멍에를 꺾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징계하실까?
 꺾어버린 멍에보다 더 단단한 멍에를 씌운다(13-14). 나무멍에와 비교하면 쇠멍에는 단단하기도 하겠지만 훨씬 더 무겁다. 하나님의 말씀에 굽게 순종하는 것이 고생을 덜 하는 비결이다.
9. 들짐승도 그(느부갓네살)에게 주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성음의 황폐화: 들짐승이 번성하는 것은 성음이 황폐화되고 사람이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황폐화시켜 버린 곳에 들짐승이 번성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뜻이다.
10. 하나님께서 그 해에 죽어버렸으면 약속하신 쇠 멍에는 못 지게 되나?
 죽는 것이 곧 쇠멍에를 매는 것이다.
11. 하나님께서는 2년 내로 예언이 이루어진다고 큰소리치다가 얼마 만에 징계를 당했는가?
두 달 만에(1 17) 까를 때 알아봤다. (신 18:20)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29 장

1. 포로로 옮겨간 자 중에 남아 있는 자란? ‘남아 있는’이 아니고 ‘속해 있는’ 아닌가?
포로로 잡혀간 자 중에 살아남은 자란 뜻이다: 나중에는 어느 정도 자유롭게 살게 되었지만 초기에는 처형된 자들도 있었을 것이다(21-22).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보냈으니 받는 자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다.
2.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이 2절에도 있고, 3절에도 있다. 내용상 어떻게 다를까?
 2절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고, 3절은 평화 사절이다!
3. 여고니야가 잡혀간 때라면 몇 차 포로인가?
2차 포로: 1차 포로 때의 왕은 여호야김, 3차 포로 때는 시드기야이다. 여고니야가 사로잡혀 갈 때 육모가 등장하는 것은 아마도 실권을 가진 자였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여고니야는 어렸기 때문에 실권을 가지지는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훗날 바벨론에서 왕으로 대접을 받으며 살았다.
4. 예레미야의 편지를 전달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사해 보라.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라: 사반은 요시야 왕 18년 힐기야 대제사장에게 백성이 바친 은으로 성전 수리를 하라는 왕명을 전했다. 힐기야는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 사반에게서 율법에 기록된 저주와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듣자, 왕은 옷을 찢고 비통해 하였다(왕하 22:3-13, 대하 34:8-21). 이런 사반과 힐기야의 아들이었으므로 예레미야에게 호의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5.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2년 내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돌아올 것을 포기하고 바벨론에 정착하란다. 포로 초기에는 누구의 말이 더 애국자 같을까? 누구의 말을 더 좋아했을까?
정착하라는 예레미야의 말은 애국노의 말처럼 들렸을 것이다: 일제 강점 초기에 항일 투쟁을 하던 많은 애국자들이 후일에 변절한 이유 중에는 일본이 망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란다. 그 당시에 일본에 협조하라고 하는 말만큼 귀에 거슬리는 말이었을 것이다. 아마 백성들은 이런 소리를 했을 것이다. ‘도대체 예레미야는 왜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만 골라가면서 말하는가?’ 그럴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 자신들의 불신앙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나 할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면 선지자가 괴로울 수밖에 없다.
6.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전하는 예레미야의 편지를 요약하면 ‘1) 정착하고 번성하라, 2) 바벨론의 평안을 빌라, 3)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말라, 4) 70년이 차기를 기다리라’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다 포함하는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으라(11-14)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라는 것이다.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복해야 한다.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수밖에 없다. 내 병이 왜 이렇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틀려라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라는 것이다.
7. 바벨론은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온 나라인데 이 나라가 평안하도록 기도해야 되나? 이 나라가 강성하다는 것은 자신들이 놓여날 희망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일제시대에 목사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기한을 채워야 한다. 그 기한이 차면 하나님께서 돌러보내실 것이다. 실제로 70년 만에 바벨론이 멸망하리라고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한 일이었다(BC 612-BC 539). 그 동안에는 바벨론이 평안한 것이 자신들의 평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런 자세가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특별한 경우이지, 다른 모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일은 아니다. 특히 일제시대 같은 경우에는 일제의 강성함이 곧 교회를 깨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경우와는 다를 수 없다.
8. 선지자도 복술자도 꿈도 믿지 말라는 말씀이 중간에 왜 들어왔을까?
 그들의 메시지가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과 반대였을 것이다. 예컨대, 얼마 가지 않아서 바벨론이 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곧 석방시켜주실 것이라는 따위의 달콤한 내용이었을 것이다.
9.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다른 선지자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분간하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판별이 쉽다. 그게 안돼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제는 지나온 과거의 메시지와 일이 되어진 형편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예레미야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0. 훗날, 예레미야가 전한 이 메시지, ‘70년이 차면 ...’(25:11-12)을 읽고 돌아갈 때가 된 줄 깨달은 사람은 누구일까?
다니엘(단 9:1-2) 돌아갈 때가 된 것을 깨닫고 기도를 시작했다.
11.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고 권했고 이제는 ‘바벨론에서 정착하라’고 권한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평안(11) =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12-13) 수도 없이 매를 들기도 하고 약단을 치지만 본심은 그게 아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아닌 하나님의 포로가 돼라.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자는 행복하다. 성경을 읽으면 서도 하나님의 본심을 읽지 못하면 허사다.
12.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나의 진심을 아무도 모른다. 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다.

13. 다음 구절은 예수님의 어느 말씀과 비슷한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산상보훈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 7:7-8) 구약의 하나님은 엄격하고, 야단만 치는 것 같아도 실상은 신약에서 볼 수 있는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찾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반면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열심은 얼마나 허무한가!

14.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하는 말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다’고(15)하는 그 선지자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아합과 시드기야(21-22): 거짓 선지자 때문에 망했는데... 포로로 잡혀가서도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다니...! 질기다.

15. 16-19절은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즉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다(16).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하는 이유가 뭘까?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라(19-20):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부지런히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된 것 아니냐? 그러니 지금이라도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라.

16. 이스라엘의 대부분을 포로로 보내놓고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뒤쫓아 가신다. 칼과 기근과 염병을 가지고(렘 14:12, 15:2-3, 21:7, 9, 24:10, 27:8, 13, ...).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지독하신가?

하나님의 *Endless Love* 때문이다. 적당히 포기할 줄을 모르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배신하는 일에 능하다.

17. 아합과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였는데(21) 느부갓네살이 왜 이들을 화형에 처했을까(22)? 이들의 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마어마하지만 느부갓네살이 보기에는 별로 죄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이들의 예언이 아마도 반역이나 내란선동죄에 해당하였을 것이다: 앞장의 하나냐와 같은 내용, 즉 이스라엘이 곧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이었다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18. ‘여호와께서 너로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권 끄찍한 저주다. 흡사한 모양으로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바야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는 표현도 있다(왕하 9:9). 이와 꼭 같은 형식이지만 축복을 빌어준 표현이 있다. 누구와 같기를 바라면 될까? (참고, 룿 4:11, 12, 창 48:20)

라헬, 레아, 다말(룿 4:11, 12), 에브라임, 므낫세(창 48:20): 아무렴 복의 대명사가 되어야지 어떻게 저주의 대명사가 된단 말인가!

19. 명색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어떻게 음행을 저지를 수 있을까(23)?

거짓 선지자가 무슨 짓을 못할까? 그렇지만 음행은 꼭 거짓 선지자만 저지르는 게 아니다. 자칫 방심하면 아무리 거룩한 자라도 저지를 수 있는 것이다. 단단히 자신을 통제하지 않으면 언제나 위험한 것이다. 반드시 거짓 선지자만 저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런 범죄라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일이다(=나는 아는 자).

20. 느헬람 사람 스마야가 꾸중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벨론에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를 보고 화를 내서 거꾸로 예루살렘의 제사장(스바냐, 죽으리라고 했던 시드기야의 형제)에게 예레미야를 징계하라는 편지를 보냈기 때문이다(25, 26-28).

21. 스마야가 말하는 ‘미친 자와 자칭 선지자’는 누구인가?

예레미야: 가짜가 진짜를 보고 가짜라고 하는 셈이다. 예레미야의 말이 현실로 이루어져 가는데도 여전히 미친 자 취급을 하다니...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배워도, 들어도, 보아도 헛일이다.

22. 바벨론으로 가는 또 다른 편지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었는가?

스마야와 그 집안이 망하리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은 본래 죽을죄이다(신 13:5). 어쩌면 스마야가 스바냐에게 보낸 글에서 요구한 것이 바로 이 구절의 시행이었을 것이다. 결국 자신을 향하여 칼을 겨누는 셈이다.

예레미야 30 장

1.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책에 기록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때가 되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기대하고 확인하라는 것: 한번 외친 것으로 끝날 일이라면 기록할 이유가 없다. 후대에 전해져야 할 이유가 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다.

2.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징계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돌이키실 것이다. 명확하게 때를 말씀하지 않는 것은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임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때나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고... 어차피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잡혀 갈 것이다. 항복해라. 항복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고 말씀하시더니(27-29장) 이제는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고 하신다. 3절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선언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비유를 세 가지만 찾아보자(6-17).

해산의 고통에서(6-7), 짐승이 멍에와 줄에서 벗어나듯이(8), 질병에서(12-17) 더 자세하게 본다면, 번호해줄 자가 없는 송사에서(13절), 사랑하던 자가 모두 번심해버린 데에서(14) 구원하겠다는 의미도 들어 있다고 하겠다. 떨리는 소리?

4. 해산하는 남자가 있다고 물어보란다. 왜 그런 질문을 하라고 할까?

모든 남자들이 다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허리를 움켜쥐고 울부짖기 때문이다(6). 비할 데 없이 큰 환란의 날이란다.

5.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멍에를 찢고 줄을 끊으면 이방인이 다시는 부리지 못한다. 그러면 해방인가?

은근슬쩍 여호와 하나님의 멍에를 매라는 뜻이다. 원래 그래야 했다. 하나님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이 결국은 이방인의 멍에를 매게 된 원인이다. 반면에 하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마 11:29-30).

6.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고? 다윗은 죽은 지 오래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시 일으켜 세울 다윗 왕이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겔 34:23-24, 호 3:5). 유대인들은 1차적으로 정치적 왕을 기대했겠지만 하나님은 더 멀리 더 큰 왕을 내다보고 말씀하셨다.

7. '두려워말라, 놀라지 말라, 구원하리라, 태평하리라'고 하시면서도 징책할 것이란다. 고칠 수 없는 병을 주고, 또 고치리라고 하신다. 왜 이렇게 병주고 약주나?

꿈없고 이스라엘의 배신(14-15)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배신 때문에 병을 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사랑 때문에 버려둘 수 없다. 그래서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묻어나는 것이다. 미워할 수도, 버릴 수도 없는 자식을 둔 아버지는 그럴 수밖에 없다.

8. 이스라엘의 처지는 번호사도 없고, 약도 없고, 애인도 없다(13-14). 쫓겨난 자,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고 불린다(17). 희망이 절벽인 이런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초래된 원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해결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뿐이다.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도무지 치료할 수 없는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9.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열방이나 이스라엘을 치는 자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 아닌가? 그래놓고 그 책임을 묻다니(16)?

이방 압제자들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셨을 뿐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지 말라. 불행이다. 사랑(혹은 징계)의 대상이 된 것을 오히려 기뻐할 일이다.

10. 예루살렘의 중건, 즉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이 회복된다는 말인가(18-21)?

영토(18, 성읍, 궁궐), 백성(19-20, 번성, 영화롭게), 왕(21) 이 세 가지가 나라를 구성하는 기본 요건이다. 나라가 제대로 회복될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임을 감안하여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언약'의 회복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22). 성읍이 세워질 곳은 '자기 산'이다. 실제로는 파괴되어 흙더미가 된 곳이다. 원어상의 의미도 그렇다. 그래서 '폐허의 언덕', '옛 성터'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11.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시키실 때 등장하는 왕의 특징은 무엇인가?

본족(같은 민족)에서 난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는 제사장이다. 즉 제사장의 역할까지 감당하는 왕이 날 것이라는 말이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한다면 이 본문이 은근히 메시아 시대를 겨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정한 평화는 메시아로 말미암는다. 이 땅의 왕은 어떤 선한 왕이라도 온전한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12. 이스라엘에게 통치자가 따로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 통치자가 곧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면 가능한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다. 누가 왕이 되었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을 잊지 않는 왕이 탄생할 것이다.

13.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원인을 이스라엘에게서 찾는다면?

아무 것도 없다: 이 본문에서는 아무런 노력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는

것과 같다.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답이 나온다. 우리의 노력으로 부흥을 불러일으키려는 시도는 위험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필수다.

14. 여호와와 노가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몰아치면 어떻게 하지(23)?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한다. 이스라엘이 징계의 대상이 아니라 회복의 대상이 된 이상 하나님의 노는 염려할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주어진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룬다는 보증으로 주신 말씀에 겁낼 이유가 없다.

예레미야 31 장

1. 앞 장에 이어 회복의 메시지가 이 장에서도 계속된다. 수없이 징계를 말하고, 전쟁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다(애 3:33). 결국은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다(1). 그렇다면 야단치지 않고 그냥 백성 삼으면 안 되나? 말씀으로 변화시켜 버리시든지...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랑 때문이다: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다. 그를 위해 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스스로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신다.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신다. 사람들끼리 하는 말로 하면 인격적인 대우를 하는 것이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신다.

2.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1)은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표현이다. 성경이 정말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증거가 또 있는가?

무수히 많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라면 천지창조라는 위대한 사역 속에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줌으로써 최초의 가정을 이룬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계명이다. 부모를 가벼이 여기는 죄는 정말 중범죄이다(출 21:15, 17).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는 말씀을 합부로 가정을 버리거나 가족관계를 깨는 근거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3.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2)? 은혜를 베풀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야지?

출애굽을 말한다: 애굽이란 칼에서 벗어나 아무 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런 은혜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한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26). 결국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또 다른 광야일 뿐이다. 새로운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다.

4. 3절의 '옛적에만 말은 시간이나 거리상으로 멀다는 뜻이다. 그래서 '멀리서'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멀리서 찾아온, 무궁한 사랑으로, 인자함(혜세드: 주로 언약과 연관된 단어)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래 먼 사이이다. 그 먼 사이를 극복하고 언약을 맺고 끝까지 언약을 지키는 무궁한 사랑이다.

5. 4-5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무엇인가?

다시: 출애굽이 다시 반복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바로 또 다른 출애굽이라는 말이다. 숨어서 반복되는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 사마리아, 예브라임(6)'이다. 실상은 같은 말로 북이스라엘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 부분(1-22)은 특히 북쪽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라고 하기도 한다.

6. 포도원을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이스라엘의 훗날 역사를 보면 심는 자가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짐을 지었으나 타인이 거하고, 정혼하였으나 다른 남자가 동침하고...'(신 28:30-31)라는 말씀이 문자 그대로 실현되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사 62:8-9).

7. 예브라임 산 위에서 외치는 파수꾼의 외침이 어떤 점에서 이상한가?

적을 지키는 파수꾼이 아니라 시간을 알리는 파수꾼인가? 마치 '예배 시간이 다 되었다'고 외치는 듯하다. 이스라엘이 분리된 후에 북이스라엘은 벨엘과 단에서 여로보암이 만든 신전에 모였다. 그런데 시온(유다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외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로 완전히 회복된 것을 말한다.

8. 야곱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를 위하여 기뻐 노래하라는가?

만국의 머리: 야곱이라는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가리킨다.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불쌍한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만국의 머리가 된다. 영적으로 이 민족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세속적으로만 보아도 오늘 우리는 유대인이 정말 대단한 민족이라는 것에 별로 놀라지도 않지만 당시에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였다. 만국의 머리는커녕, 가장 비참한 민족으로 온갖 비난과 조소를 받아야 했다. 후일에도 오랫동안 그랬다. 정말 오랫동안 그랬다.

9.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어떻게 소경과 절뚝발이와 같이 취급되는가?

특히 조심스럽게 돌보아야 하는 점에서(9): 이들에게 장거리 여행은 무리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숫가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강을 따라 난 길이 가장 평탄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때에는 이렇게 연약한 자들에게까지도 특별한 은혜를 베풀며 세심하게 돌보실 것이다.

10. 촌수가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라면 예브라임은 손자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과 예브라임 둘 다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이스라엘과 예브라임이 부자지만 이지만 여기 내용상으로는 둘 다 동일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표현이 구약에는 그리 흔하지 않다. 이스라엘은 그만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아버지가 걸음도 잘 걷지 못하는 아들을 데리고 돌아오듯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걸음도 잘 걷지 못하는 아들을 아버지가 돌보면서 돌아올 때 아들의 표정이 어떨까? 울지(9)!

범죄함으로 만신창이가 된 이스라엘을 부둥켜안고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애처롭다. 누군가가 '가능성이 없으니 그만 포기하시지요?' 한다면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애비 아니냐?'라는 것이다. 같은 내용을 '목자가 그 양무리를 지키는 것'으로 표현하였다(10). 9절의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요 예브라임은 나의 장자'라는 표현은 야곱의 유언을 연상시킨다.

1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소식이다. 이렇게 기쁘고 놀라운 소식은 어디까지 전해야 하는가?

먼 섬까지: 땅 끝까지라는 말과 같은 의미이다. 구원의 소식은 땅 끝까지 전해져야 하는 것이다. 먼 섬은 땅 끝에서 떨어진 곳이다. 열방은 모든 사람으로 이해해도 좋다. 물론 전하기 전에 먼저 들어야 한다(10). 들지도 않고 달려가는 사람들도 가끔은 있더라.

12.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나 포로에서 놓여나 고토로 돌아오는 것이 역사의 흐름을 따른 자연스러운(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께서 홀으시고 모으시는 일이다(10):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우연이나 필연이나 내용상 다 같은 말이다. 그들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도 같은 의미이다. 외형상 그렇게 보여도 역사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다.

13. 이스라엘의 구원은 자신들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은 본문에 없는데...?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11)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그저 놓아주는 법은 없다. 더구나 국가 간에는 더 더욱 없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다. '속량'이라고 번역된 말은 '고엘'이다. 가까운 친척이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 롯기에서 많이 등장하는 '무르다'는 말이다.

14.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신 결과 이스라엘의 근심과 슬픔이 무엇으로 변하는가(12-14)?

영육간의 즐거움: 기쁨을 다음과 같은 단어들로 표현하고 있다. 찬송, 양식이 풍부함, 심령의 즐거움(물댄 동산, 사 58:11) 육체의 즐거움(춤) 기쁨, 흡족, 만족.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적인 복만이 아니라 육적인 복도 포함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는 잘 먹고, 즐거워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가난에 찌들려 궁색하게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복 받은 증거는 즐겁게 사는 것이다.

15. 제사장의 심령을 흠족케 하는 데에는 왜 기쁨이 필요한가(14)?

기쁨이 가리키는 것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받는 자신의 몫을 가리키는 말이다: 제사장의 몫이 많다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많이 드리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제사장에게는 가장 큰 기쁨을 준다. 일의 보람도 있고, 양식이 풍성한 즐거움도 있다. 제사장이 몫이 풍성해진다는 것은 모든 백성이 풍성하다는 뜻이며,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됨을 의미한다. 교인들이 가난한데 목사만 부유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16. 라헬의 통곡 소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구절은 헤롯의 유아학살 사건 때 인용되는데(마 2:16-18)? (참고, 삼상 10:2-3, 창 35:16-20)

1차적으로는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은 슬픔을, 2차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슬픔, 3차적으로는 헤롯에 의해 자녀가 죽임을 당한 슬픔: 베들레헴 길 에브라임(창), 베냐민 지경 셀사(삼상), 라마(렘)는 대략적으로 본 동일한 지명이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영토라는 말이다. 창세기의 사건을 예레미야는 비유적으로 끌어왔고 이 구절을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예언으로 받아들였다.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17. 라헬이 통곡하듯이 이스라엘도 통곡할 날이 이를 것이다. 그러나 어떤 점에서 다를까?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고 해도 이스라엘은 위로를 받을 것! 통곡 소리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니 울지 말라는 것이 핵심이다.

18. 18-19절과 20절에 각각 제목을 붙인다면?

18-19: 에브라임의 회개기도, **20:** 하나님의 응답.

19. 에브라임은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무엇과 닮았다고 하는가?

명예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명예에 익숙하기까지는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할 수만 있다면 벗어던지려고 날뛰던 모습이 바로 자기들의 모습이었던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벗어던지려고 애를 썼겠지! 이것이 어렸을 때의 치욕이다. 브라를 처음 착용한 여학생, 풀리를 박은 수술환자, 이빨에 무엇을 씹은 치과 환자, 집나간 탕자 하나님의 율법, 교회의 법에 익숙한 성도가 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예를 매라! 그게 편하다!

20. 야단맞은 후에 잘못을 깨달은 자녀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부모는 뭐라고 말할까?

사랑한다고, 기쁘다고 말한다: 이런 고백도 가능할 것이다, '너를 야단을 치거나 쫓아내고 나면 생각(고민, 걱정)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아느냐(=깊이 생각하노라) 고생한 것을 반드시 갚아주마.'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꼭 이렇하다.

21. 길표는 요즈음 말로 하면 표지판이나 안내판이겠지만 옛날에는 사막이나 험한 산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한 뜻밖, 풀무더기 따위의 표시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여기서 '대로' 즉 '네가 전에 가던 길'이란 무슨 길일까?

포로로 끌려가던 길: 반드시 돌아올 것이니 그 길을 잘 기억해 두어라(착념하라).

22. 이스라엘을 가리켜 처녀라고 했다가(21), 패역한 딸(22)이라고 한다. 어느 말이 맞는 거야?

둘 다: 실상은 패역한 딸이다. 온갖 음란한 짓을 다 하던 이스라엘을 가리켜 처녀라고 말하는 것은 어색하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처녀일 수가 있는가?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겠다!

23.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중국 사람들은 금방 좋을 **好(호 女男)**자를 연상할지 모르겠다.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것이 '여호와께서 새 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란. 여기서 새 일이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그러면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일일까?

좋은 일: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좋은 일을 가리키는 것은 틀림없다.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겠다. 전쟁과 포로로 납자들이 다 사라진 상황에서 여자가 납자를 안는 것은 문자 그대로 좋은 일일 수밖에 없다(사 4:1). '새 일'이 이스라엘의 회복, 영적인 이스라엘(교회)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완성 등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납자를 안는다'는 것도 다양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이스라엘의 강성한 국력, 예수의 동성녀 탄생,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 등등). 한 마디로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밖에!

24.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노래하던 선지자는 이제 남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노래한다. 그 후에는 전체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래한다. 이런 내용을 따라서 본문을 구분해 보자.

1-22: 북이스라엘, **23-26:** 남유다, **27-40:** 전체 이스라엘(이스라엘과 유다)

25.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자가 돌아올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 대해서 '이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란다(23). 그러면 그 전에는 뭐라고 했었을까?

우상에게 복을 빌었으니, 글썄? 요는 우상에게 복을 빌던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빌게 되리라는 것이다.

26.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자가 돌아올 때에 유다와 그 모든 성읍에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있을 것이란다(24). 그러면 그 전에는 농부와 목자가 없었던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황무지가 되고 시랑과 이리가 노는 곳이 되었었다(렘 9:11, 10:22, 27:17).

27. 아마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메시지를 꿈을 통해서 받은 모양이다. 이런 말씀을 받으니 잠이 달았더란다(26, 시 127:2).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생애에 흔한 일이 아니다. 평소 멸망을 예언할 때에는 심정이 어땠을까? 가장 대표적인 고백을 생각해 보자.

렘 20:7-9: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시므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니 여호와와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권될 수 없나이다

28. 하나님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는 것은 농부가 씨를 뿌려 곡식을 풍성하게 거두는 것처럼 사람과 짐승을 번성케 하겠다는 뜻이다. 어느 정도 열심으로 씨를 뿌리실까?

징계하고 파괴할 때(15:1-9, 18:16, 29:17-18)의 열심으로: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 정도로 철저하게 징계하시던 분이 회복시킬 때도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한다면 하시는 분이시다.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다.

29.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으면서도 자신들이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틀림없이 조상 탓을 했을 것이다. 뭐라고 하면서 조상 탓을 했을까?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말도 안 되는 말인데도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면 더 이상 남의 탓을 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가 시리지 않으니 말이다. 본래 성경에는 연좌제라는 것이 없다(신 24:16). 출 20:5의 '삼 사대'는 연좌제의 의미가 아니라 악의 자연스러운 영향력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가 미치는 천대와 비교해서 이해해야 한다.

30. 새언약을 세우리라고 하신다(31). 언제 맺은 언약을 갱신하려고 하시는가?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곧 출애굽 때 세운 것이다. 구체적인 장면은 출 19장에 있고 세부 내용은 출 20장 이후와 레위기 등이다. 흔히 모세 언약이라고 한다. 이스라엘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언약이다. 예수가 모세의 율법을 파기하려고 한다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던가!

31. 언약을 갱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켰음에도(=남편이 되었어도) 이스라엘이 파기하였기 때문: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주시는 은혜임에도 배반해 버렸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 율법에 매달렸다. 이 율법에 손을 대는 자는 어느 누구도 용서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이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해도 바리새인들은 용납하지 않았다.

32. 새언약은 이전 언약과 비교하면 무엇이 다른가?

계명을 틀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새기겠다(33, 고후 3:3): 율법을 틀이나 책이 아닌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사 11:9).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충분하게 알 것이다(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하는 신인류(고후 5:17).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백성의 탄생을 염두에 둔 새언약이다(눅 22:20).

33.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더라도 징계를 받고 돌이키면 그 언약이 계속 유효한 것 아닌가? 굳이 새언약을 세워야 하는가?

용서하고 그대로 언약을 유지한다면 결국은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다: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예레미야의 때) 역사가 그것을 증명한다. 즉, 처음 언약의 내용 중에는 저주조항이 있었는데(11:3)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조항이 가동되었으므로(11:8)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하셨다(11:14). 모세언약을 통해서 도저히 일을 이룰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롭게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선언이다. 출애굽보다 더 큰 이적,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 일을 완성하시겠다는 선언이다.

34. 36절의 '이 규정이 폐할진대'라는 말과 가장 유사한 속담이 있다면 무엇인가?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해, 달, 별, 파도가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변함없이 제 자리를 지키는 이들이 자기 자리를 떠난다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폐하게 될 것이다. 즉,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는 보증이다.

35. 하늘을 측량할 수 있을까? 땅의 기초는 어디일까?

모른다: 예레미야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당시에는 사람들의 지식이 부족해서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연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오늘날에는 해답을 좀 알게 되지 않았을까? 하늘의 크기는 아직도 모른다. 그냥 무한대일 뿐이다. 땅의 기초는 우주공간? 우주는 여전히 신비에 싸여 있을 뿐이다. 이 비밀을 인간이 알아낼 수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36. 하나넬 망대는 예루살렘 북동쪽 모퉁이에 있었다(느 3:1, 슣 4:10). 그러나 다른 지역명을 알지 못하므로 예루살렘의 재건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그리 실감이 나지 않는다. 상상을 해볼 수밖에!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절저하게 파괴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전복되지 않을 것이란 점: 회복된 이스라엘은 영원히 하나님의 도성이 될 것이다. 이 구절을 오늘의 예루살렘에 적용시킬 필요가 없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다.

37. '날이 이르리니'라는 표현이 후반부에 어디에서 반복되는가?

새 단락이 시작되는 곳 즉, 27, 31, 38: 우리 번역에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나 원문에는 시작하는 첫 머리에 선언하듯이 붙어 있다. '보라, 그 날이 오리니 ...' 하는 식이다. 하나님께서도 몹시 기대하고 있는 특별한 날이 있음을 말한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특별한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도 이 모든 역사의 완성을 기다리는 그 날이 얼마나 감격적일까? 6절에도 있지만 표현이 조금 다르다.

예레미야 32 장

1. 시드기야 10년이라면 어떤 때인지 왕하 25:1-7을 보라.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기 1년 전으로, 느부갓네살에게 포위되어 있는 상태이다(시드기야 9년부터 11년까지) 선지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다. 갇히게 된 구체적인 과정은 37-38장에 있다.

2.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힌 이유는 무엇인가?

바벨론 왕의 손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왕을 바벨론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예언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엄청난 반역인데 왜 죽이지 않고 감금해 두기만 했을까? 네 말대로 되는가 보자는 심사였지!

3.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라는 말은 그 다음의 '눈이 서로 볼 것이며'라는 말과 그 앞의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와 같은 뜻이다. 그러면 이 입은 누구의 입일까?

느부갓네살의 입과 시드기야의 입이다. 나중에 시드기야는 몰래 도망쳤지만 잡혀서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오게 된다. 그 사실에 대한 예언이다.

4. 시드기야가 나의 권고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until I visit him. NKJV)? 돌아온다는 의미가 팔린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돌아오지 못하는데(52:11)?

권고하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파카드'는 '방문하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문하는 것은 '돌보다'는 뜻도 되고 '멸하다'는 뜻도 된다. 이 경우에는 후자의 의미이다.

5. 1절에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

7절: 땅을 사라는 것이다.

6. 예레미야가 왕의 미움을 받아서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그에게 땅을 사라고? 사촌인 하나멜이 이상한 사람인가, 같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이상하신가? 곧 죽을 사람에게 땅을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하지 않은가?

하나멜은 땅을 팔아야 하는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레미야가 죽지 않는다'는 보증인 셈이다. 실제로는 장차 이런 일이 이 땅에 있을 것에 대한 예시다(44). 장차 사람들이 왕성하게 땅을 사고파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다시 융성할 것이라는 암시이다. 은 17세겔이면 그리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은 20에 팔린 것과 비교) 갇혀 있는 주재에 땅을 사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흥미거리였을 것이다. 회복의 메시지가 함께 소문이 나야 하는데(15).

7. 땅을 산 매매증서를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는 것은 무엇을 암시하는 말인가?

일단은 나라가 망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 후에 회복되리라는 것이다.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다시는 땅을 되찾을 수가 없다면 땅을 산 매매증서를 보관할 이유가 없다.

8. 땅을 샀으면 한 톨을 내야지 왜 슬퍼하나(16-17)?

땅을 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땅이 회복되리라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수도가 함락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23-25). 예레미야는 메시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도 깨달을 능력이 있어야 한다. 베드로처럼 환상을 세 번이나 보고도 무슨 뜻인지 뒤늦게야 깨닫는 사람도 있고(행 11:15-17)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행 28:26).

9.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18)?

이 부분은 출 20:5-6, 신 5:9-10과 원어상으로 같은 내용이다. 이 구절을 근거로 성경에 연좌제가 있다는 것은 오해다. 이 구절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부모들의 죄가 지닌 영향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부모의 악물 복음이나 알콜 중독, 잘못된 성생활로 인한 기형아의 탄생이나 그 외의 나쁜 영향력은 보통 3, 4대까지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은혜는 풍성하게, 벌은 아주 조금 흥내만 내리는 것이다. 가령, '이번 시험 잘 치면 상으로 10만원짜리 MP3를 사주고, 못 치면 벌금으로 400원 내라'고 했더니 '아버지는 어떻게 아들한테 벌금을 다 받으려고 해요?' 한다면 참으로 답답한 아들이다. 벌금이 목적이 아니라 공부 잘하라는 말이고 상을 많이 주겠다는 뜻이다. 10만원짜리만 쳐다보면 되지 400원을 뭣 하려 기억하나? 죄는 3, 4대까지 갚고 은혜는 1,000대까지 베푼다는 말씀은 어쩔 수 없이 벌을 준다 해도 벌하기보다는 은혜를 더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뜻이다.

예레미야도 비슷하게 오해했던 모양이다. 현재 겪는 고초의 책임이 상당부분 조상들에게 있다는 인식을 가졌던 모양이다.

10. 예레미야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시므로 보응하시는 분(19): 영악한 머슴이라면 무능하지만 부지런한 주인의 눈은 피할 수 있다. 능력은 있지만 게으른 주인도 적당히 피해갈 수 있지만 능력도 있고 부지런한 주인을 피해서 몰래 영똥한 짓을 하는 것은 어렵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능력도 있고 부지런하신(=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어서 이제는 벌을 피할 수 없다.

11. 예레미야의 탄식 속에서 언급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그 백성 이스라엘이 한 일을 비교해 보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이지만(20-22) 이스라엘이 한 일은 이런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었다(23).

12. 어찌면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다. 25절을 근거로 설명해 보자.

'밭을 사라고 하시더니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느낌이 조금 난다: 유다가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나라를 빼앗기고 사람들이 다 죽는다면 뭣 때문에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나이까?' 하는 당혹스러움이 묻어나는 말이다.

13. 모든 육체의 하나님(27)이란 무슨 사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유다를 바벨론에 붙이면서 이런 표현을 쓰는 의도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유다를 바벨론에 내어주는 것이 아니다. 바로 다음에 '네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와 같은 의미이다.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저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14.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벨론 왕에게 내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상 숭배: 이것이 다른 모든 죄악의 출발점이다.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지금까지(31) 모든 백성들이(32) 그랬다. 부지런히 가르쳤어도 그랬다(33) 그럼에도 지금까지 인내하셨지만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는 선언이다.

15. 다음 구절에 해당하는 왕은 누구일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성전에 다른 신들을 위한 제단을 설치한 왕도 있고 아예 우상을 세운 왕도 있는데?

아하스(왕하 16:11-14)와 므낫세: 아하스가 한번 그런 짓을 하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성전에서 우상을 섬긴 것은 므낫세였다(왕하 21:4-7) 우상을 섬기던 다른 왕들도 하나님의 전에서 우상을 위해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다.

16.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자녀를 몰렉의 불에 지나가게 하는 일(35)의 시발점은 어느 왕이었을까?

솔로몬(왕상 11:1-8): 제발 잘 먹고 잘 살 때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짓을 하지 말자(참고 신 32:15).

17. 이스라엘의 배신행위에 대해서 길게 서술했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핵심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회복(37-44):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겠다. 나도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도 나를 떠나지 않으리라.

18.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38)이라는 말씀도 여기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또 하시겠다는 것은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제일 처음,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하셨을까?

시나이산에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을 때(출 19:4-6): 공식적으로는 그러하지만 개인적인 언약까지 포함한다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최초라고 할 수 있다(창 17:7-8).

19.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시겠다고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한 마음과 한 도에 머물러야 한다. 도대체 누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일까? 교회라고 하려니 교회는 한 마음이 아니던데?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회(교회)를 믿사오며'라는 부분이 이것이다. 교회는 하나다. 수많은 파가 있고 지교회가 있더라도 교회는 하나다. 한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하는 각각의 지체가 있어서 달라 보일지라도 하나다. 같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는 하나다.

20. 다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하신다(40). 이 말씀도 여기서 처음이 아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 이전과 다른 무슨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다면 다시 또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 출애굽 때의 무수한 이적도, 가나안 전쟁과 사사시대의 수많은 구원도 결국은 소용이 없었는데?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40): 형식과 외형에 치중하던 종교에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셈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행동으로 행하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참으로 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

21. 재앙을 내린 것 같이 복을 내리리라? 재앙이 어떻게 내렸는데?

철저하게: 모양은 반대지만 양상은 같다. 즉 범죄하면 반드시 뿔힐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응한 것처럼 이들을 다시 심으리라는 약속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점이 동일하다. 바울의 회심처럼 열심은 변하지 않고 목표만 바뀌듯이.

22. 이스라엘의 지형은 대체로 산지, 평지, 남방으로 구분한다(수 12:8). 여기서도 대체로 비슷하지만 유독 베냐민 땅이 등장하는 이유는 뭘까? 예루살렘이나 유다 땅은 중심지니까 그렇다 치고.

회복될 땅의 상징으로 예레미야가 산 땅이 베냐민 땅이다(7). 예레미야의 고향이기도 하다(1:1).

23.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는 일이 뭐 그리 큰 일이라고?

땅을 팔려고 내놓아도 살 사람이 없다면? 아무리 땅이 많아도 거지다.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경제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이다. 예레미야가 땅을 산 것이 바로 훗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시이다.

예레미야 33 장

1. 시위대란 근위대, 요즈음 식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부대이다. 부대 내에 감금되었다는 말인데 일종의 금고, 혹은 연금 상태에 있었던 모양이다. 성 밖에는 바벨론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선지자가 왜 시위대 뜰에 갇혔지?

32:3-5: 바벨론 왕의 손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왕을 바벨론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이다. 이교 엄청난 반역인데 왜 죽이지 않고 감금해 두기만 했을까? 네 말대로 되는가 보자는 심사했지!

2. 1절의 '아직, 다시'라는 표현은 무슨 내용과 관련이 있는가? 언제 또 있었는데?

32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 32장에서 갇혔는데 아직 갇혀 있다는 말이고, 32장에서 여호와와 말씀을 받았는데 또 다시 받았다는 말이다.

3.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하나님의 이름이 특별하게 길게 나열된 것은 그만큼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 무슨 의도로 하나님을 가리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2)라고 하는 걸까?

한다면 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일을 행하는'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만들다'라는 뜻으로 쓰인 단어고(창 1:7, 11, 12, 16, 25, 26, 31) '짓다'라는 단어도 같은 의미로 천지창조 때 사용된 단어다(창 2:7, 8, 19). 그래서 어떤 역본은 이 이름을 '창조주 여호와'라고 번역하기도 했다. 여호와란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의미이다(출 3:14). 그래서 종합하면 한번 말씀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4. 부르짖으면 보여주려고 하는 크고 비밀한 일은 무엇일까? 이스라엘의 멸망(4-5)? 그건 이미 여러 번 말했으므로 비밀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회복(6-26)? 그것도 이미 여러 번 말했던 것 같은데?

회복의 메시지 가운데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것이 어떻게 본문에 나타나 있는가? (아래 질문을 참고할 것)

5. 적군을 막기 위해서 왕궁을 헐다니?

깨어진 돌을 무기 대응으로 쓰려고 그랬겠지: 데모하는 사람들이 던질 돌이 없자 보드블럭을 깨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도 소용없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악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5).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려버리면 백약이 무효다!

6. 도대체 징계를 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회복을 말하는 것인가?

짧은 징계(4-5) 후에 회복(6-26) 시키겠다는 말이다: 현재는 어쩔 수 없이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 후에 회복될 것이다. 회복에 대한 본문이 훨씬 길다. 조만간 함락될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말라는 것이다. 어쩌면 최후의 회개를 촉구하는지도 모른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선지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놓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 말씀의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

7.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

풍부함(6): 처음과 같이, 대적들이 두려워 떨만큼 풍성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손이 크신 분이시다. 상상 이상의 복(예사야를 통한 인류의 회복)이 주어진다(15-18).

8. 이스라엘은 벌써 망해버렸는데 돌아오게 한다고? 처음이란(7, 11) 언제?

국가로서 이스라엘은 형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당연히 돌아올 일도 없다. 이스라엘과 유다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해야 한다. 계속되는 회복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사야를 통한 구원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처음'이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심은 것을 가리킨다. 유다의 귀환이 제 2의 출애굽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낸 것은 제 3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9. 이스라엘과 유다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죄를 사하는 것(죄악에서 정하게 하는 것): 이스라엘이 끔찍한 징계를 받게 된 근본 원인은 죄이다. 이제 회복시키실 때에는 죄를 용서하는 수밖에 없다. 치료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죄함이 전제된 행동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 단계는 회개이다. 거기에 필요한 제물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다.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다. 이 감격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출발점인 것도 기억해야 한다. 탄생일뿐이다. 자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10. 세계열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왜 두려워하며 떨게 될까?

이스라엘의 복이 자신에게 화가 되는 사람들의 얘기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보디발의 아내 꼴 아닐까? 예루살렘의 회복이 단순한 이스라엘만의 얘기가 아니라 세계적인 축복과 심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날에는 복에 참여하든지 심판에 참여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11. 예루살렘의 현재 모습은 적군에게 포위되어 갇힌 버티고 있다. 조금 후면 어떻게 될까?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먼 훗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 어떻게 될까?

5 10a 106(7-9): 시체로 가득함(5) 사람이 없음(10a = 10) 사람이 와글와글함(106=11, 7-9). 우리나라 시골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슬픈 일이다.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노는 소리는 평화와 번영의 소리이다. 이스라엘 땅에는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소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이다. 10-11절을 가르기가 좀 어렵나?

1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목자의 거할 곳도 있을 것이란다. 목자의 거할 곳이 그렇게 중요한

가?

양떼가 많아질 것이라는 의미이다: 좋은 항구를 만들어두지 않으면 배가 들어오지 않는다. 아무리 많은 고기를 잡아도 좋은 항구가 가까이 있어야 어업이 활성화 된다. 목자의 거처가 있다는 것은 많은 목자들이 몰려든다는 말이고, 따라서 짐승의 떼가 풍부해질 것이라는 말이다. 계수하는 자가 헤아려 보고 양이 없음을 알게 되면 찾아 나서게 된다. 목자의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은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다.

13. 이제 백성이 회복되고(10=11), 짐승들도 회복된다(12-13). 아직 더 회복되어야 할 것이 남아 있는가?

왕과 제사장의 회복(14-18): 다른 나라의 얘기라면 왕의 회복만 얘기할 텐데 이스라엘에게는 제사장의 회복도 필수적이다. 유능한 왕이 없으면 백성들의 안녕을 보장할 수 없다.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는다. 이 두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한다.

14. 다윗의 집안이 망하지 않았나(17)? 실제 역사에서 왕권은 예돔으로(헤롯) 넘어갔는데?

메시아의 탄생을 말하는 것이다. 의로운 가지란 정의로운 왕을 가리킨다.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이스라엘의 왕은 메시아를 가리킨다.

15. 의로운 가지는 정의로운 통치자에 대한 비유이다. 통치자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평과 정의: 통치자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다. 메시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예외가 아니다(사 9:7).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이것이다(사 5:7).

16.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경우가 많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래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역할에 적절한 이름이나 기념할만한 이름으로 바꾸어주셨다. '평화의 기초(터)'라고 불리던 예루살렘이 어떻게 부를 거라고?

여호와 우리의 의(16, 여호와 께드케누): 23:6절에서 이 명칭은 메시아에게 주어졌던 이름이다. 여기서는 예루살렘의 새 이름이다. 우리를 의롭게 하실 이는 여호와시다라는 고백이다. 그 때에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게 될 것이다.

17. 이스라엘 집 위(位)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은 확실하다(21). 어느 정도로?

낮과 밤이 쉬지 않을 만큼(25, 창 8:22) 천지의 규례가 변함없을 만큼(25):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해가 서쪽에서 뜨다면' 하는 셈이다(31:35-37 참조). 역으로 생각해서 낮과 밤의 질서가 파괴되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파괴되는 셈이다. 노아 홍수 시절에 주야로 비가 쏟아지던 때를 생각해 보라. 밤낮의 구분이 없던 시절이다. 그 후에 다시는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것은 밤낮의 구분이 없는 자체가 바로 심판과 저주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8. 하나님께서 다윗과 레위인 제사장에게 무슨 언약을 언제 맺으셨는가?(21)

다윗과 맺은 언약은 삼하 7:8-16, 레위인 제사장과는 민 25:10-13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공통점은 후손이 그 역할을 대대로 이어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왕과 제사장의 역할이 온전하게, 영원히 완성되는 것에 대한 언약으로 이해한다.

19. 다윗의 후손과 레위인을 번성케 하시는 이유는?

왕이 든든해야 국가가 든든하게 서고, 레위인이 든든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 짐이 국가라고 했는가? 그런 측면이 없지 않다. 오늘날도 목사가 제대로 역할을 잘해야 성도들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기가 쉽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많이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하다.

20. 다음 구절(26)만 따로 떼어 읽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렘 33:26)'

이렇게 읽으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앞뒤가 맞지도 않는다. 앞 문장은 조건을 말하는 25절에 붙여야 하고, 뒷부분은 차라리 다른 절로 떼어내야 한다. 누가 이 따위로 절을 나누었나?

21. 오래 전에 사마리아는 함락되었고(BC 722), 10년쯤 전에 유다도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다(BC 597). 이제 예루살렘은 함락되기 직전이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지 2년째이다. 이럴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지 25-26절을 근거로 생각해 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그 후에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모양이다.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사 49:14-15, 50:1, 51:13에 잘 나타나 있다.

22. 본장도 32장과 마찬가지로 회복에 대한 내용이다. 33장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회복 이전과 이후: 32장에서는 회복 이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33장에서는 회복된 이후의 풍요로운 삶과 그 삶이 영원할 것에 강조점이 있다.

예레미야 34 장

1. 예루살렘을 치는 느부갓네살의 군대는 연합군인가?
 연합군이란 대등한 나라들끼리의 연합일 때 사용하는 말이다. 여기서는 느부갓네살에게 점령된 나라에서 차출되거나, 파괴된 군대란 의미이다. 이런 군대를 무엇이라고 부르지? 직할대(중주국)와 외인부대(봉신국)
2. 이전에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다(21:4-7, 32:3-5). 이전과 비교하면 여기서 달라진 점은?
불태워질 것이라는 점: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린다는 뜻이다.
3. 적군이 쳐들어 왔을 때 임한 하나님의 계시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내용이어야 말이 되는 것 아닐까? 실제로 시드기야는 사로잡혀 눈앞에서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고 눈이 뽀뽀한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왕하 25:7). 여기서 선지자가 전한 말과 내용이 같은가?
 칼에 죽지 않고 백성들의 애도 속에 평안히 죽을 것이라는 말씀과 부분적으로 일치하기는 하지만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 아마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이라는 단서가 붙은 계시라고 본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다가 이런 변을 당한 것이다.
4. 시드기야의 입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눈을 보고 싶지 않다.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하고 싶지도 않다. 반면에 느부갓네살은 꼭 봐야겠다는 것이다. 느부갓네살은 왜 군대를 다 끌고 와서 싫다는 짓을 강요하는가?
 시드기야가 충성명세를 어겼기 때문이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충성하기로 서약하고 왕이 되었다(대하 36:10). 예레미야의 끈질긴 권유에도 9년 만에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신해버렸다(대하 36:13). 애굽을 믿고 일을 벌였지만(겔 17:15)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포위되었고(왕하 25:1, 렘 39:1, 52:4, 겔 24:1-2) 끝까지 버티다가 11년 4월 9일에 시드기야는 성을 빠져나와 도망하였다(왕하 25:2-3, 렘 39:2, 52:5-7)가 사로잡혔고, 5월 7일(BC 586. 8. 14)에 성이 무너졌고, 성전은 불탔다(왕하 25:8-10).
5. 느부갓네살의 이번 침공은 세 번째이다. 그러니 유다에 성읍다운 성읍은 남아 있지 않다. 겨우 남아 있는 성읍이라곤?
라기스, 아세가, 예루살렘뿐이다: 이렇게 허약한 상태에서 왜 배신을 하나?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사실은 애굽을 의지하다가 이런 변을 당한 것이다. <히스기야 때 산헤립의 라기스 함락 전투는 유명하다. 산헤립이 거대한 벽화로 남겼기 때문이다>
6. 왕이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것은 모든 동쪽 노비를 풀어주기로 언약한 것이다. 전쟁통에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난국을 맞이하여 일치된 힘을 모으기 위함 아닐까? 동쪽을 노비로 삼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노비에서 해방시켜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케 한다가나.
7. 노비를 풀어주었다가 왜 또 다시 잡아들이는가(11)?
 대답하니 왕의 언약에 참가하여 언약을 맺었다.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나갔다. 그러다가 일단 바벨론 군대가 잠정적으로 철수하자(22) 마음이 변하였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것이다. 언약을 어긴 일이 한두 번이라야지(11:10, 22:9, 31:32)!
8.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동쪽을 종으로 삼지 말라(출 21:2-6, 신 15:12-18)고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종 되었던 집에서 구해다 놓았는데 너희가 또 종으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허사로만 드는 고약한 짓이다.
9. 단순하게 노비를 해방한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언약을 세우고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행한 일이었다(15).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아니함만 못한 일이 되고 말았다. 왜?
 금방 태도가 풀변하여 다시 노비를 잡아들이는 것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행위이기 전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순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10.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고도 실행치 않은 벌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한다?(17)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이게 어떤 자유인가?
칼과 염병과 기근에 불리는 자유: 다른 말로 하면 세계 열방에 흩어질 자유. 기차가 철로를 벗어날 수 있는 자유, 봉어가 어항에서 뛰쳐나갈 자유와 같은 것이다. 모든 보호막을 제거해 줄 테니 마음껏 돌아보라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버리는 것이다.
11.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언약을 어기면 이 송아지처럼 쪼개져도 좋다는 맹세이다.
12.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3년 동안 포위 공격을 했다.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포위되었고(왕하 25:1, 렘 39:1, 52:4, 겔 24:1-2), 끝까지 버티다가 11년 5월 7일(BC 586. 왕하 25:8)에 성이 무너졌다. 철수했다는 말은 없던데?
아마 잠시 포위를 풀었던 모양이다: (렘 37:5)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드디어 이겼나? 그래서 마음이 달라졌던 모양이다.

예레미야 35 장

1. 여호야김 때라면, 패망 직전의 상황에서 십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얘기다. 느부갓네살의 1차 침공은 BC 605년(여호야김 4년), 2차 침공은 BC 597년(여호야김 11년)이다. 애굽에, 바벨론에 휘둘리던 시절이다(11). 이런 어려운 시절에 본 장에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17)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모양이다. 먹고 살기 바쁘게 하나님부터? '바벨수록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되다.

2. 왜 성전의 방으로 데려와서 포도주를 먹이려고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도 장소 선정이 중요하다: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목이 좋은 장소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극적인 메시지를 전하기에 가장 좋은 곳 아닐까? '유목민인 레갑 족속들이 왜 성전으로 몰려가지?' 이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을 수도 있겠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 제사장들이 친히 이런 장면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3.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레갑 족속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명하셨다(2). 예레미야는 임무를 완수했는가?

못했다? 못 먹었으니까!(6). 그러면 누가 벌을 받아야 하나? 강제로라도 먹여야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더러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여차피 이들에게 포도주를 먹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조상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목표였으므로 책망보다는 칭찬을 받을 뿐이다(19).

4. 레갑의 후손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조상의 말씀 중 어느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가?

자기 조상의 말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올바른 조상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다.

5. 레갑의 아들 요나단(여호나답)은 왜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고 당부했을까(6-7)? 왕하 10:15-24을 참고로 생각해 보자.

바알 숭배에 물들지 않고 여호와만 섬기게 하려는 의도: 예후가 등장하는 시기는 대체로 BC 840년경이다. 그러니까 요나답 이후 2세기 반 동안 조상의 명령을 충실하게 지켜왔다는 말이다.

6. 포도주를 안 먹는 거야 이해할 수 있지만 집도 안 짓고, 파종도 않으면 어떻게 사나?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는 것이 술을 안 먹는다는 뜻과 전혀 다르다.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다 포기하는 것과 같다. 예컨대 우리 아이들에게 휴대폰, 컴퓨터, TV, MP3 없이 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할 것이다. 이생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뿐 아니라 재물에 대한 욕심마저 갖지 못하도록 하였다. 유목민으로 살라는 것이다. 레갑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으로 아마도 갈렙의 딸과 결혼하여 갈렙 족속으로(유다 지파)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대상 2:55).

7. 레갑의 후손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기에 거하고 있다'고 말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아직도 조상의 유훈을 지키고 살고 있다: 지금도 잠시 적의 위협을 피해서 들어왔을 뿐 조상의 유훈을 어길 마음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8. 하나님께서 부러워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명한 것을 그 후손들은 잘 지키고 있는 것(14a, 16): 요나답의 말을 후손들이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내가 명한 것을 이스라엘은 듣지도 않고 있으니...

9. 레갑 족속과 이스라엘이 어떤 점에서 대조적인가?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점. 단 한 번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지만 듣지 않은 것. 죽은 지 오래된 선조의 말에 순종하는 것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단순하고 경건한 삶과 정착해서 세상 재미를 누리며 사는 삶. 성전의 한 방(혹 몇 개의 방이라 할지라도)에 다 들어갈 정도라면(3) 아주 소수의 무리다. 레갑 족속의 순종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의 악함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10. 레갑 족속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길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19): '내 앞에 설 사람'이란 표현은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 사용된 표현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에게 이런 특권을 부여하실 것이란 말이다. 훗날 언약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다. 오늘 우리는 신레갑 족이다. 실제로 레갑 족속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분명치 않다. 레위 지파를 도와서 성전에서 일한 것은 틀림없다(스 3:14).

예레미야 36 장

1. 여호야김 4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 해이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의 요지가 무엇이며 여호야김이 왜 극도로 듣기 싫어했는지 여호야김 4년과 관련지어 보자.

바벨론이 애굽 군대를 격파하고 시리아, 팔레스틴을 공략하던 해이며 1차로 유다를 침공한 해이다(BC 605) 여호야김은 애굽 왕이 세운 친애굽파 왕이다. 예레미야의 메시지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징계할 것이라는 내용이 주류였을 것이다.

2.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을 다른 말로 하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날부터(네가 사역을 시작하던 날부터)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임하였다(1:2).

3.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

일단은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5) 바룩이 대신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기록되어야 한다. 바벨론의 침공이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후대에까지 전해지도록 하려면 기록해야 한다. 말로 전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오늘날까지 성경이 전해진 결과를 생각해 보라. 모세가 백성들을 40년 이끈 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은 오경을 기록한 것이며 바울이 행한 가장 큰 사역은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 초대교회들이 다 사라져도 그가 기록한 글이 남아서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지 않은가!

4. 유다 쪽속이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하다고(3) 하나님도 속는 거야?

회개하기를 인내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 백성들은 그럴 것 같은데(7) 왕이 요지부동이다. 그래서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특히 목사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5. 바룩이 기록한 책의 저자는 누구인가(4)?

하나님은 저자(2, 4 이르신), 예레미야는 전달자(구전대로), 바룩은 대필자(기록하니라) 성경은 비록 사람의 입을 빌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더라도 하나님의 관섭(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 때문에 저자는 하나님이다. 믿고 들어가 보면 그것이 확실하다는 체험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믿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책이기도 하다.

6. 예레미야가 감금을 당하였는데(6) 어떻게 숨을 수 있는가(19, 26)? '감금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재지, 혹은 억제하다'는 의미도 있다.

여기서 감금이란 말은 '여호와와 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6) 일종의 연금 상태거나 성전 출입금지를 당했거나.

7.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으므로 바룩을 시켜서 비밀리에 백성들에게 들려주어야 한다면 어느 때에, 어디가 가장 좋을까?

금식일에 여호와와 의 집에서: 금식일이 어떤 금식일인지 알 수는 없지만 가장 많은 백성들이 한 곳에 모이는 날이고 들으려는 자세가 된 날과 장소이다. 어쩌면 바벨론의 침공이 임박한 상태에서 특별 금식을 선포한 것은 아닐까? 어쨌든 다른 서기관들과 방백들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가장 유리한 날과 장소임에 틀림없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때와 장소를 잘 선택할 필요가 있다.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는데(딤후 4:2) 다른 말인가? 핵심이 다를 뿐 같은 말이다. 바울의 말은 '노력하라'는 뜻이다.

8.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와 분이 크다(7). 회개할 듯하니깐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이때는 외적의 침입이 임박한 시점이다. 백성들, 사관, 방백, 왕의 태도를 비교해 보자.

백성들의 반응은 나타나있지 않다. 앞장의 레갑 쪽속과 대조적이다. 사관이나 방백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왕이 완전히 무시해버렸다. 선지자의 말보다 왕이 말이 더 세다. 결국은 회개하지 않은 셈이다. 왕의 회개가 이래서 중요하다. 사관이나 방백들이 예레미야와 바룩의 생명을 염려하여 숨으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긍한 것은 틀림없다. 그럼에도 왕에게 보고하고 왕의 명령에 따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받아들이면서 행동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입으로는 시인하면서도 행동으로 시인하지 않는 성도와 같다. 8절과 10절의 관계는 분명치 않다.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인지, 아니면 바룩이 여러 번 낭독했는지.

9. 바룩이 어디서 예레미야의 말을 낭독하여 모든 백성에게 들리게 했는가?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라의 방에서: 방에서 책을 낭독하는데 어떻게 모든 백성이 들을 수 있는가? 그 방이 여호와와 의 집 윗 뜰과 바로 이어져 있어서 뜰에(여호와와 의 집 새 문 어귀에, 26:10) 모여 있는 백성들을 내려다보며 낭독할 수 있는 좋은 위치였기 때문이다. 참고로 사반은 요시야 시대에 힐기야가 성전에서 두루마리를 발견하여 왕에게 읽어주었던 서기관이다(왕하 22:10).

10. 서기관의 방이 왕궁에도 있고, 성전에도 있네. 어느 방이 더 컸을까?

아마 왕궁의 방(서기관 엘리사마의 방: 아마도 수석 서기관인가보다, 20) 성전 서기관의 방 주변에는 백성만 있었고, 왕궁 서기관의 방에는 모든 서기관과 방백들이 있었다. 왕궁의 방이 급수가 높네! 서기관의 역할이 종교적인 것도 있고 행정적인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아무래도 행정적인 측면이 더 강했던 모양이다.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사관)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나보다. 서기관인 그마라는 왕궁 서기관의 방에 있고, 아들인 미가야가 성전 서기관의 방을 지키고 있었다. 미가야는 서기 보조였을까?

11. 하나님의 말씀이 왕에게까지 전해지는 과정을 정리해 보자.

예레미야의 구술 바룩의 기록 성전에서 낭독(바룩) 미가야의 전달 이후디 파견 왕궁 서기관의 방에서 낭독(바룩) 왕 앞에서 낭독(여후디) 이 과정에 관계된 모두가 우호적이었다. 유일하게 왕만 악한 셈이다.

12. 방백들의 질문이 이상하지 않은가? 어떻게 기록하다니? 볼펜으로 썼을까? 당연히 먹으로 기록하지? 바룩의 대답 중에 '그가 그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베풀기'가 중요하다. 방백들의 질문의 요지는 '이것이 정말 예레미야의 입을 빌린 하나님의 말씀이냐?'라는 것이다.
13. 구월인데 왜 그렇게 추울까?
우리 양력과는 3달 정도 차이가 있다. 11월이나 12월정도 되었을 것이다.
14. 여호야김 왕은 여러모로 부친 요시야(왕하 22:11-20)와 대비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취한 두 왕의 태도를 비교해 보자.
요시야: 곧 옷을 찢고(왕하 22:1),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왕하 22:19). 재앙을 눈으로 보지 못했다.
여호야김: 읽는 족족 칼로 베어 태워버렸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다. 신하들이 말려도 듣지 않았다. 왜 이럴까? 어떻게 이렇게 악해질 수 있는 걸까? 왕이라고?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자가 아닌데, 어디서 이런 못된 짓만 배웠을까? 아버지는 드물게 선한 왕이었지만 자식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나? 아이고, 머리아!
15. 유다 왕 여호야김이 두루마리를 불사른 이유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어느 말이 마음에 들지 않은 탓인가(29)?
바벨론 왕이 정녕히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애지게 하리라(29) 여호야김은 애굽의 바로노고가 왕으로 세웠다. 바로에게 많은 공물을 바치고 있었다(왕하 23장). 그러면서도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을 거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뿐더러 정치적으로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다.
16. 여호야김의 후손은 어떻게 되나?
 여호야김이 왕위를 물려받지만 석 달 만에 포로로 잡혀간다. 결국은 다윗의 위가 끊어진다(=유다의 멸망). 그러나 영적으로는 다윗의 위가 여호야김을 통해서 예수께로 이어져 간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훈이다. 여호야김에 대한 공훈이 아니라 택하신 자기 백성에 대한 공훈이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려는 것이다.
17. 화로가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불에 태우던 여호야김의 말로는 어떤 모습인가?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30) 하나님 없이 큰소리치는 모습과 그 처참한 결과가 잘 대비된다. 그러나 여호야김의 마지막을 언급한 세 구절(대하 36:6-12, 왕하 24:6, 렘 22:19)이 제각각이어서 정확한 모습을 알기 어렵다. 22장의 11번의 참고하세요.
18. 교회 역사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없애버리려는 시도는 적잖게 있었다. 기록해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보존하는 것도 하나님과 상관이 있을까?
28절: 당연히 보존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깨뜨렸을 때도 다시 기록하여 주셨던 분이시다.
19. 예레미야서는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 왜 그럴까?
 처음에 기록했던 것은 여호야김 왕이 태워버렸고, 두 번째 다시 기록하면서 이런 저런 내용을 더 추가하다보니? 설마? 아마도 주제별인가?

예레미야 37 장

1. 36장은 여호야김 4년, 5년의 일이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는 것은 많은 시간이 지나갔음을 의미한다. 대략 몇 년 뒤의 일일까?

약 6년 후: 여호야김의 재위기간은 11년이고, 그 아들 고니야(여호야김)는 3개월이다.

2. 왜 바벨론 왕이 유다의 왕을 결정하는가?

바벨론이 침략해서 유다를 굴복시켰기 때문이다. 바벨론의 2차 침입이다. 표면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2).

3. 시드기야가 왕이 된 것은 2차 침입 때의 일이다. 그런데 또 바벨론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다면 3차 침입을 말하는가? 11년의 간격이 있는데? 21장과 관련이 있으므로 선후관계를 생각해 보자.

같은 시기의 일이지만 본문이 먼저다. 21장에는 예레미야가 갇혀 있었으나 여기서는 갇히기 전의 일이다. 스바냐는 후일 포로로 잡혀 가서 편지를 보낸다(29:24-32).

4.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철수하는 때에 왕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바벨론에 대항하는 자신의 소신이 성공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 셈이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승리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5. 왕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더니 대답은?

바로의 군대는 돌아가고 **바벨론** 군대는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멸할 것이다(7-9) 선지자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야 하는 것 아닌가? 심판의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때가 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

6. 적군과 싸워서 아군은 멀쩡하고 적군은 부상자만 남았다. 다 이긴 것 아냐? 그래도 못 이긴단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유다는 반드시 망하고 만다는 과장법이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유다는 반드시 망한다는 말이다.

7.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난 일을 뭐 하러 두 번이나(5, 11) 기록하였을까?

5절은 이렇게 희망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것은 희망이 아닌란 뜻이고, 11절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 베냐민 땅으로 갈 수 있었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다.

8. 예레미야는 선지자였지만 대접은 받지 못했다. 문지기마저 우습게 여기고 그를 끌고 갔으며 그 말을 들은 방백들은 가두어버렸다.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푸대접을 받는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씀을 전했다기 때문이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사람의 귀에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9. 시드기야는 유다 최후의 왕이다.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세워졌으니 그리 힘이 있는 왕도 아니었다. 끝내는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망하고 말았는데 그가 이렇게 악한 왕이 된 원인을 본문에서 찾는다면?

신하들의 눈치를 보느라고(17절의 비밀히)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친애급파의 말을 듣다가 대의를 그르치고 말았다.

10. 선지자는 언제나 당당해야 하지 않을까?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청을 해야 하나(20)?

죽음을 무릅쓰고 말씀을 전하기는 하지만 굳이 죽자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담대해졌을 뿐이다. 이런 연약함에도 끝내 도망치지 않고 민족과 함께 고난 받은 위대한 선지자다.

11.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19)라고 묻는 의도는 무엇인가?

죽으려면 그들을 죽여야 한다: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밝혀졌으므로 율법에 따라 거짓 선지자는 죽여야 한다(신 13:1-5)는 말이다.

예레미야 38 장

1. 적군이 침입하여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위대 뜰에 갇힌 선지자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해야 한다(2, 21:9). 친애굽파들이 정권을 잡고 바벨론과 대항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유다에 대한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데 버티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나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는 반역죄인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끝까지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자고 주장하는 것과 항복하자고 말하는 것 중에는 어느 것이 쉬울까?
2. 방백들이 보기에는 예레미야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4). 무조건하고 민족의 평안을 비는 것만이 백성을 위하는 일인가?
 일반적인 기도는 그렇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기도는 반드시 그렇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만 그렇다. 바벨론의 침입이 하나님의 징계인데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거나 적군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소용없는 짓이다.
3. 방백들의 요구에 대해서 왕의 대답(5)은 너무나 허약하다. 시드기야 왕이 왜 이 모양인가?
 여호야킨이 포로로 잡혀가고 난 뒤에 바벨론 왕이 세운 왕이다. 정통성도 없을 터이고, 능력도 없었을 것이다.
4. 옥이 이상하다. 줄로 달아서 내렸다가 줄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아서 사람이 들락거릴 수 있는 곳은 아니다. 물이 없는 진흙구멍이었다는 것은 어떨 때는 물이 있는 곳이라는 말도 된다. 그렇다면 원래 용도는 무엇이 있었을까?
물을 저장하는 물탱크: 예루살렘은 산꼭대기에 세운 성읍이다. 물을 저장하는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겨울비가 내릴 때 받아서 저장하는 시설이 곳곳에 있었다고 한다. 속은 넓지만 물을 길어올릴 구멍은 좁았다. 물은 없어도 바닥은 진흙, 즉 별 같았을 것이다.
5. 왕이 왜 문에 앉았나?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재판을 위시한 업무를 보고 있었다는 뜻이다.
6. 왕이 이렇게 지조가 없나? 에벳멜렉의 말은 왜 이렇게 잘 들을까?
 방백들의 요구에는 억지로 동의했지만 후회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에벳멜렉의 말을 듣고 용기를 냈을 것이다. 군사를 30명이나 데리고 가라는 것은 어쩌면 방백들과 한 판 승부를 염두에 둔 것 아닐까? 갑자기 이렇게 단호해지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데...
7. ‘털끝만큼(=一毫)도 속이지 말라’고 하는 왕의 말은 별로 권위가 없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는 셈인가?
듣지도 않으면서(15): 원래 별 힘도 없는 사람이 말은 세계 하는 법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하나님보다 방백들을, 또 갈대아인들에게 항복한 유다인들(19)을 더 무서워한 것이다. 그것이 이렇게 나약한 왕이 된 원인이다.
8.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는 분명한데 왜 또 묻는가(14, 16)? 말씀대로 실천할 용기도 없으면서?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 이전의 메시지는 방백들 때문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혹시 하나님께서 뜻을 좀 바꾸시지 않을까? 예라, 이...
9. 시드기야의 맹세(16)는 믿을 수 없다. 왜?
 하나님보다 방백을 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밀스럽게 하는 맹세를 어떻게 믿나? 차라리 방백들의 이름으로 한다면 더 신빙성이 있을까? 오래 살 능력도 없으면서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노라’고 맹세하는 거나 비슷하다. 그래도 말은 그렇게 해야 하는 거지? 불쌍한 인생이다! 예레미야가 그 맹세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니다.
10. 결국 시드기야는 왕궁의 여자들(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궁녀들)에게서조차 조롱을 받을 것이다. 이 여자들이 무엇이라고 조롱할까?
친구들에게 속아서 진흙 구멍이에 빠진 머저리(22): 일종의 배신이기도 하다. 친구들의 꼬임에 빠져 진흙 구멍이에 빠지자 친구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 아마도 멍청한 사람을 조롱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었을지 모른다.
11. 예레미야에게 왕과 주고받은 말을 방백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의도는 무엇인가?
 예레미야의 말을 인정하면서도 방백들이 두려운 탓이다.
12. 나약한 왕의 말을 듣고 비밀을 지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왕: 왕이 뭐라고 하고 사실대로 말해야 되는 것 아닌가? 바벨론에 항복하든 끝까지 버티든 그것은 왕의 일이다. 예레미야가 나서서 결정해야 할 일이 아니란 점에서 왕의 말을 들어줄 필요는 있다.

예레미야 39~41 장

1. 바벨론에 포위된 채로 얼마나 버텼는가?
1년 반 동안: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예레미야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시위대에 갇혀 있었다. 유다의 시월을 양력으로 하면 1월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BC 588년 1월에 포위되어서 BC 586년 7월에 함락되었다.
2. 포위되어 있어도 도망갈 길(두 담 셋문)은 있었던 모양이다. 몰래 군사들을 거느린 채 빠져나갔으니 말이다. 아라바가 어디인지 알 수 있는 표현이 있는가?
여리고 근처인 모양이다: 아라바는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 계곡을 따라 사해를 지나 아카바 만에 이르는 저지대를 가리킨다. 꽤 넓은 지역을 가리키지만 시드기야는 아마도 여리고쪽으로 도망을 갔던 모양이다.
3. 예레미야가 그만큼 항복하라고 권해도 끝끝내 말을 듣지 않더니 시드기야는 어떻게 되었는가?
 사식들의 처형을 목도하고 자신도 눈이 뵘히고 말았다. 사술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다윗의 족보에 들지도 못했다. 이렇게 처참하게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했다.
4. 유다의 멸망을 오히려 기뻐한 사람들이 있었을까?
 포도원과 밭을 얻은 사람들 아닐까?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보다 민족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기뻐할 수 없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나라가 망하기를 바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도록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미래가 없다.
5.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어떻게 먼 외국으로 포로로 잡혀 가나(9)?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힘이 없으면 잡혀가야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공부를 안 해도 성적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아무렇게나 가게만 차리면 손님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잘못이다.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말이다.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무시하고 끝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다른 방법으로 회복시키실지라도 징계할 때는 징계하시는 분이시다.
6.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에게 왜 호의를 베푸는가?
 포위되어 있는 동안 적의 동태를 아는 것은 전쟁의 기본이다. 어떤 경로를 통했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아는 탓이다.
7. 에벳멜렉은 왜 이런 호의를 입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다(18).
8. 에벳멜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있었던 얘기다. 그러면 38장 어딘가에 기록하는 것이 옳을 텐데 왜 여기다 기록했을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이런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 같다. 시드기야의 비극과 대조적으로 예레미야와 에벳멜렉이 구원받는 장면이 상세하게 기록된 것이 그런 이유인 것 같다.

[40 장]

9.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따라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집으로 돌아가게 했는데(39:11-14), 여기서 예레미야가 사술로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가다가 라마에서 석방되었다고 한다. 말이 서로 다르지?
 39장의 얘기는 중간의 세세한 과정을 생략한 표현이고, 여기서 자세하게 기록한 뜻이다. 큰 줄거리(5-6)만 맞춰보면 그다지 틀리지 않는다. 혹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다. 석방시켰는데 병사들이 실수로 또 잡아들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10. 1절에서 입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없다: 시위대장이 예레미야에게 말한 것과 행한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가? 소위 '행위 계시'인가? 여전히 유다에 남아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의미 아닐까?
11. 바벨론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셈이다.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 그런데 바벨론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비극이다. 어떻게 들어야 할 자기 백성은 듣지 않고, 들을 필요도 없는 적군은 자세히 듣고 즐거워할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를 때 귀신들이 알아보고 큰소리치는 것과 비슷할까?
12.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과 남은 동족들과 함께 백성 중에 거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좋을까?
 남아 있는 것이 좋을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인다. 더 고생일 것 같다. 차라리 잘 대우해주는(4절의 '선대'는 귀인으로 대접하다는 뜻) 바벨론이 낫지 않을까? 바벨론의 선대를 거부함으로써 예레미야가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 셈이다.
13. 웬 군대장관이 들에 있지?
 바벨론의 군대를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도망간 군대장관들이다. 말하자면 유격대장? 몽고에 대항하여 끝까지 항복을 거부한 삼별초 같은 군대다. 이들의 이름을 자세하게 언급하는 것은 나중에 사고치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다랴를 암살해서 결과적으로 유다의 씨를 말려버린 자(이스마엘)가 있기 때문이다.
14. 그다랴가 임시 수도로 삼은 곳이 어디인가?
미스바(6, 8, 10):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에 타버렸기 때문이다.

15. 포도주와 여름 실과는 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왔다는 뜻이다.

16. 가례아의 아들 요하난이 염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간신히 유다 민족이 명맥을 이어가는 것마저 끊어지는 것(15c)

17. 그다랴는 왜 요하난의 말을 믿지 않았을까?

알 수 없다: 이제 겨우 흩어진 사람들을 모아서 수습을 하는 마당에 사람을 믿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때에 피를 흘리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착한 사람이 이런 방면에는 무능(?)하다.

[41 장]

18. 이스마엘이 왜 그다랴를 죽였을까?

바벨론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았다(40:14)는 점과 거사 후에 암몬으로 가려고 했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유다와 함께 바벨론에 대항했던 암몬으로서는 바벨론의 꼭두각시 정권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다. 그다랴는 귀족 출신이지 왕족 출신이 아니라는 점도 원인이 되기는 했을 것이다.

19. 여호와의 집으로 가려는 80명은 왜 수염을 파고 옷을 찢고 몸을 상했을까?

성전 파괴에 대한 애통함의 표시일 것: 이들이 출발지가 북이스라엘의 경내이다.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도 일부는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킨 모양이다. 유다가 망하고 성전이 불탄 이후에도 그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일을 계속했던 모양이다.

20. 이스라엘이 왜 울며 행하였을까?

여호와의 집으로 가려는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라고 속이려고.

21. 아사 왕이 바아사를 두려워했는데 왜 구멍이를 팠지?

원래 구멍이는 물을 저장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아사 왕이 판 구멍이는 아마도 미스바를 요새화하기 위해서 팠을 것이다(왕상 15:22).

22. 이스마엘이 한 짓은 최소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행한 행동은 아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유다를 완전히 황폐화시켜 버렸다. 희망의 싹마저 잘라버렸다: 포로로 잡혀가고 남은 자들은, 이스마엘의 손에 죽고, 그래도 남은 자들은 애굽으로 가고, 유다 땅에는 누가 살지?

23. 요하난은 의로운 사람인가?

인간적으로는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하겠으나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결과적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24. 이스마엘이 자신을 암살하려고 한다는 제보를 받고도 그다랴가 전혀 대비하지 않은 것은 실수인가? 판단 착오인가?

사람이 그냥 좋기만 하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다. 지혜롭지 못한 믿음도 때로는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 주의!

25.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암살하고 요하난에게 패하고, 요하난은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내용이 굳이 성경의 한 부분을 차지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둬진 경고를 무시한 결과 일정한 기간 동안 황무지처럼 버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예 26:34-35, 43, 사 6:11-12, 대하 36:21).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았다. 유다의 멸망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간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렇게 비참한 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사야가 말한 남은 자가 이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셈이다.

예레미야 42~43 장

- 모든 군대의 장관과 온 백성이 다 찾아 왔으니 예레미야 생애 최고의 날인가?
 좋은 시절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뒤에 찾아온 바람둥이 남편을 맞는 아내와 같다. 차라리 이런 영광은 보지 않는 것이 나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맞아들인 남편이 혹시 또 바람이 나면?
-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의 태도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당신의 하나님(3, 5)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생각하고 온갖 은혜를 다 베풀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의 하나로 여기고 있는 셈이다. 그러다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는가(6)? 말뿐이다(20).
- 예레미야가 보는 하나님과 백성들이 보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가?
 백성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하나님이라고 한다(4).
- 마음만 먹으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아서 낙제 수준의 성적을 받아오는 것을 보면 참 답답하다. 이스라엘이 제법 바른 말도 하네! 뭐라고?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6) 하나 더 추가한다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도 옳은 말이다. 진작에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그 엄청난 재난을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것이 진심이어야 하는데 진심이 아니다(20). 이들은 이미 자신들의 답을 가지고 있다(41:17). 이것을 포기할 마음도 없이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가증스럽다.
- 에당초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서 하는 말이라면 하지 않았어야 하는 말이 있다면?
여호와와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중인이 되시옵소서(5) 이래 놓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왕에 믿지 않으니 무슨 말인들 못하겠는가!
- 이 백성들은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 애굽으로 가려고 나섰다가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이런 요청을 했다. 하나님께서 십일 후에 응답하셨다. 이 열흘 동안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
안절부절 했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가정이 깨어지고, 한 개인이 허물어져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 다 불러내어(8) 그들의 말을 한 번 더 확인하는(9) 이유는 무엇일까?
제발 순종하라는 것: 순종하지 않았다가 징계를 받을 때 탄 소리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순종하지 않을 때 책임이 모두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하려는 의도이다.
-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다고 맹세한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지금이라도) 이 땅에 (여전히) 거하라(10) 이것은 아브람을 불러내서 이 곳으로 데려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어하시는 일이다. 애굽에서 번성해도 이 곳으로 불러왔고, 이들을 포로로 잡아가도 다시 데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지금이라도 이 땅에 거하라라는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탕자가 그런 모습으로라도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복이다.
-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픔을 어디에 비교하면 좋을까?
곡물을 세웠다가 허는 경우나 식물을 심었다가 뽑는 것(10) 집을 짓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분이 자기가 살 집을 한번 지어본 다음에 '다시는 집을 짓지 않겠다'고 하더라. 그런데 온갖 공을 다 들여 지었다가 허물어야 한다면? 일년 농사한 것을 갈아엎는 농부의 심정도 마찬가지다. 아브람 때부터 지금까지 공들여 가꾸어온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가도록 해버린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보다 훨씬 더 아플 것이다. 그러니까 용서할 권덕지가 조금만 있어도 뜻을 풀이키려고 하신다(10).
-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무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벨론 왕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믿으며, 애굽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다.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외치던 말씀과 다르지 않다. 12절의 '본향으로 돌려보내게 하리라'는 말씀은 애굽으로 가려고 떠난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평안하게 거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 이스라엘에게 애굽 땅은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는 땅으로 여겨질 수 있다. 애굽의 보호 아래 들어가면 실제로 그럴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 가나안 땅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쪽저쪽 눈치를 다 봐야 한다. 바벨론에 당하기도 하고, 애굽에 당하기도 하고.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적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미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가는 것은 절대로 해결책이 아니다. 칼과 기근만 아니라 열병까지 따라갈 것이다(16). 아브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애굽으로 갔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다. 나오미도! 성도여, 세상이 주는 위로와 평안에 속지 말라.
- 하나님께서 무슨 노와 분이 이렇게 많으신가?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사랑을 쏟은 지 1000년이 훨씬 넘었다. 그 사랑을 배반했으니 그렇지. 그 동안 쏟은 정성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라.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왕들. 그래서 온갖 재앙을 예루살렘에 다 쏟았는데 겨우 살아남은 너희가 또 하나님을 화나게 하면?
- 예레미야는 간곡한 말로 당부하면서 이 백성들의 요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안다(20-22). 이것이 선지자의 아픔이다. 듣지도 않을 것이면서 묻기는 왜 묻나?
혹시나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시지 않을까 해서: 자신들의 뜻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는데 이들에게는 분명히 자신의 뜻이 더 견고하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뜻대로 해달라고 강요하는 셈이다. 이래서는 비

극적인 결말을 벗어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뜻이 여지없이 깨어지는 자는 정말 복 받을 자이다.

설교: 말은 번지르르 한데... (렘 42:1-6)

진작에 그러지 꼭 다 털어먹고 나서 (돌아온 탕자, 늙고 병들어 돌아온 남편 - 김경순 '우리 동기네!') 그래 놓고 또 말 안 듣네!

설교: 애굽이 주는 평화: (렘 42:10-17)

[43 장]

14. 들지도 않을 거라면 묻기는 왜 물었을까?

자기들의 의도와 일치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다르면 아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생각이 없으니 그럴 수밖에!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여기밖에 없을까?

15.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어거지를 부리게 된다. 이들이 무엇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는가?

바룩이 예레미야를 꼬드겨서 그렇게 말했단다: 조수가 더 유능하게 보였던 모양이지? 그렇다면 처음부터 바룩에게 찾아가지 뭣 하러 예레미야에게 와서 묻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는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태연하게 내뱉을 수 있다.

16. 자기 고집에 빠진 사람들은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 예레미야도 자원해서 애굽으로 갔을 리가 없다. 본의 아니게 애굽으로 가야 했던 사람들 중에 안타까운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벨론 군대를 피해서 고향을 등졌다가 돌아온 사람들(5):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이렇게 애굽으로 억지로 끌려가느니 유다 땅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더 나았겠다.

17.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되지, 큰 들들을 가져다가 포장이 잘 된 곳에 감추는 엉뚱한 짓은 왜 하나?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백성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바로 이곳에 바벨론 왕이 와서 천막을 칠 것이란다.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이런 이상한 짓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어쩌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 그냥 선포하거나 던지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잘 전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 아닌가!

18. 다바네스는 라암셋 남동쪽으로 13km 떨어진 애굽의 국경도시다. 이 곳에 있는 바로의 집 어귀에 누가 오리라고 하는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을 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여기까지 바벨론 왕을 불러오겠단다. 지독하신 분! 그렇게까지 독을 품을 수밖에 없도록 한 이스라엘이 사실은 더 지독하다.

19. 애굽 신들의 집에 누가 불을 놓는가?

표면상으로는 느부갓네살(12, 13) 실제로는 하나님(12):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될 수 없는 일이다. 이 경우에는 허락의 문제가 아니라 말 안 듣는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도구로 쓰시는 셈이다. 후일 역사를 보면 유다가 망한 지 20년도 채 안 되어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두 번 침공한다. 그러나 정복해서 영토를 넓히려는 의도보다는 팔레스틴에 대한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의도였다.

예레미야 44 장

1. 애굽으로 도망간 유대인들은 므딕(애굽의 북부, 출애굽 때 지나온 곳, 출 14:2) 다바네스(라암셋 남동쪽으로 13km 떨어진 애굽의 국경도시), 늪(당시 애굽의 수도, 멤피스), 바드로스(애굽의 상류 지방)에 살았다. 한 군데 모여서 산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았던 모양이다. 이렇게 흩어져 사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을까?

예레미야가 그만큼 더 고생을 했겠지: 교회당이 사라지고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져버린 상태에서 이들을 찾아 다니며 들보는 목사 같다.

2. 예레미야를 억지로라도 잡아간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나마 다행이네! 예레미야마저 없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도 않았을 것 아니냐? 미워도 목사 곁에, 싫어도 교회 근처에, 믿는 자 곁에 있으라.

3.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해도 끝내 애굽으로 가버린 자식들에게 하나님은 할 말이 있으신가? 그냥 버려버리지!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느냐? 유다에 내린 모든 재앙을 보지 않았느냐(2-6)?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인줄 모르겠느냐?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철저히 심판하시지만 그 전에는 끈질기게 돌아서라고 권면, 책망, 매질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이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차마 버리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다.

4.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나아가서 분향한 것'이다(3). 이것은 하나님의 노를 격발케 하는 일이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이런 예가 없을까?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실체가 없는 것들이다. 도대체 그 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도 못한 채 신이라고 부르며 섬기는 모양새를 갖추다. 철학자들이 한평생 고민하고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 '신은 존재한다';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하지 않는가? 이런 실력으로 어떻게 신을 알 수 있는가 말이다.

5.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불러내셔서 데리고 온 땅이 예루살렘이고 유다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특별히 골라서 준 땅이다. 그 곳을 황무하게 만들어버린 하나님이시라면(2, 6) 이들이 도망간 애굽은 어떻게 될까?

이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은 뻔하다(12).

6. 예루살렘과 유다가 황무지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백성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우상을 숭배한 탓(3-5):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탓이다. 그러나 백성들의 생각은 하늘 여신을 숭배하기를 그만둔 탓이다(17c-18).

7.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냈음(4)에도 예루살렘과 유다가 황무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탓 아닐까?

선지자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어야 하는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애쓰셔도 인간들이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 하나님은 사람을 상대로 하실 때 사람의 인격적 선택을 무시하지 않으신다. 사람을 만드실 때 그런 고귀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선지자를 보내지 말고 직접 말씀하시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8. 조상들의 얘기(2-6)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애굽으로 피난한 자들이 똑같은 짓을 아직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8). 이전 일을 기억해서(10) 돌이켜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9. 7-8절은 과거 얘기가 앞으로 일어날 얘기인가?

미래: 유다가 저렇게 황폐화된 것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러다가(9-10) 씨마저 말려버릴 셈이냐? 자기 영혼을 해한다는 것은 자해행위인데 유대인들의 행위가 바로 자해행위라는 것이다.

10.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는 것은 재앙을 뜻한다(신 31:17). 그런데 얼굴을 유대인들에게로 향하면 어떻게 되나(렘 21:10)?

얼굴을 숨기시는 것이 소극적인 징계(포기, 유기)라면 얼굴을 향하는 것은 적극적인 징계를 뜻한다. 더 무서운 징계가 임한다는 말이다(27절의 '경성'). 정신 차리고 심판하시겠다.

11. 유대인들은 칼과 기근, 즉 바벨론의 침공을 피해서 애굽으로 왔다. 그런데 하나님은 칼과 기근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신다(12-13). 바벨론 군대가 여기까지 온다는 말인가?

그렇다(렘 43:10-13): 이렇게까지 말을 안 듣는 유대인들도 지독하지만 도망가 버린 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도 정말 지독하다. 최후 심판도 그러할 것이다. 죽은 자를 살려내서 영벌에 던질 것이다.

12.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유대 땅으로 도망쳐라(14, 28): 바벨론 군대를 두려서 해서 도망쳐버린 유대 땅으로 다시 도피하는 자는 살겠지만 끝내 애굽에 머무는 자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집 나간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도 한 가지 남은 일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유대 땅으로 가야 산다. 어떤 절망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13.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반응(16-18)은 어떠한가?

듣지 않겠다: 왜냐하면 저들이 이런 재앙을 당한 것이 하늘 여신 섬기기를 그만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치겠네! 정말 지독하다. 이 모양이 돼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니?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14.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면서 염려하는 것은 자기 능력으로 이 복을 얻었다고 자만하는 것이 다(신 8:17-18). 잘 먹고 잘 살 때 부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신신 당부하셨다(신 6:10-13). 그런데 이 배은망덕 한 유대인들은 한 술 더 떠서 뭐라고 하는가?

하늘 여신이 준 것이란다(17c): 우리가 받는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이런 우상이 준 것인지 쉽게 분별하는 방법이 없나? 재앙도 그렇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신에게 제사지내는 것을 그만 둔 탓인지? 팔자, 운수, 저주, 조상신, ..., 하나님, 이 중에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15. 여자들을 특별히 언급된(15, 19, 24) 이유는 무엇일까? 여자들이 하늘 여신을 섬기는 것을 남편들이 알았다고 굳이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상 숭배에 앞장 선 것은 여자들이었다. 책망을 듣게 되자 '남편의 동의 없이 그럴 수 있었겠느냐?' 면서 책임을 남자들에게 떠넘기는 말이다. 여자에게 약한 것이 남자인 걸 어쩌나?

16. 한 가지 현상(유다의 황폐)을 두고 예레미야의 생각(하나님의 징벌)과 유대인들의 생각(하늘 여신을 제대로 숭배하지 않은 탓)이 다르다. 이걸 어떻게 하겠는가?

선택의 문제: 한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한다. 우리는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불신자들의 선택을 도울 수 있을 뿐이다. 하늘 여신(황후)은 앗수르나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여신 이쉬타르라고 한다. 가나안 사람들은 아스다롯이라고 불렀다. 전쟁과 사랑의 신으로 다산과 풍요를 준다고 믿어졌다. 이 여신의 후예가 '자유'의 여신 이란다.

므낫세 왕이 앗수르에 영합하기 위한 정책에서 이 여신 숭배가 도입된 것인 듯하고, 요시야의 종교개혁 때에 몰락되었으나(왕하 23장), 요시야가 바로 느고에 의해 죽임을 당한 후에 유다가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런 고생이 하늘 여신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한 것이다(17-18). 하나님을 버린 탓인데...

그러니까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던 때, 곧 식물이 풍부하던 때(17)는 므낫세 왕 때이고 그 제사를 폐한 때(18)는 요시야 왕 때인 모양이다. 총칼로 정권을 잡거나 말았거나 살기 좋았던 때는 전두환 대통령시절이었던단다. 그게 그렇게 된 것이 전 대통령 탓이 아닌데...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왕이 므낫세인데(왕하 24:3-4) 백성들은 오히려 그 때가 살기 좋았다고 회상하고 있으니...

17. 선지자가 어떻게 하늘 여신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말할 수 있는가(25)?

죽어보라는 말이다: 역설이다. 학교 그만 두라는 아버지의 말을 끝이끝대로 듣고 학교를 그만 두면 맞아 죽는다. 이 정도면 예레미야도 사역을 끝낼 때가 되었다. 최후통첩까지 한 셈이다.

18. 애굽 온 땅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일컬어서 주 여호와와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하는 자가 없을 것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다(27절의 '멸절').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란 말이다.

19. 모든 사람이 멸절 당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자기들의 말이 옳은지 알면 뭐하나?

그러니 지금이라도 돌아서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증거를 보여주신다. 이 악다발은 유대인들 때문에 애굽의 바로(호브라)가 당하게 된다. 실제로 이 왕은 반란을 일으킨 무리에게 처형되고 만다.

예레미야 45~46 장

[45 장]

1.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을 기록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또 새로 기록하는가?
36장과 동일한 내용이다.
2. 3절에서 바룩이 한 말은 무엇인가?
'슬프다 여호와께서... 평안치 못하다'
3. 바룩의 고통과 슬픔이 무엇일까? 참고로, 그의 조부(32:12) 마아세야(마세야)는 요시야 시대에 예루살렘 부윤(요즈음 표현으로 서울특별시장)이었고(대하 34:8), 그의 동생 스라야는 시종장(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51:59). 자신도 예레미야를 따르지 않았더라면 한 자리(5절의 '대사')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선지자를 따랐더니 고난만 당했다. 세속적인 욕망을 버렸다고 해도 회의와 좌절감을 느꼈을 수 있다.
4. 하나님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신다. 이 말이 바룩에게 어떻게 위로가 되었을까?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내가 욕심내고 노력한다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때에 세속적인 복 대신에 '생명'을 주겠다는 것이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다. 간신히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리품을 얻음같이 기쁨과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신다고 믿는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절박하고 어렵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시 31:15). 요셉처럼 감옥에 아무리 오래 갇혀 있어도, 다윗처럼 아무리 오랫동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쫓겨 다녀도 결코 좌절하지 않는다.
5. 바룩에 대한 이야기가 애굽에서도 우상숭배를 멈추지 않은 유대인들의 이야기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여기에다 이렇게 기록했을까?
버려지는 유대인들의 이야기와 대조를 이룬다. 시간상으로도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만 징계 속에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46 장]

<역사적 배경> 주전 609-605년에 세계대전이 있었다. 앗수르와 바벨론이 하란에서 대전을 치를 때 애굽왕 바로 느고가 앗수르를 돕기 위해서 가는 길을 요시야 왕이 므깃도에서 막다가 전사하고 말았다. 히스기야 이후 유대는 반앗수르, 친바벨론 정책을 펴고 있었기 때문이다. 3개월 후 느고가 돌아오는 길에 패심죄로 유대를 침공하여 여호아하스를 폐위하고 엘리아김을 왕위에 올리고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고쳤다. 계속된 전투에서 여호야김 4년(BC 605)에 바로 느고는 바벨론 군대에 대패하고 수리아와 팔레스틴 지역을 포기한다(갈그미스 전투).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다. 유다가 멸망하기 20년 전의 일이다.

1.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왜 열국에 대해서(46-51장) 말씀하실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2. 나가서 싸우라(3-4)고 하면서 패할 것이라(5-6)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말씀하시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3-4절은 인용된 말이다. 모두가 짧고 날카로운 명령어들이다. 누구의 말일까? 군대 장교들의 말이다. 준비하라! 큰 방패와 작은 방패! 나가라! 싸우라!... 군대를 지휘할 때 쓰는 용어들은 길면 안 된다. 가령, 앞에 총! 나를 따르라! 이런 식이다. 반면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긴 서술형이다.
3. 도망갈 때는 뒤로 돌아보아야 하나? 보지 말아야 하나?
돌아와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상황이 워낙 다급하면 돌아볼 겨를도 없다.
4. 발이 빠른 자도 도망가지 못하면 누가 도망칠 수 있는가?
아무도 도망치지 못한다: 거의 전멸 상태가 될 것이라는 말이다.
5. 애굽의 군대가 패배하는 장소는?
유브라테 강가(6, 10): 이스라엘의 북쪽, 즉 유브라테 강의 상류이다. 하란 근처다.
6. 애굽 군대가 뭐라고 큰 소리를 치다가 이렇게 당하는가?
'우리 군대는 나일의 창일함, 강물의 흥용함 같지 않느냐? 강물처럼 휩쓸어버릴 것이다'(8-9).
7. 애굽은 자신들의 군대가 나일의 창일함, 강물의 흥용함 같다는 것은 알았다. 몰랐던 것은 무엇일까?
그들의 대적이 누구인지 몰랐다. 하나님께서 보수하시는 것인 줄은 몰랐다(10): 나일강이 넘쳐서 성읍과 거민을 삼키는 일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었다. 자신들이 겪던 일이다. 이와 같이 원수들을 짓밟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상대를 몰랐다는 것이 비극의 원인이다.
8. 다음 빈 곳에 적절한 단어는 무엇일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칼이라고 하는가(10)? ()이(가)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가득히 마시리니.
야수(맹수): 짐승들이 다른 짐승을 잡아먹듯이 애굽이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비유이다.
9. 애굽 군대의 죽음을 또 어디에 비유하는가?
희생제사를 위해서 짐승을 잡는 것(10): 애굽 군대의 죽음을 두 가지 비유를 동원해서 설명한다. 야수가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것처럼(위 질문),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 것처럼!
10. 애굽은 의학이 무척 발달한 곳이었고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길르앗(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한 요단 동편 지역)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는 말과 '많은 의약을 쓸지라도 무효하여 낫지 못하리라'는 말로 조롱하는 것이다. 약사에게 '얇만 먹어도 낫지 않더라'고 하는 것은 자칫 큰 모욕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길르앗' 앞에 한두 마디만 삽입해서 비슷하게 조롱의 말이 되도록 해보자. 이 유형도 여기서 는 약의 일종(진통제)으로 쓰이는 것이다.

능력이 있거든, 혹은 그래봤자 소용없는 짓이지만: 결과적으로 애굽이 이 전투에서 패함으로 수리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다 잃어버렸다. 다시는 이 지역을 넘보지 못하게 되었다. 길르앗을 치러갈 능력도 없고, 약도 효력이 없고, 용사들마저 무력하게 엎어져 버렸다.

11. 바벨론 왕이 애굽을 친다고? 어느 정도?

온 땅, 모든 장사(壯士): 애굽이 이렇게 당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몰아내신 연고이다. 그러니 이스라엘아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

12. 므딕들과 놉과 다바네스가 '굳게 서서 예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나라가 다 점령당했으니 이제 네 차례이기 때문이다: 이 소식을 빨리 애굽에 전하라는 말이다. 이 세 지 명은 애굽의 북부지역으로 외적이 맨 먼저 침공할 지역이다.

13. 15절의 '장사'(아비르)를 어떤 역본에서는 '항소 신 아피스' 혹은 '항소 같은 자'라고 번역하였다. 항소를 승 배의 대상으로 여기던 놉을 염두에 둔 말일 것이다. 출애굽 시에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이와 관련이 있어 보 인다. 아무튼 장사들이든, 항소 신 아피스든 누가 이들을 쓰러뜨리는가?

여호와(15):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침공하지만 실제로 느부갓네살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말은 들 은 느부갓네살이 웃지 않을까? 그러나 어쩌랴 사실이 그런 걸! 옛날에 바로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출 9:16) 듣지 않다가 된통 당한 적이 있다. 자신의 능력 때문에 온 세상을 점령한 줄로 알고 교만하게 굴다가 바벨론 은 결국 단명으로 사라지고 만다(사 13-14).

14.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토로 돌아가자'는 말은 누구의 말일까?

아마도 용병: 남의 나라에 돈 받고 팔려온 사람들이 돈을 포기하고 돌아가야 할 상황이라면 나라가 완전히 거 털났다고 봐야지!

15. 17절을 어떤 역본에서는 '기회를 잃은 떠벌이'라고 번역하였다. 바로가 무슨 기회를 잃었다는 말인가? 시대 배경을 잘 살펴보자.

앗수르가 쇠퇴하고 바벨론이 다시 부상하던 시절에 잘하면 시리아 지역을 탈환할 절호의 기회였는데 다 잃어 버리고 본토마저 바벨론에 유린당하게 되었음을 조롱하는 말이다.

16. 다불산은 평지에 돌출된 산이고 갈멜산은 바다로 내리꽂히다시피 하는 산이다. 이 산들을 바벨론 왕에 비 유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돌출된 산에서 평지나 바다를 향해서 내리탈리면 막힘이 없다. 바락이 시스라와 싸울 때 이런 방식을 사용했 다(삿 4:14). 바벨론 왕이 거침없이 애굽으로 침공해올 것이란 의미이다. 주변이 평지이므로 높이 솟은 모습이 당당해 보인다. 다불산은 승리의 상징, 갈멜산은 우상의 박멸(왕상 18:19-40)로 유명하기도 하다. 이런 복합적인 의미가 담겼을 것이다.

17. 행리(行李 = 行裝, 行裝)란 '준비된 기구' 즉 대체로 가볍고 귀중한 물건들이다. 포로의 행리를 준비하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포로로 잡혀갈 준비를 하라는 말이다. 놉(엠페스: 수도)이 황무할 것이기 때문이다. 수도가 황무하고 불에 타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완전히 점령당했다는 말이다.

18. 아름다운 암송아지 애굽에 멸망이 이르렀다. 어떤 역본에는 '멸망' 대신 '쇠파리 떼'라고 번역하였다. 원어 상으로 같은 의미이다. 돌보아 주는 이도 없는 살진 암송아지에게 쇠파리 떼가 달려드는 모습이 바로 바벨론 에 당하는 애굽의 모습이다. 그들을 돌보아주면 용병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외양간의 송아지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다. 급하면 도망가는 일이나 할까!

19. 바벨론 군대를 벌목하는 자나 황충에 비유하는 것은 계수 할 수 없이 백백한 삼림도 깨끗이 베듯이 애굽 을 멸망시킨다는 의미가 선명하다. 반면 애굽을 뱀에 비유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뱀은 숨어 다니지만 소리를 크게 내지는 않는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숨어 다닐 수밖에 없는 애굽의 처 지를 빗댄 것이다. 25절의 '노'는 상애굽의 수도 테베(더베)를 가리키는 말이다. 아몬은 테베의 지방신이다. 신 들과 왕들과 그들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 벌하시겠다고 하신다.

20. 바벨론이 애굽을 벌목하듯이 하더라도 사람이 여전히 살 것이라(26)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애굽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겠느냐?: 애굽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징 계만 하시겠다는 뜻이다. 바벨론이 강성해지고 애굽이 쇠퇴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장래사를 말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애굽의 구원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애굽의 장 래도 이러하거든 하물며 내 백성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깨끗이 망하게 하겠느냐?

21. 당시 국제 정세를 감안한다면 이스라엘, 애굽, 바벨론 이 세 나라 중에서 누가 끝까지 존속될 가능성이 높 을까?

바벨론, 애굽, 이스라엘 순이다: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끝까지 존속할 가능성이 제일 적을 뿐만 아니라 확 른도 현저히 낮다. 제대로 힘을 떨쳐본 적도 거의 없는 약소국으로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나 겨우 봐야 할 형 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결코 망하지 않을 나라는 이스라엘이다. '아주 멸하지 아니 하리라'고 하셨다.

예레미야 47 장

1. 바로가 언제 가사를 쳤는지는 역사적으로 분명하지 않다. 아마도 바로 느고가 앗수르를 돕기 위해서 올라가면서 요아스를 전사시킨 그 여간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누가 블레셋을 친다는 말인가?
 북방이면 바벨론이다. 그러니까 바로(남쪽 나라의 왕)가 가사를 친 것은 맞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2. 블레셋을 치는 적의 모습을 어디에 비유하는가?
땅을 덮는 시내: 넘쳐흐르는 홍수: 불이 지나간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물이다.
3. 창일하는 시내가 무엇을 비유하는가?
적군의 침입(3): 굽치는 소리와 달리는 병거의 바퀴 소리가 무서워 아버지가 손이 풀려 자식을 도울 수 없을 정도니 얼마나 무서울 것인가?
4. 적의 침입이 어느 정도로 강력한가?
 굽치는 소리와 병거 달리는 소리만 들고도 자식을 돌볼 힘이 없다. 도와줄 자도 전혀 없다(동맹국들마저 망해버렸음을 의미), 본거지(고향, 갑돌섬)까지 파괴되어 버렸다. 갑돌이란 지명도 분명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크레타 섬을 포함한 주변지역을 가리키는 모양이다. 블레셋인들이 여기서 가나안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5. 삭발이나, 스스로 몸을 베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기도 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는 짓이기도 하다. 언제까지 그런 짓을 할 거냐고 묻는 의도가 무엇인가?
 끝이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6.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5)는 역본들마다 번역이 다르다. 재미삼아 비교해 보라.
 '골짜기에 남은 자들(KJV)'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70인 역의 영향을 받은 역본들 중에는 '야박의 자손들'이라고 번역하기도 했다.
7. 선지자는 쉬지 않는 여호와와 칼에게 묻는다.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고? 정말 쉬라고 하는 말일까?
 결코 쉬 수 없다는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셨으니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을 이런 표현방식을 이용해서 선포한 것이다.
8. 블레셋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추가한다면 블레셋이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괴롭혔기 때문이다. 자기 자식을 징계하면서 자식을 괴롭힌 옆집 아이도 혼을 내는 것이다.

예레미야 48 장

1.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외적의 침입으로 시행된다. 침입의 결과는 어떠한가?
전국이 황폐화됨(8, 15): 도시들(느보, 기라다임, 미스갑(=모압의 칭송), 헤스본, 맛덴, 호로나임)과 골짜기와 평원까지 파멸당할 것(8).
사람이 없어짐: 골짜기는 휘파되고, 평원은 파멸되어 그 곳에 거하는 자 없음 = 그모스와 그 제사장들과 방백들이 포로됨(7).
2. 모압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점진적으로 설명된다. 일단 초반에는 그렇게 심판을 당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는가(7)?
공작(=기술, 혹은 그 기술로 만든 우상)과 보물을 의뢰하므로: 13절을 참고하면 ‘공작’이란 단어는 아무래도 솜씨 좋게 만들어진 우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3. 간신히 살아남은 자들이 어디로 도망가는가?
루히 언덕을 올라가서, 호로나임을 내려간다: 이 지역이 어디인지는 잘 모른다. 그저 나라가 망해버렸다고 부르짖으며 이 길로 도망갈 뿐이다.
4.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할까?
광야의 떨기나무 같을 것: 잘 해서 제대로 도망쳐보아야, 수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여 초라한 모습으로 외롭게 서 있는 모습처럼 처량하게 될 것이다.
5. 간신히 살아남아 도망가는 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루지 못할 소망일 뿐, 일종의 조롱이다: 바로 뒤이은 구절, ‘그 성읍에 거하는 자가 없을 것’이란 말과 같은 내용이다.
6. ‘여호와와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와 같은 사람이다(10). 그러면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압을 심판하는 자, 즉 모압을 침략하는 적들이 도무지 게으르지 않을 것이란 의미이다. 교회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 성도에게 이 구절(10a)을 적용해도 될까? 아무래도 곤란할 것 같다. 여기서는 여호와와 일을 열심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행스럽게 아직은 교회에서 이 구절을 애용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7. 모압은 향과 맛이 잘 보존된 술과 같다(11). 이 술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릇을 비우고 병을 부숩버릴 것이다(12): 좋은 술이라고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한다. 효용이 전혀 없다.
 모압은 요단 동편에 위치하고 있어서 열강들이 지나가는 중심에서 약간 비켜 있으며 주로 고원지대여서 적의 침입을 거의 받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런 이점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8. 이스라엘에게 벨엘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예루살렘 대신 제사 지낼 장소로 선택한 곳이다. 말하자면 북이스라엘을 튼튼하게 세우려는 의도에서 선택했지만 결과적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왕상 12:25-33).
9. 모압이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13-14에서 찾는다면 무엇인가?
그모스를 섬긴 죄로 인한 교만: ‘우리는 용사, 전쟁의 명사’라 하고,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라고 자처한 모압이다(17). 하나님을 섬기면 겸손해지는데 반해 우상을 섬기면 교만해진다. 결국 모압은 부러진 지팡이가 된다.
10. 전쟁이 나면 전쟁에 나가서 죽는 군인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어린 아이들이 불쌍하게 마련이다(4). 그 외에 또 누가 불쌍할까?
디본에 거하는 딸, 아로엘에 거하는 여인(18, 19): 전쟁만 아니라면 곱게 차려입고 온갖 우아함을 자랑할 근데 이제는 곡하며 부르짖을 뿐이다. 도망하는 자들을 붙들고 전쟁의 소식을 묻거나 때로는 가족의 소식을 들으려고 애만 쓸 뿐이다.
11. 심판을 당한 모압을 짐승에 비유한다면 어떤 꼴인가?
불이 잘리고, 앞발이 부러진 짐승: 공격도 수비도 불가능한 상태다.
12. 모압이 징계를 받아야 할 이유를 세 번째 반복하는데(7, 13-14, 26-27), 그 이유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여기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며(두 가지)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함(29절에는 교만, 자고, 오만, 자궁, 거만): 그래서 포도주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게 한다. 질 좋은 포도주 같은 모압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포도주가 심판의 도구가 된다. 많이 먹고 토하고 그 토한 것에 구르고 있는 모습이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이 심판 때가 되면 그 자체로 심판의 도구가 된다.
이스라엘을 조롱함: 이스라엘이 도적질이라도 하더냐고 책망하면서 모압을 조롱거리로 만든다.
13. 모든 성읍이 다 파괴되고 모든 골짜기와 평원이 파멸되었으니 이제 어디 가서 살지?
바위 틈(28): 깊은 골짜기 어귀(아마도 불안정한 곳에 대한 상징)에 깃드는 비둘기, 즉 산비둘기처럼 살 수밖에 없다. 결국 자고, 자궁심이 그들에게 준 것은 아무 것도 없다(30).
14. 잘 나가던 모압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는가(32)?
무성한 포도나무: 십마의 포도나무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다. 지역이 어디인지 몰라도 엄청나게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해야겠다. 여기서 질 좋은 포도를 수확할 때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났다(33a)! 물질의 풍요로움이 교만과 우상숭배로 이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포도주들이 텅텅 비었고(33b) 즐거움 대신 곡하는 소리(32, 부르짖음 34)가 터져 나왔다. 샘물마저 말라버렸다(34) 이렇게 포도나무가 무성한 것이 모압의 신이 준 복이라고?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들을 깨끗이 없애버린 것이다(35).

15. 피리소리가 왜 등장할까(26)?

슬픔을 잘 표현하는 악기였기 때문이다. 피리소리는 곡소리와 잘 어울린다.

16. 모았던 재물이 없어지고(36) 각 사람의 두발이 밀리고 수염이 빠지고 손이 베어지며 허리에 굶은 베가 돌리고(37) 모압의 모든 지붕에서와 거리 각처에서 애곡함이 있다(38)는 것은 결국 무슨 일이 있을 것이란 말인가?

외적의 침입: 외적이 독수리같이 날아와서(40) 모압을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린다. 39절의 '두려움'의 본뜻은 '소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을까?'라는 '놀라움'을 의미하는 말이다.

17. '재미없는 그릇'이란 표현(38)은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 쓸모없는 그릇

18. 모압이 믿었던 것은 군사력, 우상, 경제력이었다. 군사력이란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구로하는 여인의 마음(41) 산통으로 울부짖는 여인의 마음에는 누구를 생각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여유가 없다. 오히려 어떻게든 위로받아야 할 상황이다. 시어머니에게 욕을 해도 괜찮은 때가 바로 이 때다. 모압이 믿었던 군사력이란 것이 이렇게 허약한 것이다.

19. 모압이 하나님께 자만했다고(42)? 모압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얼마든지 모압에 대해서도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다. 다만 이 메시지의 대상은 유대인이다. 결론으로 보기에 모압에 대한 책망이지만 근본적으로 유다를 향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모압이 책망을 받는 이유(우상숭배, 자만)가 유대인들이 심판받는 이유와 전혀 다르지 않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던 모압에게도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같은 죄를 지었다면 얼마나 더 심한 심판을 받아야겠는가!

20.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는가?

없다(42): 느부갓네살이 마지막으로 유다를 침공하고 이후 모압을 쳤는데 그후 모압은 나라를 이루지 못했다.

21.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복이 약속되어 있다(신 28:3-6). 3중 축복이란 말도 있고(요삼 1:2) 5중 축복이란 말도 있던데 반대로 하나님을 저버린 자에게는 어떤 징계가 있는가?

3중 심판: 두려움, 함정, 울무(43-44)가 이들의 도망을 막는다. 신 28:3-6에 약속한 복을 거절하면 그 복이 그대로 저주로 바뀌는 것(신 28:15-19)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2. 모압이 더 이상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42)고 하고선 모압의 포로들이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의 회복에서 보듯이 진정한 회복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림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23. 도피하는 자가 기진하여 쉬고 있는데 불이 따라와서 살라버린다? 어떤 상황과 비슷한가?

이 정도의 불은 거의 폭발물 수준이다. 외적의 침입이 폭탄이 터지는 듯해서 도무지 피할 수 없다는 말이다.

24.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사람들 때문에 괴로우시라는 예를 찾아보라.

48:31-36(사 16:11, 창 8:21) 하나님은 합부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괴로우시다. 인간을 사랑하신 값이다.

예레미야 49 장

[암몬에 대하여, 1-6절]

1. 암몬은 롯의 작은 딸이 아버지와 관계하여 낳은 벤암미의 후손이다. 이스라엘이 자식이 있지 않느냐고 외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 자식이 있는데 왜 남의 자식이 들어와서 자식 노릇을 하느냐는 말이다: 이방신인 말감(일곱, 물럭, 물룩), 혹은 말감이라는 암몬의 왕이 갓(이스라엘의 동편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들이 와서 사는 것을 '역지로 양자들'인 것에 비유한 것이다. 이 말씀이 주어진 시점에서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당했으므로 갓이 거하던 지역은 자연스럽게 암몬의 손에 들어갔다고 보아야 한다.

2. 암몬이 이스라엘의 일부(갓)를 점령한 죄로 외적의 침입을 받을 성읍은 무엇 무엇인가?

랍바와 헤스본과 아이(이스라엘의 아이가 아니다): 랍바는 암몬의 수도로 현재 요르단의 수도 암만과 동일한 곳이다. 요압이 이 도시를 공격할 때에 우리아가 죽임을 당했던 곳이다(삼하 11).

3. 암몬이 큰소리치는 것은 무엇을 믿기 때문인가?

호르는 골짜기와 재물(4): 호르는 골짜기란 깊은 계곡을 말하는 것으로 암몬의 자연환경을 말하는 것 같다. 그리고 재물이야 많으면 원래 큰소리칠만한 것이다. 암몬이 큰소리치는 것은 경제적인 풍요로움으로 인한 교만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과 부를 가졌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서면 허무하게 사라질 것들이다.

4. 바벨탑을 쌓는 능력과 열심이 아무리 뛰어나도 언어를 혼잡케 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그 큰 역사는 중지되고 말았다.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큰소리치는 암몬을 간단하게 제압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두려움이 임하게 함(5):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사기이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추고 많은 군사를 가졌다 해도 그 군사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진다.

5. 48:47에서 모압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시겠다고더니 암몬 자손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얘기인가?

그렇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실 때부터 천하 만민을 염두에 두고 계셨다(창 12:3, 사 56:6-7). 선민사상에 젖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기가 막히는 말일지 모르지만.

[에돔에 대하여, 7-26]

6. 에돔에 대한 징벌이 시작되면 어떤 성읍이 수난을 당하는가?

데만(7), 드단(8), 보스라(13): 데만에는 지혜자가 많았던 모양이다(움의 친구 엘리바스의 고향). 데만(북부)에서부터 드단(남부)까지는 에돔 전국을 가리키는 표현이다(겔 25:13).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였다.

7. 드단 거민아 예서의 재난에서 빠져나오라? 드단 거민은 에돔 쪽속이 아닌가(창 25:1-3)?

예서는 이삭의 아들이고, 드단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소생 욱산의 둘째 아들이다. 예서와 욱산은 이복형제간이다. 드단의 후손은 에돔의 남부지역에 거하면서 상업에 종사했다고 한다. 에돔이 징계를 받을 때 옆에서 얼쩡거리다가 함께 당하지 말라는 것이다.

8. 에돔의 징계에 등장하는 포도 거두는 자들과 도적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남기는 것이 전혀 없음: 일반적이라면 조금 남는 것이 있게 마련인데(움 1:5) 에돔에 닥치는 포도 거두는 자와 도적은 남기는 것이 없다. 그래서 벌거숭이로 만들어버린다(10). 그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을 말갈게 벗겨버린다.

9. 철저하게 징계를 가하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아와 과부는 살리겠다.

10.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지 않을 자(12) 누구를 가리킬까?

택함 받은 이스라엘: 자기 자녀도 징계를 면치 못하는데 하물며 이웃집 아이야 말해 무엇하겠느냐는 것이다.

11. 모압이나 암몬에 관한 전례에 비준다면 이제 에돔에게도 회복을 말씀하실 때가 되었는데?

오히려 더 심각한 책망이 쏟아진다(14-22): 그만큼 에돔의 죄가 크다는 말이겠는데... 오바다서가 그 부분을 잘 설명해준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에돔은 형제의 고난에 그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움 1:10-14).

12. 에돔 백성들은 왜적의 침입에 대하여 별 걱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들의 거주지가 천혜의 요새나 다름없었기 때문인데 그런 점이 나타나는 표현을 찾으면?

바위틈에 거하는 자,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지은 자(16): 에돔 쪽속이 거주한 곳은 사해 남동쪽의 산악지대이어서 거주지 자체가 천연적인 요새가 되어 외적의 침입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다. 바위틈으로 난 좁은 길을 따라서 몇 킬로씩 들어가서 바위를 파고 살았다.

13. 하나님께서 에돔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심판하시겠다고. 불과 유황으로 덮어버리겠다고 말씀인가?

아니다. 철저한 심판을 뜻하는 것이다: 심판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결과가 소돔 고모라와 같다는 것이다.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에 종종 인용되는 것(신 29:23, 사 1:9, 렘 23:14, 암 4:11, 마 10:15, 벰후 2:6)은 심판의 철저함 때문이다.

14. 난외주를 참고하면 19절의 앞부분은 '사자가 요단의 창일함(=수풀)에서 나와 항상 무성한 초장(=과고한 요새)에 이르는 것처럼'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요단강은 우기가 되면 범람하곤 했는데 그럴 때면 낮은 곳의 수풀에 있던 사자가 높은 곳에 있는 푸른 목장으로 올라와서 양떼를 덮치듯이 외적이 에돔을 칠 것이란 뜻이다.

그러면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여기서 택한 자의 역할이 무엇인가?

에돔을 치는 것: 에돔을 치고 억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말한다. 구원과 전혀 관계없는 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해서 일하신다. 그렇게 택함을 받은 자는 어떤 면에서는 불행하다. 바로, 산헤립, 느부갓네살, 고레스, 유다...

15. 에돔은 천연의 요새와 같은 곳에 거하며 큰소리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허약하기가 무엇과 같은가?

목자 없는 양떼: 맹수(사자, 독수리)가 달려드는데 목자가 없는 양떼는 아무런 방비책이 없다. 도망도 제대로 치지 못한다. 그러니 극심한 고통(=구로하는 여인) 가운데서 부르짖을 뿐이다.

[아람에 대해서]

16.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이다. 하맛과 아르밧도 중요한 아람의 성읍이다.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경쟁하던 나라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모습으로 임할지는 언급하지 않고 대신 무엇만 언급하는가?

절망감: 단숨에 사기가 꺾일 것이다. 소문만 들고도 낙담함, 떨림이 그를 움겼고, 고통과 슬픔에 잡혔다. 사기가 꺾이고, 절망감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많은 군사도 소용없다.

17.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할 때 약방의 감초처럼 사용되는 표현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다(4:31, 6:24, 13:21, 22:23, 30:6, 50:43, 사 26:17, 살전 5:3) 이 표현을 왜 이렇게 자주 쓸까?

급하게 돌이닥치는 점과 고통이 극심함: 극심한 파멸이 갑작스럽게 닥칠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은 풍자적인 표현으로 '명성을 날리던 성읍, 흥청대던 성읍'을 뜻한다. 이런 성읍이 순식간에 버린 바 될 것이다.

[게달과 하술에 대해서]

18. 게달과 하술이 어떤 족속인지 본문에서 찾아보자.

게달: 동방 자손 = 동방에 살았다, 장막과 양떼, 휘장과 모든 기구와 약대 = 유목민

하술: 성문이나 문지방이 없이 홀로 거하는 국민, 약대, 가축 = 유목민, 머리털을 모지개 파는 자들 = 우상을 섬기는 자들.

게달은 '검은 천막에서 사는 사람들'로 알려졌다(아 1:5) 이스마엘 계통의 유목민으로 팔레스틴 동부의 아라비아 사막의 유목민이었다. 그래서 '동방 자손'이라고 말한다. 하술도 가까운 곳에 거하는 민족이겠지만(수 11장의 하술과는 다르다) 잘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한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깨끗이 사라지고 말았다(BC 598).

[엘람에 대해서]

19. 엘람에게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다. 그것이 심판 날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무용지물일 뿐 아니라 심판의 양상을 결정짓는다: 다른 나라는 물, 불, 도적이 닥치는데 엘람에는 바람이 돌이 닥친다. 강풍이 불면 활도 소용이 없는 법이다. 하나님은 자랑하는 것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징계를 하셨으니 재미있는(?) 일이다.

20. 하나님께서 무슨 욕심이 있으셔서 주변 국가들을 전부 징계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나라 건설: 징계하지만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은 그들을 회복시켜 자기 백성을 삼겠다는 말이다. 교회시대에 모든 열방을 불러들이시겠다는 말씀이다.

예레미야 50 장

1. 앞에 언급한 여러 나라들의 패망을 예언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수궁이 간다. 그러나 바벨론이 황폐화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왜 그럴까?

바벨론이 당시의 최강국이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들은 대체로 바벨론에 점령당한다. 말하자면 바벨론은 열국을 심판하는 도구인 셈이다. 그 바벨론마저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2. ‘기를 세우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앞, 뒤에 있는 ‘광고하라, 공포하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라’와 같은 뜻이다: 그러니까 단순한 신호용 깃발을 넘어서 의사전달이 가능한 깃발이다. 같은 뜻을 지닌 말을 표현만 바꾸면서 반복하는 히브리 수사법이다.

3.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같은 원리로 생각해 보면 벨(바벨론, 벨사살, 벨드사살의 ‘벨’)과 므로닥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신상 혹은 우상: 벨, 마르둑, 므로닥은 다 같은 바벨론의 주신(主神)을 가리키는 말이다. 신들이 부수러진다는 것은 나라가 망한다는 뜻이다.

4. 북방에서 오는 나라(3, 9) 메대는 북동쪽이지만 바사는 동남쪽인데?

역사적으로 본다면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무너진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북방’은 심판의 대행자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유다에 대한 심판자로 등장할 때 ‘북방에서’ 온다는 표현을 사용했다(1:14, 4:6..).

5. 이스라엘과 유다가 언제 돌아오는가?

바벨론이 멸망할 때(4) 이것도 비유적인 교훈을 포함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것이 그렇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은 앗수르의 침공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실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냥 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5) 돌아올 것이다.

6. 바벨론이 길 잃은 양떼와 같은 이스라엘을 잡아먹고 무슨 소리를 하는가?

우리는 무죄하다: 그들이 이렇게 당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죄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다(7)

7. 때에 앞서 가는 수염소? 염소는 떼지어 다니는 짐승이 아니라 재멋대로 위험한 곳을 휘젓고 돌아다니는데?

여기서 ‘떼’는 염소떼가 아니라 양떼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양떼 앞에 가는 수염소다! 바벨론이 심판을 당할 것이니 함께 떼지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차하면 혼자서라도 앞장서서 나오라는 것이다. 심판이 임박했으니 계획을 짜고 준비할 겨를도 없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급히 도망쳐 나오던 롯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8.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할 이즈음의 최대 강국은 바벨론이다. 후에 바벨론이 침공하여 결국은 유다가 망하고 만다. 한창 강대국으로 성장하며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던 바벨론이 큰 연합군에 이렇게 쉽게 무너질 것을 예레미야가 어떻게 알았을까?

예레미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실제로 바벨론은 혜성같이 나타나서 혜성같이 사라져 버렸다(BC 625-539). 아무도, 심지어 자신들조차(단 5:30의 벨사살) 상상을 못했던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메대를 병합한 바사가 하룻밤 사이에 바벨론을 점령해 버렸다. 바사가 바벨론을 점령한 것은 재미있는 역사지만 그 배후에는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도만 알 수 있다.

9. ‘화살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현대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쏘기만 하면 명중이라는 말이다. 실제로 전쟁통에는 수백발의 총을 쏘아도 맞는 사람은 거의 없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면 한 방에 한 명씩이다.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을 가리켜 숙련된 사람이라고 해야 하는데 개역성경은 ‘연속’이라고 한다(9)

10. 갈대야를 침략하여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스럽게 약탈을 할 것이다(10). 갈대야가 여호와께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러시는가?

하나님의 산업(=땅)을 노략하고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곡식을 가는 송아지(원어상으로는 ‘푸른 풀밭을 뛰어 다니는 송아지란 뜻’) 같이 뛰며 힘센 말처럼 울었기 때문이다(11)

11. 갈대야가(바벨론이) 죄를 지었는데 왜 어미가 수치를 당하는가? 본인이 당해야지!

어미의 수치란 자식이 없는 것을 가리킨다(13) 거민이 없는 온전한 황무지: 모든 백성이 사라질 것이라는 은유적 표현이다.

12. 바벨론이 ‘열방의 말재와 광야와 마른 땅과 사막이 될 것이며 여호와와 진노로 인하여 거민이 없는 온전한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바벨론이 그렇게 되는가?

페르시아 헬라 제국 이후 바벨론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버렸다. 거의 2000년이 지나서 그 영화를 일으켜 보려고 꿈꾸던 사람이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었다. 허망하게 무너져버렸지만... 전설적인 얘기로만 남았다. 바벨론의 공중정원!

13. 바벨론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활을 쏘는 자는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란다. 왜 아낄 필요가 없는가?

쏘기는 사람이 쏘아도 맞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그 화살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9)

14. 심판 때가 되면 바벨론에서 없어질 것은 무엇인가?

보장, 성벽, 파종하는 자,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이상은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침공할 때 행한 그대로 보응받는 것이다), 사람들(이방사람들)(15-16), 청년, 군사(30-31)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이다(3, 32)

15. 바벨론을 치는 칼을 두려워하여 동쪽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는 자들(166)은 누구인가?

포로로 잡혀 왔거나 용병으로 왔거나 여하튼 이방인으로서 바벨론에 와 있던 자들이다. 바벨론은 다민족 국가이다. 위기의 때가 되면 뿔뿔이 민족별로 흩어지고 해체되어 버린다.

16.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사자들(앗수르, 바벨론)이 따라 와서 잡아먹고 뼈를 꺾었지만(17) 다시 목장으로 돌아와서 만족할 것이다(19) 반면에 이 양떼를 잡아먹은 사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앗수르는 이미 벌을 받았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이다.

17. 길 잃은 양떼에게 갈멜과 바산은 어떤 곳인가?

거지가 된 탕자에게 아버지의 집과 같은 곳이다: 갈멜과 바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목초지다.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은 가장 울창한 산림지대이다.

18. 한 때는 죄가 많아서 심판을 피할 수 없던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떻게 죄가 하나도 없는가(20)?

하나님께서 남김 자를 사할 것이기 때문(20)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는 표현이다. 우리의 회개나 믿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19. 드라다임과 브곳이 어디일까? 어느 나라 땅일까?

바벨론: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시고 있는 중이다.

20. 한 때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가 되어 온 세상을 점령하기도 했다. 그래서 얻은 별명은 무엇인가?

온 세계의 방망이(23) 그런데 자신이 방망이 인줄 모르고 방망이 잡은 자에게 대들었다가 부러지고 말았다. '방망이야 정신 차려라! 잡은 자가 있다.' 자기가 아무리 쇠뿔뿔이일지라도 자기 스스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1. 여호와께서 병고(무기고)를 열고 분노의 병기를 꺼내서 어떻게 하시는가?

갈대아인의 땅을 쳐야지(25) 먼데 있는 자들이 와서 바벨론을 치고 그 곳간을 열고 그것을 쌓아 무더기 같게 하며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않는다. 그 황소(바벨론의 용사들)를 다 도수장으로 내려가게 할 것이다(26-27). 현상은 그럴지라도 실제로 무기를 꺼내들고 휘두르는 이는 여호와시다는 말이다.

22.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들이 어디서 무엇이라고 외치는가(28)?

시온에서(유다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원수를 갚으셨다. 성전을 헐어버린 것에 대한 원수를 갚으셨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유다백성들이 도망쳐 돌아와서 기쁜 소식을 전할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마라톤 평원을 가로질러 달려가듯이 감격스런 모습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이다.

23. 바벨론이 죄가 많겠지만 요약하면 한 마디로 무슨 죄인가?

교만(31): 바벨론의 모든 죄의 원인이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바벨론에게도 이러하거든 하나님의 자녀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잘 나간다 싶을 때 주의해야 한다(참고 사 7:2).

[33절부터]

24. 바벨론에게 학대를 받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에게 무슨 희망이 있는가(33-34)?

만군의 여호와가 그들의 구속자이심(34): '구속자'의 원어상 의미는 '진지를 살해한 자를 대신해서 보복해주는 사람' 혹은 '진지의 잃어버린 재산을 회복시켜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뜻기의 '기업 무를 자') 유다가 바벨론에 학대를 당했지만 보복할 힘이 없을 때 유다를 대신하여 그 원한을 갚아줄 구속자가 하나님이시다. 더구나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니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의 원을 퍼서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거민으로 불만케 할 것이다.

25. 만군의 여호와께서 칼을 휘두르면 다음의 것들은 어떻게 되나? 그리고 최종 결론은?

지도자 (어리석게 될 것), 용사 (부녀같이 될 것=싸울 능력이 없음을 의미함), 보물 (노략될 것), 물이 많은 땅 (가뭄)
 최종 결론: 사람이 없게 됨(39, 40).

26. 지혜로운 자나 자긍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휘두르는 칼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

어리석게 된다(36):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칼이 임한다'는 표현이 비유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뜻이다. 38절도 어떤 번역은 '칼이 물 위에 임하여 그것을 말리우리니'라고 한다. 칼이나 가뭄이 원어상으로는 철자(자음)가 같다.

27. 바벨론이 아무리 강성해도 명이 길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조각한 신상과 우상을 섬겼기 때문(38).

28.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용맹스럽던 바벨론도 '떨'이다. 반면에 그를 치러 오는 북방민족은 어떠한가?

말탄 무사(42): 활과 창을 가졌고 잔인하다. 목소리는 파도가 흥융함 같다. 이런 자에게 딸이 잡히면?... 그것이 바벨론의 형편이다. 49:19의 예돔과 같은 처지이다.

29. 다른 나라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 몰라도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고통스러워하던, 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이렇게 자세하게(50:1-51:64), 강조해서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절대로 바벨론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데도 바벨론을 들어서 유대인들을 징계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결국에는 바벨론을 징계하고 유다백성들은 회복시키실 것이다(50:4-5, 17-20, 33-34, 51:15-19,

45-53)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

역사적 배경: 바벨론이 강성하던 시절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나라는 메디아였다. 메디아는 2대에 걸쳐 군비를 정비하여 바벨론을 칠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남쪽의 작은 나라 바사 왕 고레스에게 함께 바벨론을 치자고 제의했다. 고레스는 사전에 바벨론으로부터 정치적인 협상을 하고 있던 차라 메디아의 요청을 거부했다. 메디아 왕 아스티아게스가 분노하여 바사를 정복하도록 군대를 보냈는데 군대를 이끌고 간 하르파거스 장군이 번심하여 고레스에게 투항해 버렸다. 메대 왕이 직접 출정하였지만 또 장군들이 반란을 일으켜 왕을 체포하고 고레스에게 투항해 버렸다. 고레스는 가만히 앉아서 거대한 나라를 통째로 얻고 메대의 군사와 작전대로 바벨론으로 진격한다. 도중의 작은 성들은 싸우지도 않고 항복해 버렸다. 바벨론은 워낙 강한 성이었기에 메대, 바사의 군대가 포위를 해도 신경도 쓰지 않고 잔치를 즐기고 있었다. 마침 나보니두스 왕이 돌아와서 신년 축제를 벌이고 있던 때였다. 밤중에 고레스가 유브라테 강의 독을 터뜨리고 물길을 돌리자 바벨론 성의 가운데로 흐르는 운하의 하상이 무릎에 찰 정도로 낮아져서 고레스의 군사는 운하를 따라서 무혈점령에 성공하였다. 고레스는 바벨론의 관리들을 그대로 앉히고, 유화정책을 폈으며 자신의 군대가 정복민들을 학대하지 못하게 했다. 정복한 민족들의 고유한 문화를 존중하였고, 바벨론 포로민들이 원거주지로 돌아가도록 허용하였다. 이런 일에 대하여 이사야가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다(44-45장).

예레미야 51 장

1. 바벨론을 치러 오는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럴까?
 아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바벨론을 치겠지만 배후에서 그렇게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1-2, 11, 29)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자나, 키질하는 자(=2절의 타국인) 모두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알지도, 의식하지도 못하고 바벨론을 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2. 키질을 하면 그 땅이 비게 되나?
 바벨론이, 알곡을 싹 거두어 가버린 타작마당처럼 될 것이라는 말이다: 알곡이 다 사라진 쪽정이는 결국 불에 타고 만다.
3. 3절의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주를 갖추고 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 활을 당길 것이라'는 말은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아래 영역본을 보면 뜻이 분명하다. 그런 면에서 개역성경이 번역을 잘한 것이다. 왜냐고? 원문 자체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NKJV] *Against her let the archer bend his bow, And lift himself up against her in his armor. [NIV] Let not the archer string his bow, nor let him put on his armor.* 번역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면 어떻게 본문을 이해해야 하나?
 문맥을 따라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3절 뒷부분을 보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진멸하라'는 뜻이다.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도 말고 공격하라는 뜻으로 이해한다면 NKJV보다 NIV가 무난해 보인다.
4. 바벨론도 죄가 많지만 이스라엘도 죄가 많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다른가? 왜?
 바벨론은 멸망하겠지만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버림을 받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이다.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지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행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
5. 바벨론은 온 세상을 취하게 하는 금잔이다. 금잔에 담긴 달콤한 포도주 때문에 온 세상이 미쳤다. 그러면 전혀 희망이 없는가?
 그런 바벨론도 여호와와의 수중에 있다(?)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다. 바벨론으로 온 세상이 미친다고 해도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미친 세상과 함께 휩쓸려가지 않는다.
6. 바벨론의 파멸로 인하여 우는 자는 누구인가? 바벨론을 치료하기 위하여 유향을 구하려고 하는 자도 누구일까? 치료하려다가 안 되니 차라리 돌아가는 자는 또 누구인가?
 아마도 바벨론의 용병으로 온 자들: 바벨론이 용성함으로 이익을 얻는 자들일 것이다. 계시록의 표현을 빌리면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던 땅의 왕들, 무역을 하던 상고들, 선원들이다(계 18:9, 11, 15, 17-18).
7. 바벨론의 파멸을 기뻐하는 자도 있는가?
 시온으로 돌아오는 자: 여호와께서 우리 의를 드러내셨다고? 의는 무슨 의? 바벨론과 비교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자신들의 의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의이다. 그래서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와의 일'이다. 정신 차렸네!
8. 바벨론이 한창 강성하던 시절에 바벨론을 멸망시킬 나라의 이름까지 예언하고 있다. 바벨론이 정말 메대에 망하였는가?
 바사에 망했다: 앞장에서 설명한 역사적 배경을 참고해야 한다. 바벨론이 바사에 점령되긴 했지만 실제로는 메대에 망한 것과 마찬가지다. 메대는 바벨론과 연합하여 앗수르를 무너뜨렸지만 곧 바벨론과 결별하고 바벨론을 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맥없이 바사에 넘어가고 말았고 메대의 군사와 작전을 그대로 인수한 바사가 바벨론을 점령한다. 지휘부만 바사지 실제로는 메대의 군사력에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래서 성경에는 메대 바사가 함께 언급되기도 한다(단 5:28, 6:8, 12, 15, 예 1:3, 14, 18, 19, 10:2). 놀라운 예언이다.
9. 여호와께서 보수(報讐)하시는데 "기를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베풀어 방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뭔가?
 용감하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다: 방비하라는 말 때문에 좀 헛갈리지만, 바벨론을 공격하는 군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니 우리는 아무 것도(예컨대 절망, 자해) 하지 말아야 할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특수한 경우이다.
10.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바벨론이 무너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성전을 허물었기 때문이다(11절의 '성전의 보수')
11. 물가에 거하여 재물이 많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비옥한 땅이 재산이라면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풍부한 물이 재산의 밑바탕이다. 운하, 풍부한 농업용수를 바탕으로 많은 부를 축적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바벨론을 물 위에 앉은 것으로 묘사하기도 한다(계 17:1).
12. 황충(메뚜기)이 가득하다는 것은 번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황충의 무리가 습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바벨론에 사람이 가득할 것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며 그들이 높이는 소리는 무슨 뜻일까?
 적군이 메뚜기떼처럼 몰려올 것이고, 그들이 높이는 소리는 승리자의 웃고 떠드는 소리이다.
13. 사람들이 우준하고 무식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능한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섬기다니... 반면에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온 세상이 우상을 섬길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어떻게 알았을까?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좋은 증거이기도 하다.

14.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은 무엇인가?

만군의 여호와(19) 하나님을 가리켜 야곱의 분깃이라고 한다. 분깃이란 자신에게 돌아오는 몫(유산)을 말한다.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필요충분조건이다.

15.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철퇴, 곧 하나님의 병기(20), 멸망의 산(25)이란 누구인가?

온 세상을 멸하는데 사용되었다가 다시 하나님에게 멸망당하는 것은 바벨론이다(24).

16. 산이 불에 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가?

플을 깨내어 교축 재료를 쓸 수도 있다(26)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그런 용도로도 쓰일 수 없도록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는 말이다. 아예 산을 뒤엎어버린다는 말인가?

17. 하나님의 심판날이 되면 드디어 열국이 바벨론을 치러 온다. 구체적으로 누가 쳐들어오는가?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27) 메대인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모든 두령과 그 관할하는 모든 땅(28) 앞의 세 나라는 메대의 속국이다. 후일, 결국은 메대가 바사의 지휘하에 바벨론을 침공하게 된다. 바사의 고레스가 메대를 병합하는 과정은 대단히 흥미로운 이야기이다. 그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예레미야 시대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했다는 사실이 놀랍다.

18. '때가 이른 타작마당'의 '때'는 추수 때가 아니다. 바로 이어 '미구에 추수 때가 이르리라'고 하기 때문이다(33). 추수 때가 되기 직전, 타작마당의 때는 무엇을 하는 때일까?

추수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타작마당을 밟아 둔다. *NTV*는 아예 '밟히는 때'(the time it is trampled)라고 번역했다. 땅을 다지느라고 꼭꼭 밟듯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꼭꼭 밟으시겠다. 추수 때의 타작마당이란 두들겨 패는 의미가 들어있지만 여기서는 밟는다는 의미가 주 개념이다.

19. 34-35절의 '나'는 '우리'로 바꿔 읽어야 한다(해례). 누구의 말인가? 어떤 성격의 말인가?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당한 이스라엘(35)의 송사(36)이다. 이스라엘의 고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20.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데에 왜 바다가 등장할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호수나 강을 종종 바다라고 표현하곤 했다(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사 19:5, 63:11) 바다를 의미하는 '얌'이란 단어는 큰 강을 의미하기도 한다. 아마도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켜 바다라고 했을 것이다. 강이라고 할 만한 강이 거의 없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만도 하다. 그래서 이사야는 강가에 위치한 바벨론을 '해변광야'라고 불렀다.

21. 바벨론은 벨사살 왕이 연회를 즐기다가 하룻밤 사이에 망하고 말았다(단 5:30-31). 이것을 예레미야는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가?

사자같이 소리하며 어린 사자같이 부르짖으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연회를 베풀고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영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될 것이다(렘 51:38-39). 바벨론이 한창 때에 순식간에 망해버릴 것을 잘 표현하고 있다.

22. 심판날 바벨론은 비유권대 포효하는 사자의 신세에서 어떻게 변하는가(40)?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수양, 수염소(40)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를 식용으로 잡는다고 서양 사람들이 야단인데 도살장으로 가는 소는 어떻고? 소가 불쌍해서 쇠고기를 못먹는 사람은 없을까? 정말 기막히는 비유다. 포효하던 사자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다니! 또 다른 비유는 해일이나 쓰나미가 휩쓸어버리듯이 바벨론이 황폐화 될 것이다(42).

23. 세삭(25:26)은 바벨론을 일종의 암호처럼 나타낸 말이란(물론 다른 주장도 있다). 바벨론의 히브리 표기법을 히브리 알파벳의 역순으로 대치시킨 이름(예권대 66l ssk)이란. 성경에는 딱 두 군데밖에 나오지 않으니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본문을 보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까?

바벨론의 멸망을 언급하는 장문의 글 속에 새삼스럽게 바벨론을 암호화할 이유가 없다. 누가 보아도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인 것을 알 수 있다면 비밀스런 표현이라는 주장이 어색하다.

24. 성읍들이 황폐하여 마른 땅, 사막이 되고 거민이 없어질 것이다(43)는 표현은 어디서 많이 보았더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파멸을 말할 때 이와 흡사한 표현이 사용되었다(렘 6:8, 9:11, 22:6, 34:22, 44:22). 바벨론이 그렇게 행하였다가 이제는 자신도 그와 같은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25. '벨'은 바벨론의 주신 '알독'의 별칭이다. 벨을 어떻게 별하시는가?

삼킨 것을 뱉어내게 하신다: 뭘 먹었길래? 34절, 즉 유다를 삼킨 것을 가리킨다. 결국 벨은 징벌하고 유다는 회복시키겠다는 것이다. 열방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바벨론이 징계를 당하는 이유가 결국은 유다를 삼켰기 때문이다(44, 36, 24).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가리켜 나의 종이라고 할 때(25:9, 27:6, 8, 51:20)는 언제고?

26.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해야 하나?

거기서 나와야지: 바벨론에 심판이 임한 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서 머뭇거리면 안 된다. 소돔 고모라에서 롯이 빠져 나오듯 나와야 한다. 산문(産門)에서 머뭇거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호 13:13). 세상 유희에 빠져 심판이 임하는 줄도 모르고 있는 백성에 대한 경고이다.

27. 풍설, 관원끼리 서로 치는 것(내란)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전조증상이다. 이런 불안한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생각해야 하나?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바벨론의 멸망이 곧 이스라엘의 회복을 뜻하는 것임을 아는 사람에게는 바벨론 내부의 혼란이 그렇게 걱정스럽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50).

28.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시는 이유 중에는 이스라엘의 치욕을 갚아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스라엘이 가장 치욕스럽게 느낀 일이 무엇일까?

이방인이 여호와의 집 성소에 들어간 일(51): 대제사장도 일 년에 단 한 차례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곳에 이방인이 들어가다니? 이 치욕을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56). 그래서 바벨론의 신들을 특별히 징계하실 것이다(52). 그러면 성을 아무리 높여도 소용이 없다(53).

29. 바벨론이 기고만장하여 떠드는 소리(55)를 어떻게 잠재우시는가?

더 큰 소리로: 많은 물의 요동함같이 요란한 소리는 홍수가 밀려올 때 나는 소리나 거센 파도가 들이 닥치는 소리다! 55절의 '대적'도 원문에는 '파도'이다.

30.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갔다는 것은 속국의 예를 차리는 셈이다. 그런 일로 가는 인편에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누구에게 이런 글을 보내어 읽어 들리게 했을까?

아마도 유대인 포로들: 이미 1, 2차에 걸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동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의도였을 것이다.

31. 다 읽은 책을 물에 매어 강물에 던지다니?

시청과 교육이다: 그 책이 물에 완전히 잠겨버리듯이 바벨론이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들려주는 것과 동시에 보여주는 것은 교육적인 효과가 훨씬 크다.

예레미야 52 장

1. 관주에 보면 1-27절에 대해서 왕하 24:18-25:21을 참고하란다. 비슷한지 대조해 보고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거의 똑같다. 10-11절을 왕하 25:7에는 요약형태로, 4절의 '홍벽'이 '토성'(왕하 25:1)으로, 11절의 '모든 방백'과 21-22절은 조금 더 보충된 내용이다. 굳이 차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12절의 '5월 10'이 '5월 7일'로 차이가 난다. 한 사람이 같은 내용을 두 군데 실었으면 인용이라고 하나?

(왕하 25:17) 그 한 기둥은 고가 십팔 규빗이요 (렘, 주위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사지놓이며) 그 꼭대기에 돛머리가 있어 고가 삼(렘, 다섯) 규빗이요 그 머리에 돌린(렘,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그물과 석류가 다 돛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렘,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이요 그 기둥에 돌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이었더라)

2. 시드기야가 왜 하필이면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았을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악할지라도 시드기야의 눈에는 그것이 최상의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우리 눈에 좋은 것이 하나님의 눈에 옳지 못하다면 엄청난 불행이다. 하나님과 눈높이를 맞추자, 이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3. 유다가 멸망당한 결정적인 이유는 드나셋세의 악행이었다(왕하 23:26, 24:3). 요시야의 개혁도 대세를 돌려놓지 못했다(왕하 23장). 결정적인 파국을 막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을 말씀을 참고하면 유다 멸망의 결정타를 초래한 사건은 무엇인가?

시드기야의 배반: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외쳤다. 시드기야는 이 경고마저 무시하고 바벨론을 배반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더라면 완전 파멸은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패망의 모습을 에스겔도 몸으로 보여주었다(겔 4장). 결국은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마저 듣지 않았다. 최후에 남았던 무리들마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떠나버렸다(렘 43:4-7).

4. 유다가 망할 때 유다만 망한 것은 아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미 바벨론에 점령당한 뒤다. 바벨론의 강성함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주변 국가들의 허약함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것 아닐까? 본문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여호와와의 진노하심(3): 이것이 주원인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유다의 태도가 역사를 뒤집어 놓을 수도 있다. 대통령의 아들이 진학을 할 때마다 입시 제도나 바뀐 적이 있다(중, 고 무시함 추천입학제 도입, 대학교 계열별 모집, 등)는 소문이 돌았다(1970년대 이야기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 전국이 아니, 전세계가 요동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5.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얼마동안 포위하고 있었는가?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시작하여 11년 4월 9일이면 1년 6개월간 포위하고 있었다.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위기 상황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6. 성벽에 구멍을 뚫었다는 것은 선공부대가 들어왔다는 말이고, 모든 군사가 도망하여 여리고 평지까지 갔다는 것은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는 것은 성공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시드기야가 잡혀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된 것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것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이다(겔 12:14). 누구의 무슨 말을 그렇게 듣지 않았다는 말인가(렘 38:17-23)?

예레미야의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섬겨라는 말(대하 36:12, 렘 38:17, 겔 17:15). 시드기야의 비극적인 최후도 예언되었던 것이다(렘 38:17-23, 렘 32:4, 34:3, 겔 12:13.)

7.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둘러쌌다더니(5) 왜 립나에 있나(9)?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아마도 립나에 본부를 차려놓고 여기 저기 군사를 파견했는데 그 중의 한 부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아마 느부사라단의 인솔 아래). 아니면 개전 초기에 참가했다가 포위 기간이 길어지자 중간에 본대로 귀환했을 수도 있고...

8. 죽은 사람도 적지 않았겠지만 이번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4,600명뿐이네! 그러면 도망가거나 남은 사람도 적지 않았을 텐데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고 하는가? 남은 사람들이 농민들이라고 무시하는 표현 아닌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했으면 항복하는 것이 옳다. 본의는 아닐지라도 결국은 말씀대로 잡혀간 자들에게 회복의 싹이 틈다: 남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격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장차 유다의 미래는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들에게 있다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예언했기 때문이다(사 52:1-12, 렘 50:17-20, 51:45-49, 겔 37장).

9. 느부갓네살 19년(12)이 유대식으로 말하면 언제일까?

시드기야 11년이다. 그 해 4월 9일에 양식이 떨어졌다(6). 한 달 뒤에 전후처리를 위해서 느부사라단이 도착한 모양이다. 그러니까 느부사라단의 기사는 또 다른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 중에서 전후처리 문제에 관한 것이다

10. 이전에도 여러 번 침입을 받았지만 이번처럼 여호와와 전과 왕궁과 집을 모조리 불태우지는 않았다. 느부갓네살의 침공 목적이 이전과 어떻게 달랐다는 말인가?

점령이 목적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11. 경주의 갑포 앞 바다에서 황룡사의 거대한 종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으나 아직은 성과가 없다. 몽고

군사들이 신라의 황룡사를 불태우고 이 종을 가져가려고 했으나 너무 크고 무거워 배로 운반하려고 재를 넘어서 바닷가로 가져가다가 어디선가 물에 빠뜨려 버렸고, 그 종이 아마도 감포 앞바다 어디엔가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바벨론 군사들은 몽고 군사들보다 더 무식하다. 왜?

성전의 두 기둥과 돛바다를 깨뜨렸으니: 워낙 커서 깨뜨려서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깨버리면 값어치가 훨씬 떨어지는데... 돛기둥의 지름은 약 4규빗, 높이가 18규빗이고, 돛바다의 크기는 직경 10규빗, 둘레 30규빗, 높이 5규빗, 용적 2000밧, 두께 한 손 넓이(뿔이 아니고 손바닥 넓이로 6분의 1규빗, 3인치), 열두 마리의 소가 사방을 바라보며 바다를 받치고 있었다(왕상 7장). 1규빗을 대략 50cm로 계산해 보라.

12. 성전의 기물들을 빼앗기는 과정도 이전과 좀 다르다. 이번에는 주로 돛으로 된 물건을 빼앗겼다. 왜 무게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너무 많아서

13. 16-17절과 20-23절은 중복 같아 보인다. 왜 같은 내용을 두 번이나 기록하였을까?

두 번째 언급은 해야될 수 없을 만큼 많은 무게를 말하려는 것이다.

14. 성전 기둥에 웬 그물과 석류인가(17)?

그물 모양과 석류모양으로 된 장식을 일컫는 것이다.

15. 사로잡혀 간 자와 사로잡혀 죽임을 당한 자를 비교해 보자.

처음에 사로잡힌 자 중에서 쓸 만한 인재는 다 잡아가고 빈천한 자만 남겨 두었다(11-12) 그 후에 사로잡힌 자는 전부 죽었다(18-21): 아마도 끝까지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 같다.

16. 예레미야서의 대부분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내용이다. 마지막 장은 선포한 메시지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기록했다. 더구나 열왕기에 있는 내용인데... 왜 그랬을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징계를 당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다. 31-34절이 그것이다(아래 질문 참조).

17.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고 대신에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다(24:17).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라고 하셨는데 다윗의 위는 시드기야로 이어지는가 아니면 여호야긴으로 이어질까?

메시야의 계보는 여호야긴으로 이어진다. 말미에 여호야긴의 이야기를 언급한 것이 그런 연유이다: 마 1장의 여고냐가 여호야긴이다(대상 3:16, 렘 37:1의 고니야)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마 1:10-12)..

예레미야 끝!